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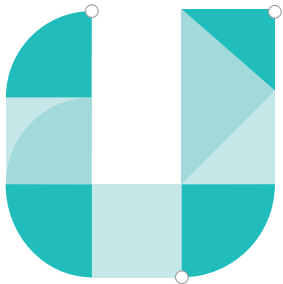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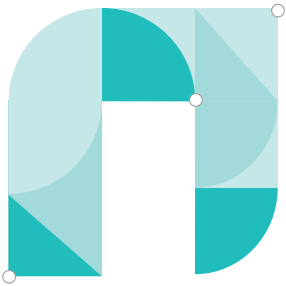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박주화 | 최훈석 | 권영미 | 이하연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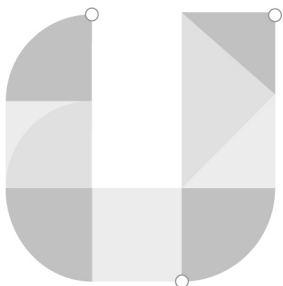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영미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이하연 (성균관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사업(3/4년차)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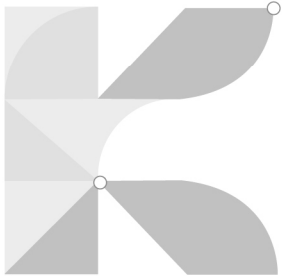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20-17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저자	박주화, 최훈석, 권영미, 이하연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I S B N	979-11-6589-035-3 94340 979-11-6589-031-5 (세트)
가격	12,500원

© 통일연구원, 202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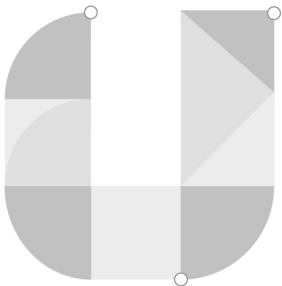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5
I. 서론	2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5
II. 이론적 배경	29
1. 이론-기반 태도 척도 개발의 중요성	31
2.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의 개관	35
3. 통일에 대한 태도의 핵심 차원	44
III.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척도 구성	53
1. 통일의 개념적 정의	55
2. 인지/정서 차원 척도의 구성	56
3. 통일에 대한 태도의 수렴/변별 요인	57
4. 통일에 대한 태도의 준거(공존) 요인	63

IV. 예비조사 65

1. 예비조사 목적 및 방법 67
2. 예비조사 측정 변수 67
3. 예비조사 결과 73
4. 결과 요약 및 논의 80

V. 본조사 85

1. 본조사 목적 및 방법 87
2. 본조사 측정변수 87
3. 본조사A 결과($N=1,500$) 95
4. 본조사B 결과($N=1,500$) 106
5. 결과 요약 및 논의 166

VI. 종합논의 173

1. ATU-K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76
2. ATU-K 척도의 예측력 177
3. ATU-K 척도의 실용적·학술적 함의 178
4.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과제 181

참고문헌	185
------------	-----

부록	193
----------	-----

1. 예비조사 전체 설문지	195
2. 예비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209
3. 예비조사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213
4. 본조사A 전체 설문지	224
5. 본조사B 전체 설문지	236
6. 본조사A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	248
7. 본조사B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	251
8. 본조사A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254
9. 본조사B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26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83
------------------	-----

표 차례

〈표 IV-1〉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 예비문항	69
〈표 IV-2〉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74
〈표 IV-3〉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75
〈표 IV-4〉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 요인분석(2요인 고정)	75
〈표 IV-5〉 ATU-K 척도 정서 예비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76
〈표 IV-6〉 ATU-K 척도 정서 예비문항 요인분석	77
〈표 IV-7〉 ATU-K 척도 예비문항(16개)에 대한 요인분석	78
〈표 IV-8〉 ATU-K 예비척도 하위차원 간(인지, 긍정/부정 정서) 상관	79
〈표 IV-9〉 ATU-K 예비척도와 수렴/변별/준거요인 상관	79
〈표 V-1〉 ATU-K 본조사 척도 문항	89
〈표 V-2〉 ATU-K 척도 인지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A)	96
〈표 V-3〉 ATU-K 척도 정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A)	96
〈표 V-4〉 ATU-K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A 하위표본, $n=750$)	97
〈표 V-5〉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n=1,500$)	99
〈표 V-6〉 ATU-K 통일태도,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유관변수들과의 상관값 비교 ..	101
〈표 V-7〉 ATU-K 통일태도, 단일 문항 통일태도와 유관변수들과의 상관값 비교 ..	101
〈표 V-8〉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남성 응답자)	102
〈표 V-9〉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여성 응답자)	103
〈표 V-10〉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19~29세 응답자) ..	103
〈표 V-11〉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30~49세 응답자) ..	104
〈표 V-12〉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50~69세 응답자) ..	104

〈표 V-13〉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저소득 응답자) ..	105
〈표 V-14〉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중간소득 응답자) ..	105
〈표 V-15〉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고소득 응답자) ..	106
〈표 V-16〉 ATU-K 척도 인지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B)	107
〈표 V-17〉 ATU-K 척도 정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B)	107
〈표 V-18〉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109
〈표 V-19〉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1
〈표 V-20〉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1
〈표 V-21〉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2
〈표 V-22〉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2
〈표 V-23〉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3
〈표 V-24〉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3
〈표 V-25〉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4
〈표 V-26〉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114
〈표 V-27〉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6
〈표 V-28〉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6
〈표 V-29〉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7
〈표 V-30〉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7
〈표 V-31〉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8
〈표 V-32〉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8
〈표 V-33〉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9

〈표 V-34〉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	119
〈표 V-35〉 ATU-K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예측효과 비교	120
〈표 V-36〉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121
〈표 V-37〉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	121
〈표 V-38〉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122
〈표 V-39〉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122
〈표 V-40〉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123
〈표 V-41〉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	123
〈표 V-42〉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124
〈표 V-43〉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124
〈표 V-44〉 ATU-K 통일태도와 단일문항 통일태도 예측효과 비교	125
〈표 V-45〉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남성응답자) ...	126
〈표 V-46〉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27
〈표 V-47〉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27
〈표 V-48〉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28
〈표 V-49〉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28
〈표 V-50〉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29
〈표 V-51〉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	129
〈표 V-52〉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30
〈표 V-53〉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130
〈표 V-54〉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여성응답자) ...	131

〈표 V-55〉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2
〈표 V-56〉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2
〈표 V-57〉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3
〈표 V-58〉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3
〈표 V-59〉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4
〈표 V-60〉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4
〈표 V-61〉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5
〈표 V-62〉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135
〈표 V-63〉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19~29세 응답자)	136
〈표 V-64〉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37
〈표 V-65〉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37
〈표 V-66〉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38
〈표 V-67〉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38
〈표 V-68〉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39
〈표 V-69〉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39
〈표 V-70〉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40
〈표 V-71〉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140
〈표 V-72〉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30~49세 응답자)	141
〈표 V-73〉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2
〈표 V-74〉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2
〈표 V-75〉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3

〈표 V-76〉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3
〈표 V-77〉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4
〈표 V-78〉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4
〈표 V-79〉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5
〈표 V-80〉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145
〈표 V-81〉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50~69세 응답자)	146
〈표 V-82〉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47
〈표 V-83〉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47
〈표 V-84〉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48
〈표 V-85〉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48
〈표 V-86〉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49
〈표 V-87〉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49
〈표 V-88〉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50
〈표 V-89〉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150
〈표 V-90〉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저소득 응답자) ..	151
〈표 V-91〉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152
〈표 V-92〉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	152
〈표 V-93〉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153
〈표 V-94〉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153
〈표 V-95〉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154
〈표 V-96〉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	154

〈표 V-97〉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155
〈표 V-98〉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155
〈표 V-99〉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중간소득 응답자) ..	156
〈표 V-100〉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57
〈표 V-101〉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57
〈표 V-102〉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58
〈표 V-103〉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58
〈표 V-104〉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59
〈표 V-105〉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	159
〈표 V-106〉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60
〈표 V-107〉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160
〈표 V-108〉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고소득 응답자) ...	161
〈표 V-109〉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162
〈표 V-110〉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	162
〈표 V-111〉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163
〈표 V-112〉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163
〈표 V-113〉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164
〈표 V-114〉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	164
〈표 V-115〉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165
〈표 V-116〉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165

그림 차례

〈그림 V-1〉 ATU-K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A 하위표본, $n=750$)	98
〈그림 V-2〉 ATU-K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B)	108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과 집단 간 화해의 심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인 인지와 정서 차원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각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이하 ATU-K) 척도를 개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ATU-K 척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은 통일이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세 가지 단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기대)과 각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신념(가치)을 각각 측정하고 두 응답을 곱한 값(기대×가치)을 인지적 요인으로 지표화하였다. 즉, 통일이 가져올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믿고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 통일태도의 정서 차원은 통일을 떠올렸을 때 경험하는 긍정 정서들과 부정 정서들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고, 긍정 정서를 강하게 느낄수록, 그리고 부정 정서를 덜 느낄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ATU-K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ATU-K 척도가 이론에 근거한 통일태도의 구조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검증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것과 일관되게 통일태도는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에 관한 신념들로 구성되는 인지 차원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성되는 정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각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 간 내적 일치도 역시 높게 나타나 ATU-K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둘째, ATU-K 척도가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된 통일 관련 조사도구들

과 개념적으로 수렴되는지 확인한 결과, 본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와 기존 조사도구들(통일연구원 척도, 단일 문항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 점수 간에 중간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 ATU-K 척도가 기존 도구들과 개념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그와 동일한 척도는 아님을 확인하였다.

셋째,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와 개념적으로 변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정치적 가치, 민족 정체성, 공동내집단인식, 사회적 지배경향성, 보수-진보성향)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TU-K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해당 변수들 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개념적으로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가 실제로 통일 관련 행동(의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구 통계 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일태도가 준거변수들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변량도 컸다.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 담론 형성(교육) 정책을 더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덜 지지하며, 개인의 통일지향 행동(예: 통일을 지지하는 기사 검색, 통일을 지지하는 토론 시청 등)과 집단적 통일지향 행동(예: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 참여 등)을 실행할 의도가 더 높았다. 이에 더해, ATU-K로 측정한 통일태도는 기존 도구로 측정된 태도보다 모든 준거 변수들에 대하여 더 강한 예측력을 보여, ATU-K 척도가 기존 조사와 연구들에서 사용하던 측정 도구들에 비해 통일 관련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정책 지지)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일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실용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ATU-K 척도는 통일에 관한 응답자들의 표상을 단일화(‘남북 간 단일

국가 형성')하고 이론-기반으로 통일태도의 구조를 구체화함으로써 응답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최초의 통일태도 척도이다. 이처럼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양화하여 개인 내 및 하위집단별로 시간의 경과와 국내외 정세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일 담론 조성 및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통일태도의 인지와 정서 차원을 세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지닌 통일태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태도의 행동적 결과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인지 기반 태도와 정서 기반 태도가 통일 관련 준거변수와 차별적인 관계를 보이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ATU-K 척도를 예측변수로 활용하여 통일 관련 행동준거를 예측하는 이론모형을 구성하고 이 관계를 조절하는 핵심 조절변수들을 검증하는 학술 및 실용연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일과 화해, 심리적 통합을 예측하는 통합적 이론모형을 구축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과 장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암묵적 측정방식이나 질적 연구방법론을 접목시켜 ATU-K 척도의 통일 관련 행동 예측력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ATU-K 척도를 통해 측정된 통일태도가 실제로 응답자들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한 종단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국내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에 통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상과 신념의 구조가 부침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통일 관련 표상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주제어: 척도 개발,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공감대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Scale

Juhwa Park, Hoon-Seok Choi, Young-Mi Kwon, Hayeon Lee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 valid and reliable scale for measuring an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psychological theories on attitudes and research on intergroup conflicts and reconciliation, we identified two important sub-dimensions of attitudes, cognition and affect.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to test the initial set of items to measure cognitive and affective dimensions of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Based on the preliminary survey result,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ATU-K) scale was developed and the main survey examin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cognitive dimension of the ATU-K scale measured individuals' belief of how much the unification is likely to generate a positive outcome (expectancy) and how desirable the outcome is (value), in the aspects of (a) strengthening national power, (b) maintaining the collective identity, and (c) building peace. The multiplication index between the

expectancy and the value score was used to represent the cognitive dimension of the attitude. A strong belief that the outcome of the unification is desirable and highly probable indicates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The affective dimension of the ATU-K scale measured individuals' experi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when they think about the unification. More positive emotions and less negative emotions indicate that individuals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In the main surve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ATU-K scale appropriately measures the theory-driven structure of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consisted of two distinct dimensions: cognition and affect. As expected, the cognitive dimension was composed of individuals' beliefs in terms of strengthening national power, maintaining the collective identity, and building peace, while the affective dimension consisted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Furthe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as examined by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U-K scale and other existing measures of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i.e., KINU matrix, single item scale), as well as relevant variables (i.e., political values, ethnic identity,

common ingroup belie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liberal-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measured by the ATU-K scale was moderately correlated with the attitude measured by other scales, confirming that the ATU-K scale is conceptually converged with the existing tools and also has its unique varianc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ttitude measured by the ATU-K scale was weakly correlated with relevant variables, offering evidence for discriminant vali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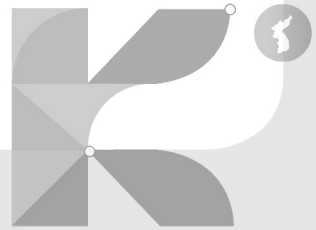
Lastly, a seri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as conducted to examine criterion validity of the ATU-K scale on the unification-related policies support and individuals' behavioral intentions. It was found that after controll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i.e., gender, age, income),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riterion variables with a large-explained variance. Specifically,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predicted stronger support for the cooperativ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lower support for the hostil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stronger intention to engage in personal as well as collective unification-oriented behaviors. It was also found that the attitude measured by the ATU-K scale predicts criterion variables stronger than the attitudes measured by other scales. It demonstrated that the ATU-K scale is a valid

and powerful tool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its behavioral consequences such as the policy support and individual/collective actions for the unification.

As a first theory-driven scale that measures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ATU-K scale is a powerful and valid tool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structure of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he unification and precisely predict unification-related behaviors. Furthermore, the ATU-K scale can contribute to examining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s that include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 reconciliation,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uture research should complement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 of self-report measures of attitudes and examine the dynamic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actual behaviors.

Keywords: Scale Development,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scale, Social Consensus on the Korean Unification

I.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상황,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통일에 관한 사회의 담론 역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크고 작은 사건들과 맞물려 변화를 거듭해왔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통일에 반대하는 담론이 우세한 반면,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교류 등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는 시기에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 힘을 얻는 형국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비해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¹⁾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실시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관된 변화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조사 시기에 따라 단기적인 변화 양상이 지배적이다.²⁾

동일한 외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반응은 각기 다르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간에도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을 직접 경험한 세대의 경우 통일을 당위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전쟁과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체제에 만족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지각한다.³⁾ 연령 이외에도 성별이나 학력,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통일에 대한

1)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5집 2호 (2013), pp. 74~104.

2)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36.

3)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pp. 3~41;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7~46.

선호가 다르다.⁴⁾

통일에 대한 인지적 표상(representation)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은 안정적인 구조를 지닌 하나의 태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정의되며, 대상과 관련된 개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등의 유관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⁵⁾ 특히 태도라는 구성개념은 집단 간 갈등 및 화해의 심리를 다루는 과학적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왔음⁶⁾을 고려하면, 남북 간 갈등 해소와 화해에 있어서도 태도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은 단순히 정치·경제적 차원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며 통일의 과정 및 통일 이후 국민들의 심리적 및 행동적 통합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한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예: 통일 관련 세금 납부,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행동, 통일에 관한 교육 참여 등)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정치적, 사회적, 학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전국 규

4) 박주화·이민규·조원빈,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35~50.

5) Icek Ajzen,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2001), pp. 27~58.

6)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Linda R. Tropp,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3~10.

모의 여론조사 및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들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엄밀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조사를 시행하는 기관마다 편의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관행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측정하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개념적 속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조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정책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 역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다양한 구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⁸⁾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남북 관계의 복잡성과 통일 관련 이슈들의 휘발성(volatility)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응답만으로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김학재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⁹⁾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불규칙한 증가 또는 감소의 단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점차 감소하고,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에 찬성하는 태도가 모두 동일한 이유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에 대한 태도의 기저에 있는 심리기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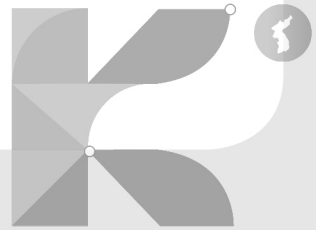
7) 은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pp. 39~43;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pp. 74~104.

8)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 (San Diego, California: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93), pp. 10~19.

9)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pp. 35~40.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통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태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규정한 후 해당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기반 태도 척도 개발의 중요성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가설적 구성개념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대상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념의 구조, 감정 경험, 그리고 행동경향성 등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태도를 추론하는 방식을 취한다.¹⁰⁾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가설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척도(scale)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데, 이 때 척도란 마음의 경험과 같은 질적 특성에 값을 부여하여 양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한다.¹¹⁾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우선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본질적 속성을 이론에 기반하여 미리 규정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태도를 떠올렸을 때 응답자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표상이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태도라는 가설적 구성개념에 값을 부여함으로써 동일한 척도에 응답한 개인들의 태도를 서로 비교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리커트(Likert) 척도¹²⁾이다. 리커트 척도는 단일 차원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다수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총합하여 산출한 최종 점수를 개인의 태도 점수로 간주한다. 리커트는 본래 5가지의 반응 유형(강하게 반대, 반대, 결정하지 못함,

10)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 pp. 10~19; William J. McGuire,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 (1985), pp. 1~47.

11) 탁진국,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pp. 13~17.

12) Rensis Likert,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vol. 22, no. 140 (1932), pp. 90~95.

동의, 강하게 동의)을 사용했으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발된 리커트 척도의 방식은 5가지보다 적거나 많은 반응 유형을 포함시키고 중립 또는 미결정의 반응을 제외하기도 하였다.¹³⁾ 리커트 척도를 구성할 때 중요한 점은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여러 개의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서로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¹⁴⁾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은 진술문(statement)이라고 부르며, 진술문은 대상에 대해 진술하는 어떠한 문장도 포함될 수 있다. 태도 진술문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부터 매우 부정적인 태도에 걸쳐 응답자들로부터 다양한 값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을 기술한 문장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 및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태도 척도의 개발을 위해 진술문을 구성할 때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즉, 과거를 진술하는 문장을 피하고 현재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사실을 다루거나 사실로서 해석될 수 있는 진술문을 피하며,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찬성할만한 진술문이나 찬성하지 않을 만한 진술문은 피하되,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의 전체 범위를 포괄할 것으로 기대되는 진술문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항상(always), 전혀(never)와 같은 표현을 피하고, 단지(just), 오직(only)과 같은 표현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진술문은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

13)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 p. 53.

14) Jon A. Krosnick, Charles M. Judd, and Bernd Wittenbrink,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in *Handbook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eds. Dolores Albarracin, Blair T. Johnson, and Mark P. Zanna (Mahwah, NJ: Erlbaum, 2005), pp. 21~76.

되어야 하고, 하나의 진술문에는 한 가지의 완성된 생각만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이중 부정문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¹⁵⁾

이처럼 태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진술문을 만드는 과정에 태도 연구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신뢰도(reliability)란 해당 척도에서 얻은 응답자의 반응 점수가 이후 다른 시점에서 측정할 때에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내적 일관성 계수는 동일한 이론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진술문들이 서로 관련성이 낮다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서의 응답들을 합하거나 평균하여 하나의 태도 점수로 사용하는 것은 신뢰로운 방법이 될 수 없다.

타당도(validity)는 해당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가설적 구성개념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특히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에 하위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소 각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 서로 수렴되는 요인구조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구성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다. 준거타당도(criterion validity)는 해당 척도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준거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준거타당도는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와 공존타당도(concurrent validity)로 구분되는데, 예측타당도는 척도의 점수가 측정 시점 이후의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공존타당도는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5) *Ibid.*, pp. 21~76.

태도 척도의 경우,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점수가 대상과 관련된 행동의도를 강하게 예측한다면 이는 공준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서로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 간 또는 척도 간 상관성이 높고,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 또는 척도들은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됨을 의미한다.¹⁶⁾

태도 척도를 구성할 때 흔하게 범하는 오류들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지 않거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관련성이 낮거나, 개념이 보유한 다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단일 구성개념으로 취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관련된 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구성개념이 하위요소나 여러 단면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하위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분류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척도들을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심리학 분야의 태도이론을 토대로 통일태도 척도의 핵심 차원에 대해 기술한다.

16) 이종승, 『표준화 심리검사』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p. 77~82; 탁진국,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pp. 151~161.

17) Leandre R. Fabrigar, Tara K. MacDonald, and Duane T. Wegener, "The Structure of Attitudes," in *The Handbook of Attitudes*, eds. Dolores Albarracin, Blair T. Johnson, and Mark P. Zanna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5), pp. 79~124; Norbert Schwarz, "Attitude Construction: Evaluation in Context," *Social Cognition*, vol. 25 (2007), pp. 638~656; Norbert Schwarz and Daphna Oyserman, "Asking Questions about Behavior: Cognition, Communication and Questionnaire Con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vol. 22 (2001), pp. 127~160.

2.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의 개관

가. 국내 통일인식 조사의 통일에 대한 태도 측정 방식 개관

국내에서 실시된 통일 관련 인식 조사는 1990년대 이후 통일과 관련된 공공기관(예: 통일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안전처 등), 언론사(예: 중앙일보, 조선일보, KBS 남북교류협력단 등), 대학연구소(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등에서 다수 실시했다.¹⁸⁾ 이 조사들 중 일부는 일반사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일부 문항들을 포함하였고, 조사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인식과 태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측정하는 유형의 조사가 증가하였고, 대표적인 예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조사들은 대부분 남북관계에 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 관련 구체적 정책에 대한 태도,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남북 교류와 화해에 관한 인식 등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기보다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문항들을 일부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 문항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¹⁹⁾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

18) 은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pp. 39~43.

19) 김지범 외,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p. 197.

사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단일 문항과 더불어 통일의 이유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이상적인 통일의 추진 방식 및 시기, 통일이 개인 및 공동체(국가)에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희망하는 통일 체제 유형, 대북 사안별 시급성 지각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4~2017)는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일 문항 외에 통일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3개의 문항(‘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평화적 남북관계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다.’,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된다.’,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좌우지간 통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 ‘통일 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일의 이유에 관한 의견과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 통일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였다.²⁰⁾

마찬가지로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평화인식 조사(2018)에서는 문항의 내용을 변형하여, 통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20) 박주화·이민규·조원빈,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36~49.

태도를 묻는 단일 문항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4개의 문항(‘남북한 통일은 필요하다.’,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통일 관련 (예: 통일 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탈북민 지원 등) 예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통일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분단된 상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나는 통일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나의 생활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분단이 유지돼도 상관없다.’, ‘통일 이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렵다.’)을 사용하였다.²¹⁾

2019년에 실시된 통일연구원의 한국인의 평화인식 조사에서는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단일 국가 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1개의 문항(‘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전쟁의

21)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42~343.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을 구성하여 사용했다.²²⁾

기존 통일 관련 인식 조사들에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반복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측정,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상이한 문항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조사들은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응답자들이 통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 표상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인 경우, 주어진 질문을 읽고 응답자가 이해한 대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응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질문의 의도나 질문의 주제가 되는 대상에 관해 응답자들이 이해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일에 대해 국민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나 구체적인 표상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통일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해석하여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떠올리는 표상이 일관성을 지니고

22)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175~178.

있어야만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응답자들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기존 조사들에서는 통일의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남북화해, 국가연합, 평화유지 등 다양한 표상에 근거하여 저마다 응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통일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와 척도 내에서 통일의 형태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응답자들이 문항을 해석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한계점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존 조사들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단일 문항 또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단일 문항을 포함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간편 요약지수(summary index)로서 응답자 개인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고 편의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구성개념의 복잡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단일 문항으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북한에 대한 태도, 과거의 남북 관계에 대한 지각, 응답자 주위 사람들의 반응, 최근의 사회적 사건이나 북한의 도발 행동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남과 북의 정세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는 별개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에는 일정한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응답의 감소 및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응답의 증가).²³⁾ 이 결과는 단일 문항으로부터 얻은 통일의 필요

23)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pp. 37~43.

성에 대한 믿음이나, 전반적으로 통일에 찬성/반대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단순화된 지표만으로는 국민들이 왜 통일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알아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과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문항은 서로 상관관계는 있으나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할 때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영향을 미치거나, 통일이 가져올 이득과 손해를 현 상태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를 고려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포함하여 통일의 편의 판단,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 전쟁과 평화에 관한 태도, 남북 간 정세 등 매우 다양한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는 상위수준의 처리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의 영향으로 결정된 하나의 결과로서의 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에 대한 전반적 찬성/반대 응답만을 얻는 방식으로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통일 관련 신념의 구체적 내용과 구조, 통일이라는 심적 표상과 연합된 구체적 정서 경험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셋째,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들에서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단일 문항 이외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문항들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단일 문항 측정방식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는 있으나, 조사도구의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 문항들을 취합한 점수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2014~2017)와 한국인의 평화인식 조사(2017~2019)는 각각 13개 문항, 14개 문항, 11개 문항을 사용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에 관한 인식, 통일의 편익 지각, 통일과 관련된 정서 경험, 통일관련 행동의도 등을 측정하였다.²⁴⁾ 이 조사들에서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거나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각 문항의 구체성 수준과 측정하고자 하는 태도의 단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통합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의 편익 지각은 주로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관여되어 나타나는 결과인 반면, 통일과 관련된 정서 경험이나 통일과 관련된 행동을 실행할 행동의도는 각각 태도의 정서적, 행동적 단면에 해당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의 경우 즉각적이고 단순한 반면, 대상과 관련된 신념들로 구성된 인지적 성분은 그 내용과 구조가 복잡하며 시간이나 상황적 요인에 따른 가변성이 크다. 또한 행동의도의 경우 태도와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상황적 제약이나 태도의 강도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구성개념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심리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추상적인 상위 수준의 개념과 그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하위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에는 반드시 일관성(consistency) 및 조리성(coherence)이 있어야 한다.²⁵⁾ 따라서 신뢰롭고 타당한 방식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타당성

24) 박주화·이민규·조원빈,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pp. 35~50;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175~178.

25) Paul L. Gardner, "The Dimensionality of Attitude Scales: A Widely Misunderstood Idea,"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 18 (1996), pp. 913~919.

이 확보된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 차원을 이해하고, 각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집단 간 화해 및 평화 척도의 개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타당화된 척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 간 갈등 해소와 화해의 심리를 다룬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의 하위 차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스탐멜(Stammel) 등은 집단 간 갈등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간 화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Readiness to Reconcile Inventory)를 개발하였다.²⁶⁾ 이 연구에서는 1) 개인 및 공동체 수준에서 기존에 갈등 관계에 있던 집단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행동의도 차원), 2) 복수심, 증오심의 배제(정서 차원), 3) 외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인지 차원)의 요소가 집단 화해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슈나벨(Shnabel) 등은 집단 간 화해를 ‘기존에 갈등 관계에 있던 집단들이 상호 정체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하여 신뢰롭고 긍정적인 집단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갈등 관계에 있는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 각각에서 화해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탐색했다.²⁷⁾ 이 연구에서 화해의도를 측정하기 위

26) Nadine Stammel et al., “The Readiness to Reconcile Inventory: Assessing Attitudes toward Reconciliation in Victims of War an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33 (2017), pp. 436~444.

27) Nurit Shnabel et al.,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2009), pp. 1021~1030.

한 문항들은 외집단에 대한 인식(인지 차원), 외집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정서 차원),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하기 위해 특정 행동들을 실행할 의도(행동의도 차원)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누르(Noor) 등은 과거의 폭력적 사건이 얹힌 두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 관계에서 집단 간 화해를 유발하는 조건을 탐색하였으며, 화해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거에 벌어진 외집단의 폭력행위에 대한 평가와 양측이 경험한 피해에 대한 지각(인지 차원), 외집단에 대한 신뢰(정서 차원), 외집단을 용서하려는 의도(행동의도 차원)를 측정하였다.²⁸⁾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남북한 관계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가해와 피해 경험이 관여된 첨예한 갈등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세계 집단들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해의 심리를 다루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논의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화해의 심리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하위 차원 - 인지, 정서, 행동의도 - 이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들과도 개념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8) Masi Noor, Rupert James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pp. 741~763.

3. 통일에 대한 태도의 핵심 차원

가. 태도의 정의 및 측정방식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좋음-나쁨(good-bad), 이로움-해로움(beneficial-harmful), 쾌-불쾌(pleasant-unpleasant), 호감-비호감(likable-dislikable) 등의 단면에서 개인의 평가로 측정된다.²⁹⁾ 이때 개인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간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대상에 대한 평가의 연속선상에서 개인 스스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³⁰⁾ 다시 말해, 정반대의 속성을 양 끝에 둔 연속선상에서 대상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 또는 얼마나 비호감을 느끼는지 그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태도를 다성분 구성개념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태도는 인지(cognition), 정서(affect), 행동 경향성(conation)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³¹⁾ 인지적 요인은 태도 대상에 대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지식 및 지각을 반영하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념(belief)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정서적 요인은 태도 대상에 대해 개

29) Icek Ajzen and Martin Fishbein, "Attitude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asoned and Automatic Process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1 (2000), pp. 1~33;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 pp. 1~2.

30) Icek Ajzen,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in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eds. Anthony R. Pratkanis, Steven J. Breckler, and Anthony G. Greenwald (London: Psychology Press, 1989), pp. 241~274.

31) Milton J. Rosenberg and C. I. Hovland,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eds. C. I. Hovland and Milton J. Rosenber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pp. 1~14.

인이 느끼는 감정 경험을 반영하며, 쾌-불쾌의 포괄적인 느낌 외에도 혐오, 자랑스러움, 분노 등 특수한 정서 경험을 수반한다. 행동적 요인은 태도 대상과 관련된 행동 경향성, 행동의도, 그리고 실제 행동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접근 경향성과 관련되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대상으로부터의 회피 경향성과 관련된다. 태도와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위계관계로 규정하는 위계적 태도 모형에 따르면, 세 가지의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아야 한다. 따라서 세 구성요소들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³²⁾

또 다른 관점에서 피쉬바인(Fishbein)과 아이젠(Ajzen)은 태도를 대상에 대한 일차원의 전반적인 평가 반응으로 보고, 인지와 정서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그리고 행동을 태도의 결과로 취급하는 인과적(causal) 모형을 제안했다.³³⁾ 이 모형에 따르면 행동 차원은 실제 행동과 행동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로 세분화되며, 개인의 행동은 인지와 정서 요인으로 구성된 태도의 결과이며 행동의도가 태도(인지 및 정서 차원)와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 기능한다.³⁴⁾ 이러한 전제하에 피쉬바인과 아이젠의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태도와 행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대-가치 모형(expectancy-value model)을 적용한다.³⁵⁾

32) *Ibid.*, pp. 1~14.

33) Martin Fishbein and Icek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1975), pp. 1~18.

34) Icek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1991), pp. 179~211; Icek Ajzen and Martin Fishbein,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84 (1977), pp. 888~918; Icek Ajzen and Martin Fishbein, "Attitude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asoned and Automatic Processes," pp. 1~33.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신념은 그 대상이 야기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기대)과 해당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한 평가(가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떤 대상이 특정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수록 개인은 그 대상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대상에 대한 접근 행동을 취할 행동의도를 높이고, 그 결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합리적 행동 이론으로부터 확장된 아이젠(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행동의도의 결정요소로서 인지적 신념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³⁶⁾ 먼저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는데,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위 사람들이 그 행동을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반영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개인이 그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평가하는지를 의미하며, 자신이 그 행동을 쉽게 실행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그 행동을 실행할 의도도 높고 실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 이론에서 서로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도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에 해당한다.

35) Martin Fishbein and Icek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pp. 30~32.

36) Icek Ajzen,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eds. Julius Kuhl and J. Beckmann (New York: Springer, 1985), pp. 11~39; Icek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p. 179~211.

합리적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은 대상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개인의 신념으로 환원시켜 연구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적 요인이 인지적 요인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³⁷⁾ 인지와 정서의 상대적 우세성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접근법과 달리, 태도의 다성분적 특징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인지나 정서 요인의 우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인지와 정서 모두 대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³⁸⁾ 이 관점과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태도의 핵심 차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집단 간 화해 심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 다요소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정서 두 가지 태도 성분을 척도에 반영함으로써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서 통일에 관한 국민의 태도가 주로 어떤 성분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 받는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일 정책 입안 및 실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중 행동적 차원의 경우, 통일 관련 행동이 일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행동들에 비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특수한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취급하기보다는 태도의 결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통일 관련 행동의도 및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태도 척도에 포

37) Robert B. Zajonc,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vol. 35 (1980), pp. 117~123.

38)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 pp. 10~17; Joop Van der Pligt and Nanne K. de Vries, "Belief Importance in Expectancy-value Models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8 (1998), pp. 1339~1354.

함하지 않고, 태도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준거변수로 사용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태도에 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 - 다성분적 개념으로 보는 관점과 인과적 과정 관점 - 을 모두 반영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특수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나. 통일에 대한 태도의 핵심 요인

(1) 통일에 관한 인지

앞서 언급했듯이 피쉬바인과 아이젠의 태도의 기대×가치 모형에 따르면,³⁹⁾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신념은 그 사건이 유발하는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기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특정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또한 이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믿을수록 해당 사건/대상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반대로, 어떤 사건/대상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그 대상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가 조형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기대와 가치를 각각 측정하여 두 응답을 곱한 값을 인지적 신념의 지표로 사용하는 기대×가치 모형을 토대로 통일에 대한 태도의 인지 성분을 규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신념(가치)과 그러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조합에 의해 통일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39) Martin Fishbein and Icek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pp. 30~32.

따르면, 통일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지각하는지, 또한 이 결과를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믿는지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통일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고, 한국의 경제 발전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신념을 지닐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믿더라도 실제 통일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으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기 어렵다. 또는 통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결과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개인의 기대 및 가치를 측정하여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2) 통일에 관한 정서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 중 정서 경험은 인지적 요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인지적 요인은 대상에 관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신념들과 지식 정보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 지닌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지식/신념과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지식/신념이 모두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개인의 정서 경험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값으로 구성되는 보다 단순화된 느낌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지적 요인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나 기존의 신념의 변화 등 내·외적 요인에 의해 그 구조 및 내용이 변화하는 반면, 대상에 대한 정서적 경험은 한 번 형성되

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⁴⁰⁾

태도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은 긍정(‘좋다’) 또는 부정(‘싫다’)의 전반적인 느낌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를 구체적인 내용 정서(content emotion)로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분(mood)은 ‘좋다/나쁘다’와 같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지속 기간이 길다. 즉,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기분이 나쁜 특정 원인이 없기 때문에 기분을 전환하기 어렵다. 반면에, 정서(emotion)는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험(예: 기쁨, 불안,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등)을 의미하며, 경험의 강도가 강렬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짧고, 해당 정서를 유발하는 원인 사건이 제거되면 정서 경험도 중단된다. 다양한 정서들은 또다시 긍정/부정(valence)과 신체·생리적 활성화 수준, 즉 각성(arousal) 차원에 따라 분류된다.⁴¹⁾ 예를 들어, 기쁨은 활성화 수준이 높은 긍정 정서인 반면 편안함은 활성화 수준이 낮은 긍정 정서이며, 분노는 활성화 수준이 높은 부정 정서이고, 슬픔은 활성화 수준이 낮은 부정 정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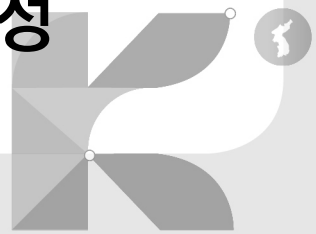
이 구분에 따르면 통일에 관한 정서적 경험 역시 전반적인 기분과 구체적인 내용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다’ 또는 ‘나쁘다’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또는 ‘화가 난다’, ‘불안하다’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통일을 떠올릴 때의 기분을 측정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전반적

40) Kari Edwards,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1990), pp. 202~216;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Advantages of an Inclusive Definition of Attitude,” *Social Cognition*, vol. 25 (2007), pp. 582~602.

41) James A. Russell, “Emotion, Core Affect, and Psychological Construction,” *Cognition and Emotion*, vol. 23 (2009), pp. 1259~1283.

인 느낌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특정 행동 반응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을 떠올릴 때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통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통일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비교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구체적인 정서 경험은 그와 연합된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슬픔’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 동기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공포’ 정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을 회피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또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 사람들은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 또는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대상에 작용을 가하여 해당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통일을 떠올렸을 때 느끼는 구체적인 정서 경험에 따라 이후 개인이 취하게 될 반응이 각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정서적 요인을 전반적인 긍정/부정 정서의 측면과 구체적인 내용 정서의 측면에서 모두 분석할 수 있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III. 통일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척도 구성



1. 통일의 개념적 정의

국내에서 실시된 통일 인식 조사들의 공통적인 한계점 중 한 가지는 조사에서 다루는 통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통일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표상에 따라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통일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8년 통일의식조사’와 ‘2019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이미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전체 응답자의 약 60%),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전체의 약 20%,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의 응답이 약 15%, 그리고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의 응답이 각각 약 7%, 4%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통일을 떠올렸을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형태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측정하기 전에 먼저 통일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응답자들이 통일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동일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2. 인지/정서 차원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태도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주도해 온 기대×가치 모형을 기반으로 통일이 한반도에 특정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와 그 결과의 바람직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결과 사건들은 통일을 지지/반대하는 이유를 묻은 선행연구⁴²⁾들을 참고하여 구성했다.

척도의 정서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북한 또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서를 주로 측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라는 특정 사건을 떠올렸을 때 개인들이 경험하는 정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북한 및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정서와 통일에 대한 정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이론적으로 구분되는 심리적 구성개념이며, 특히 통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를 포함하는 태도는 통일과 관련된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으로 ‘좋음-나쁨’을 묻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는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 정서로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 정서의 활성화 수준이 대상에 대한 접근-회피 행동을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⁴³⁾에 착안하여 긍정/부정 정서 중에서도 활성화 수준이 높은 정서들을 포함하였다.

42) Woo Young Lee and Ha Yeon Lee,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istorical Social Research*, vol. 44 (2019), pp. 293~307;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pp. 30~83; 이상신 외,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 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pp. 37~58.

43) James A. Russell and Geraldine Pratt, "A Description of the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1980), pp. 311~322.

3. 통일에 대한 태도의 수렴/변별 요인

가설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가 대상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척도의 타당도를 점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수렴타당도는 해당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검사나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점검하여, 두 척도 간 상관이 일정 정도 확보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변별타당도는 관련은 있지만 서로 구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검사/척도와의 상관이 낮음을 통해서 판단한다.

가. 통일에 대한 태도의 수렴 요인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통일인식조사에서 자주 사용하던 찬성/반대 단일 문항과 함께 2019년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11개의 문항을 조사에 포함했다.⁴⁴⁾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와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단일 문항, 그리고 통일연구원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여 ATU-K 척도가 기존의 방식으로 측정하던 통일태도의 구성개념과 개념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나. 통일에 대한 태도의 변별 요인

통일에 대한 태도와 개념적으로 구분될 것으로 기대하는 변별 요인들은 통일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연구들

44)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175~176.

에서 통일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선정하여 조사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 요인들과 ATU-K 척도로 측정한 태도 점수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상관관계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 정치적 가치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는 개인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가치들을 의미하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는 정치적 가치들이 안전과 조화의 상위 수준 가치로 수렴됨을 보고했다.⁴⁵⁾ 이 두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인에 따라 두 가치 중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즉, 두 가치 중 안전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은 국가의 힘과 질서(국력)를 기준으로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반면, 조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은 국제적 조화와 평등을 기준으로 정치적 행동을 결정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조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은 진보적인 정책을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안전과 조화의 가치와 통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2018년 통일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조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군사력을 통한 평화 달성 방식에 반대하고 양측 간의 협력을 통한

45)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1997), pp. 401~414; Valerie Braithwaite, "The Value Orientations Underlying Liberalism-conservat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5 (1998), pp. 575~589.

평화 달성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이 결과를 고려하면 조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 가치의 경우에도 통일이 전쟁의 위협을 줄일 것이라는 신념을 지닌 사람이라면 안전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

(2) 우익권위주의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는 관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권위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의 특징을 포함하는 개인 특성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익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전통적 규범이나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전통과 규범을 위반하는 상대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권위와 체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특성을 보인다.⁴⁷⁾ 우익권위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집단 간 현상에서의 전반적인 보수성을 예측하며,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보수적인 정치적 경향성과 강한 상관을 보이며,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예측한다.⁴⁸⁾

개인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이 북한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윤광일의 연구에 따르면,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대북 강경정책을 선호하고 통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우익권위주의와 정치적 보수성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

46)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pp. 226~282.

47) Bob Altemeyer,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pp. 47~92.

48) *Ibid.*, pp. 47~92.

49)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제62권 4호 (2019), pp. 25~66.

면 우익권위주의는 통일과 부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익권위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보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나 권위, 체제를 따르는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지각하는 전통적 가치 또는 통일의 주체가 되는 권위와 체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통일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사회적 지배경향성

사회적 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은 사회집단들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수용 수준과 위계적 관계에 대한 선호 수준을 반영한다.⁵⁰⁾ 즉, 사회적 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모든 사회집단들이 평등하지는 않다고 믿고,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높은 서열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우익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배경향성 역시 다양한 사회·정치적 현상과 집단 간 현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며, 타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편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배경향성이 낮을수록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문화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⁵¹⁾ 타인에 대한 공감감이 낮고,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더 강하게 반대하며,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더 멀게 느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⁵²⁾ 특히 윤광일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배경향성이 높을수록 대북 강경정

50)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1994), pp. 741~763.

51) 전란영·김희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3호 (2019), pp. 95~127.

52) 황세영·강정석·강혜자,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1권 3호 (2017), pp. 181~206.

책을 선호하고, 대북 유화 정책에 반대하며, 통일에 대한 선호도 낮았다.⁵³⁾

우익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편견과 차별을 강하게 예측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덕킷(Duckitt)과 시블리(Sibley)는 두 이념적 태도를 서로 구분하여 우익권위주의는 위협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집단 안보, 통제, 안정, 질서의 가치가 표출되는 태도이며, 사회적 지배경향성은 경쟁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권력, 지배, 우월 가치가 표출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⁵⁴⁾ 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두 변수들은 정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⁵⁵⁾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사회적 지배경향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분명하게 비교되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사건은 양측의 국민들 간의 지위 차이를 줄이는 결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4) 진보-보수 정치성향

개인의 정치성향은 북한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인구통계 변수들과 더불어 자주 연구되어온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진보

53)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pp. 25~66.

54) John Duckitt and Chris G. Sibley, “Personality, Ideological Attitudes, and Group Identity as Predictors of Political Behavior in Majority and Minority Ethnic Groups,” *Political Psychology*, vol. 37, issue 1 (2016), pp. 109~124.

55)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pp. 25~66; J. Christopher Cohrs et al., “The Motivational Base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elations to Values and Attitudes i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2001,”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vol. 31 (2005), pp. 1425~1434.

-보수 정치성향(liberal-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이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방향으로 예측하는지 점검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 이외에도 통일이 가져올 긍정/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지적 신념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통일태도와 정치적 성향은 서로 관련은 있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5) 민족 정체성과 공동내집단인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정의하며, 이를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이라고 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화되며, 외집단과 구분되는 내집단의 긍정적인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정의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한다.⁵⁶⁾ 사회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 정체성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집단 간 관계에서의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독특한 맥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 정체성 이외에도 남과 북을 포괄하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화 외의 연구에 따르면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북화해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였

56) Henri Tajfel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s. William G. Austin and S. Worchel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79), pp. 33~47.

다.⁵⁷⁾ 이는 남한과 북한사람들을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남북화해 의도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가 ‘한민족’이라는 실제적 당위성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과 통일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남북 공동내집단인식(common ingroup perception)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단일한 민족이라는 인지적 신념으로, 자신을 한민족에 동일시하고 애착을 느끼는 민족 정체성과는 구분된다.⁵⁸⁾ 본 연구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공동내집단인식을 독립적 구성개념으로 가정하고 두 차원을 구분해서 본조사에서 측정하였다.

4. 통일에 대한 태도의 준거(공존) 요인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태도가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존 요인들을 조사에 포함하여 측정했다.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할 의도가 높고, 그에 따라 실제로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행동의도 및 행동 지향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포함했다.

57)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pp. 283~323.

58) John F. Dovidio,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2009), pp.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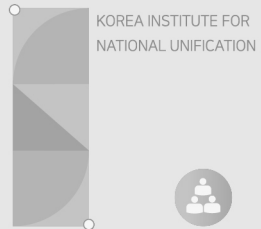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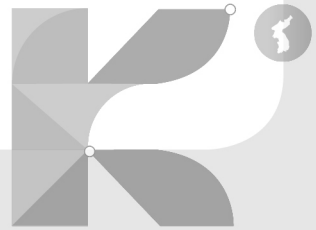
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는 통일 관련 태도나 북한 관련 태도를 연구할 때 태도의 결과 변수로 흔히 사용되는 요인이다. 다시 말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태도가 실제로 관련 정책에 대한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및 대북정책을 우호적 정책(지원/협력 정책)과 적대적 정책(대북제재 및 강경정책)으로 구분하고, 정책에 대한 전반적 지지 수준 및 구체적 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을 통일에 대한 태도를 통해 예측 가능한지 검증하였다.

나. 통일지향 행동의도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통일과 관련된 접근 또는 회피 행동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거나 통일을 지지하는 행동을 더 자주 하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통일을 지향하는 행동을 실행할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구성했다. 특히 통일을 지지하는 행동은 개인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있는 집단이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집합적 수준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통일지향 개인행동과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통일지향 집단행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했다.

Ⅳ. 예비조사



1. 예비조사 목적 및 방법

예비조사에서는 ATU-K 척도 예비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의 유관변수들과의 상관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69세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2일~2020년 5월 19일(총 7일) 동안 진행되었고, 참가자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할당표집을 이용하여 모집되었다. 응답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표본추출 및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주)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2. 예비조사 측정 변수

가. ATU-K 척도 예비문항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인지’와 ‘정서’ 차원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인지 차원에서는 통일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통일이 일으키는 여러 결과에 대한 기대(1=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7=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와 가치(1=전혀 바람직하지 않다.~7=매우 바람직하다.)를 물었다. 그리고 기대×가치 모형에 기반한 태도측정 모형에 따라⁵⁹⁾ 기대 점수와 가치 점수를 곱하여(기대×가치) 해당 결과에

59) Icek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pp. 179~211; Icek Ajzen and Martin Fishbein, “Scaling and Testing Multiplicative Combinations in the Expectancy-value Model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8 (2008), pp. 2222~2247.

대한 평가점수를 산출하였다. 즉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점수가 높을수록(통일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 통일의 긍정적 결과는 통일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고⁶⁰⁾ 추가적인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국력 강화’와 ‘평화 증진’,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일의 부정적 결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문제의 증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물었다.

정서 차원에서는 통일을 떠올리면 느껴지는 정서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하여 물었다(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7=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긍정/부정 정서는 박인조와 민경환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대표 정서의 정부성(긍정-부정)과 활성화(활동성) 차원을 고려하여,⁶¹⁾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서 모두 높은 활성화 수준을 지닌 정서 단어들로 선별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구성된 ATU-K 척도의 인지/정서 차원 문항은 <표 IV-1>과 같다.

60) Woo Young Lee and Ha Yeon Lee,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pp. 293~307; 김학재 외, 『2019년 통일의식조사』, pp. 30~83; 이상신 외,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pp. 37~58.

61) 박인조·민경환,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1호 (2005), pp. 109~129.

〈표 IV-1〉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 예비문항

인지 차원 (8문항)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시킨다.
		남북한 통일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야기한다. (역)
		남북한 통일은 사회문제(예: 이념 갈등, 가치관 혼란, 양극화 등)를 증가시킨다. (역)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정서 차원	긍정 정서 (5문항)	설레다.
		즐겁다.
		반갑다.
		기쁘다.
		행복하다.
	부정 정서 (5문항)	거부감이 든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무섭다.
		억겁다.

(역) = 역문항.

나. ATU-K 척도의 수렴/변별/준거(공존) 요인

예비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수렴 또는 변별될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수렴/변별요인),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가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준거요인)을 측정하여 ATU-K 척도의 예비 문항들과의 상관을 검증하였다. 수렴/변별 및 준거요인으로 측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가치(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

개인의 정치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 두 가치 차원으로 제안된 ‘안전 지향’ 차원(예: “국가의 위대함 – 강하고, 단결된, 독립적인 강력한 국가”, “국가 안보 –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과 ‘조화 지향’ 차원(예: “국제적 협력 – 모든 관련 국가가 상호 이해를 위해 협력하는 것”, “경제적 평등의 향상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각각 측정하였다.⁶²⁾ 응답자들은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1=전혀 중요하지 않다.~7=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안전 지향’ 차원의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α = .87)과 ‘조화 지향’ 차원의 여섯 개 문항 평균(Cronbach’s α = .85)을 사용하였다.

(2) 우익권위주의

자크리슨(Zakrisson)의 척도에서 여덟 개 문항을 선별(예: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매우 동의한다.)하여 사용했다.⁶³⁾ 분석에는 여덟 개 문항의 평균(Cronbach’s α = .83)을 사용했다.

62)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Valerie Braithwaite, “The Value Orientations Underlying Liberalism-conservatism,” pp. 575~589.

63) Ingrid Zakrisson,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2005), pp. 863~872.

(3) 사회적 지배경향성

호(Ho) 등의 척도에서 여덟 개 문항을 선별(예: “이상적인 사회란 여러 집단 간에 상대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사회이다.”,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역)”,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매우 동의한다.)하여 사용했다.⁶⁴⁾ 분석에는 여덟 개 문항의 평균(Cronbach's $\alpha = .72$)을 사용했다.

(4) 민족정체성

호그(Hogg)와 하인스(Hains)의 척도에서 네 개 문항을 선별(예: “당신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당신은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느끼지 않는다.~7=매우 강하게 느낀다.).⁶⁵⁾ 분석에는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6$)을 사용했다.

(5) 진보-보수 정치성향

사회적 이슈(예: 낙태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경제적 이슈(예: 세금법, 복지제도 등), 정치적, 그리고 전반적 수준에서 개인의 진보-보수 성향을 물었다.⁶⁶⁾ 응답자들은 총 7개의 범주(매우 진보적,

64) Arnold K. Ho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2015), pp. 1003~1028.

65) Michael A. Hogg and Sarah C. Hains,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1996), pp. 295~309.

66) Linda J. Skitka et al.,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2002), pp. 470~487.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 본인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숫자가 클수록 보수적인 것으로 점수화(1점 ~ 7점)하여 네 개 문항을 평균(Cronbach's $\alpha = .90$)하여 사용하였다.

(6)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통일연구원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여섯 문항을 사용했다.⁶⁷⁾ 구체적으로 대북제재에 찬성(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UN대북제재 위반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활용될 것이다.”)과 대북지원/협력에 찬성(예: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UN에 요청하여야 한다.”)을 각각 물었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여섯 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른 문항들과 단일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한 개 문항(“UN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을 제외하고, 대북제재 찬성 문항들을 역점수화한 후 다섯 개 문항을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대북지원/협력에 찬성; Cronbach's $\alpha = .85$)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7) 통일지향 행동의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⁶⁸⁾ 통일을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해 여덟 개 문항을 사용하여 물었다(1=전혀 없다. ~7=매우 많

67)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182~184.

68) Nurit Shnabel et al.,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p. 1021~1030.

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금전적 부담 및 지원(예: “통일관련 시민단체나 NGO에게 정기적 기부를 한다.”, “통일을 위해서 소소한 경제적 부담(예: 세금 인상 등)을 진다.”), 캠페인 참여(예: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에 참여한다.”),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예: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어 본다.”, “북한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글을 나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 등의 단면을 물었다. 분석에는 전체 문항을 평균(Cronbach's $\alpha = .94$)하여 사용했다.

다. 인구통계 변수

설문조사의 마지막에 인구통계 변수(출신 지역, 최종학력, 직업, 종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 가족 소득, 지지 정당)들을 측정하였다.

3.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거주/출신 지역, 직업, 월 평균 가족 소득, 종교, 지지 정당, 북한이탈 주민 접촉 여부)를 <부록 2>에, 예비조사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진행된 모든 분석은 전체 응답자($N=1,000$)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가. ATU-K 척도 예비문항 구성타당도 검증

ATU-K 척도의 구조를 확인하고 예비문항을 선별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으며, 요인 회전 시에는 오블리민(Oblimin) 사각회전을 하였다.

(1)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ATU-K 예비척도의 인지 차원 문항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5.01	13.46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28.87	13.31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6.19	12.74
(4)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9.42	12.92
(5)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시킨다.	32.24	13.57
(6) 남북한 통일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야기한다. (역)	20.41	10.53
(7) 남북한 통일은 사회문제(예: 이념 갈등, 가치관 혼란, 양극화 등)를 증가시킨다. (역)	22.63	11.07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29.50	12.85

통일에 대한 평가값(기대×가치) 범위: 1~40(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평가); (역) = 역문항.

ATU-K 예비척도의 인지 차원(통일이 일으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전체 여덟 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기초해로 2요인이 산출되었으며, 두 개 역문항(6번, 7번)이 다른 문항들과 단일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두 번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설명량 1요인: 53.94%, 2요인: 20.91%). 한편 역문항을 제외한 여섯 개 문항의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이 산출되었다(요인 설명량 70.12%). 여섯 개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 간 신뢰도는 <표 IV-3>과 같다. 이후 분석 시에는 역문항을 제외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차원의 여섯 개 문항을 평균(Cronbach's $\alpha = .85$)하여 사용하였다.

<표 IV-3>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부하량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0.90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0.84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0.84
(4)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0.84
(5)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0.82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0.78

한편 역문항을 제외한 여섯 개 문항을 2요인으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력 강화’와 ‘평화 증진’의 두 개 차원이 관찰되었다(설명량 1요인 국력 강화: 70.12%, 2요인 평화 증진: 9.68%).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묻는 문항(4번)은 두 차원에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요인 고정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ATU-K 척도 인지 예비문항 요인분석(2요인 고정)

문항	국력 강화	평화 증진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0.99	—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0.81	—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0.82	—
(4)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0.41	0.51
(5)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	0.99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0.71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3 이하인 경우는 생략(—).

(2) ATU-K 척도 정서 예비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ATU-K 척도의 정서 차원에서 물은 문항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ATU-K 척도 정서 예비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설레다.	4.29	1.57
즐겁다.	4.03	1.51
반갑다.	4.50	1.56
기쁘다.	4.47	1.62
행복하다.	4.03	1.52
거부감이 든다.	3.72	1.49
화가 난다.	2.83	1.42
불안하다.	4.05	1.61
무섭다.	3.60	1.59
역겹다.	2.38	1.42

통일에 대한 정서 범위: 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7(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ATU-K 예비 척도의 정서 전체 문항(긍정 정서 다섯 개, 부정 정서 다섯 개, 총 10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두 요인이 산출되었다(설명량 1요인 긍정 정서: 64.25%, 2요인 부정 정서: 15.25%).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 간 신뢰도는 <표 IV-6>과 같다. 이후 분석 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 다섯 개 문항(Cronbach's $\alpha = .96$)과 부정 정서 다섯 개 문항(Cronbach's $\alpha = .90$)을 각각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표 IV-6〉 ATU-K 척도 정서 예비문항 요인분석

문항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즐겁다.	0.96	—
행복하다.	0.94	—
설레다.	0.93	—
기쁘다.	0.92	—
반갑다.	0.90	—
무섭다.	—	0.92
화가 난다.	—	0.84
불안하다.	—	0.84
역겹다.	—	0.82
거부감이 든다.	—	0.73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3 이하인 경우는 생략(-).

(3) ATU-K 척도 인지/정서 예비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ATU-K 예비척도의 인지 차원 여섯 개 문항(역문항 제외)과 정서 차원 전체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명량 1요인 인지: 57.63%, 2요인 부정 정서: 10.95%, 3요인 긍정 정서: 8.16%).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IV-7〉과 같다. 이후 분석 시 통일에 대한 태도(전체) 점수로 16개의 각 문항을 표준화 (Fisher's z-score)한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했다.

〈표 IV-7〉 ATU-K 척도 예비문항(16개)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인지 (평가)	부정 정서	긍정 정서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0.86	—	—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0.82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0.78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0.75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0.73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0.55	—	—
무섭다.	—	0.90	—
불안하다.	—	0.83	—
화가 난다.	—	0.78	—
역겹다.	—	0.76	—
거부감이 든다.	—	0.72	—
즐겁다.	—	—	0.94
행복하다.	—	—	0.89
설레다.	—	—	0.86
기쁘다.	—	—	0.85
반갑다.	—	—	0.83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3 이하인 경우는 생략(-);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나. ATU-K 예비척도의 수렴/변별/준거 요인과의 상관 검증

ATU-K 예비척도의 하위차원(인지, 긍정/부정 정서) 간 상관과, 전체 태도 점수와 수렴/변별/준거 요인과의 상관은 〈표 IV-8〉, 〈표 IV-9〉와 같다. 수렴/변별/준거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되게 ATU-K 예비척도의 예비문항의 총점이 정치적 가치(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와 민족정체성, 대북 지원/협력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통일지향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ATU-K 척도 예비문항의 총점과 사회적 지배경향성, 보수적 정치적

항 간에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한편 ATU-K 척도 예비문항의 총점과 우익권위주의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우익권위주의는 보수적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점에 서⁶⁹⁾ 통일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상세히 다룬다.

〈표 IV-8〉 ATU-K 예비척도 하위차원 간(인지, 긍정/부정 정서) 상관

	1	2	3
1. 통일태도: 인지	—	.71**	-.56**
2. 통일태도: 긍정정서		—	-.61**
3. 통일태도: 부정정서			—
평균 (표준편차)	28.54 (11.00)	4.26 (1.45)	3.31 (1.27)

** $p < .01$; $N=1,000$.

〈표 IV-9〉 ATU-K 예비척도와 수렴/변별/준거요인 상관

	1	2	3	4	5	6	7	8	9
1. 통일태도(ATU-K)	—	.19**	.39**	.06*	-.31**	.44**	-.35**	.60**	.36**
2. 정치적가치:안전		—	.61**	.48**	-.30**	.36**	.02	-.05	.09**
3. 정치적가치:조화			—	.32**	-.54**	.35**	-.21**	.25**	.13**
4. 우익권위주의				—	.02	.38**	.17**	-.04	.06
5. 사회적지배경향성					—	-.13**	.33**	-.25**	-.01
6. 민족정체성						—	-.06	.33**	.26**
7. 진보-보수성향							—	-.36**	-.11**
8. 대북정책태도								—	.40**
9. 통일지향행동									—
평균 (표준편차)	0.00 (0.87)	5.88 (0.91)	5.36 (0.81)	4.73 (0.98)	3.27 (0.74)	6.05 (1.56)	3.75 (1.17)	4.00 (1.12)	2.51 (1.25)

* $p < .05$, ** $p < .01$; $N=1,000$.

69) John Duckitt and Chris G. Sibley, "Personality, Ideological Attitudes, and Group Identity as Predictors of Political Behavior in Majority and Minority Ethnic Groups," pp. 120~122.

4. 결과 요약 및 논의

예비조사에서는 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인지(통일이 일으킬 결과에 대한 신념: 긍정적 결과-국력 강화, 평화 증진,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부정적 결과-급격한 사회 변화, 사회문제 야기)와 정서(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차원으로 구분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개별 문항의 타당도와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한 통일에 대한 태도의 유관변수들(수렴/변별/준거 요인)을 측정하고 통일태도의 예비척도와 유관변수들과의 상관을 점검하였다.

가. ATU-K 예비척도의 구성타당도

예비조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태도는 인지,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세 차원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지 차원에서는 통일이 야기할 긍정적 결과(국력 강화, 평화 증진,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대한 평가를 묻은 여섯 개 문항이 단일요인으로 묶였다. 한편 통일이 야기할 부정적 결과로 묻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사회문제 야기’ 문항은 다른 인지 문항들과 독립된 차원으로 묶였으며, 긍정적 결과 문항들보다 평균이 낮고 변산이 작은 것(부적 방향으로 편포)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에게서 통일이 야기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이며,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렴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탐색적으로 통일이 야기할 긍정적 결과를 2요인으로 고정하고 분석했을 때 ‘국력 강화’와 ‘평화 증진’ 차원이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에 대한

문항은 국력 강화와 평화 증진 차원에 교차되었다. 이는 예비척도에서 단일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태도의 인지 차원을 긍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세 개 하위단면(국력 강화, 평화 증진,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규정하여 이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정서 차원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두 개 단면으로 구분되었다. 긍정 정서 문항이 부정 정서 문항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전체 문항에서 표준편차(변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부정 정서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끝으로, ATU-K 예비척도의 하위차원(인지, 긍정/부정 정서) 간에 비교적 강한 상관(상관계수의 절대값 범위: .56~.71)이 나타났다. 이는 하위차원 간에 일관성 있는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ATU-K 예비척도와 수렴/변별/준거 요인들과의 상관

ATU-K 예비척도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와 정치적 가치의 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 차원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U-K 예비척도에서 국력 강화와 평화 증진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물었으며, 국가의 안전 또는 국가간 조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통일이 긍정적 결과로 해석됨을 시사한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적 지배경향성, 진보-보수 성향에서도 ATU-K 예비척도로 측정된 통일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배경향성과 진보-보수 성향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더 보수적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약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예비조사를 비롯하여 우익권위주의를 측정된 기존 연구들⁷⁰⁾에서 우익권위주의가 사회적 지배경향성 및 진보-보수 성향과 상관관이 없거나 비교적 약한 상관(본 연구에서 우익권위주의와 진보-보수 성향 간 상관관계수 .17)을 보인 결과를 통해 추론하면, 서양에서 개발된 우익권위주의 척도가 한국인들의 관습지향적/권위주의적 성향을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한국인들의 우익권위주의 성향은 진보-보수 정치성향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우익권위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보완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을 재탐색하고자 한다.

민족정체성은 ATU-K 예비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는 남북한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공동의 상위범주에 속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남북한의 통일에도 우호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민족정체성이 높더라도, 한민족의 대표적 특성을 지닌 것은 남한사람들이며 북한사람들은 한민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즉, 한민족에 소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내집단 투사).⁷¹⁾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민족정체성과 독립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의 내집단에 속해있다는 인식을 묻어 민족정체성 및 통일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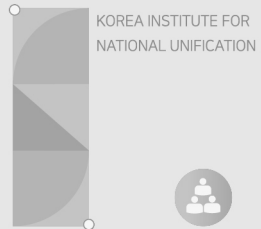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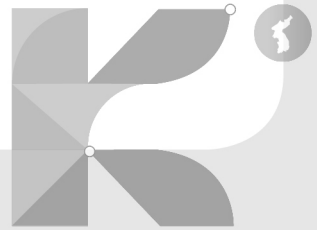
끝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의 준거요인으로 예상했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통일지향 행동의도 모두 ATU-K 예비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즉 통일에 대해 긍정적

70)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pp. 190~216;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211~216.

71) Michael Wenzel, Amélie Mummendey, and Sven Walz,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2008), pp. 331~372.

태도를 지닐수록 대북지원/협력 정책을 찬성하며, 통일지향 행동의도가 강했다. 예비조사에서는 대북 제재와 대북 지원/협력 정책에 대한 태도를 상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한 차원(대북 지원/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에서의 태도로 통합하여 다루었지만, 대북 제재와 대북 지원/협력 정책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차원에서의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구분해서 물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대북 제재와 지원의 두 차원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특히 대북 지원/협력 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실제 정책(예: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군사훈련 축소 등)에 대한 태도로 다원화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논하였듯이 통일지향 행동의도에 있어서도 개인행동(예: 통일을 지지하는 정보 탐색)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예: 캠페인 참여, 온라인 정보 공유 등)을 취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두 차원에서의 행동을 구분해서 물을 필요가 있다. 본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통일지향 행동을 묻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V. 본조사



1. 본조사 목적 및 방법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한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수렴/변별타당도 검증(본조사A) 및 준거타당도 검증(본조사B)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개의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만 19세~만 69세 이하)을 대상으로 각 조사에서 1,500명씩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집을 통해 모집하였다(전체 참가자 총 3,000명). 참가자들은 조사전문업체인 (주)엠브레인퍼블릭의 패널에서 모집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조사는 2020년 8월 6일~2020년 8월 18일(총 12일) 동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 응답의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 $\pm 1.05\%$)였다.

2. 본조사 측정변수

가. ATU-K 척도

본조사 A, B에서 공통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된 ATU-K 척도를 사용하여 통일에 대한 평가(인지)와 정서(긍정/부정 정서)를 묻는 19개 문항을 포함시켰다. 본조사에 사용된 척도 문항 전체는 <표 V-1>과 같다.

본조사에서는 ATU-K 척도의 척도값을 5점으로 축약하여 제작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태도 척도에서 사용하는 척도 범위가 클수록 척도의 신뢰도는 높아진다.⁷²⁾ 이는 더 세분화된 응답들 중에서

72) Duane F. Alwin and Jon A. Krosnick, "The Reliability of Survey Attitude Measurement: The Influence of Question and Respondent Attribut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20 (1991), pp. 139~181.

본인의 태도에 가까운 응답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개인 응답자마다 지닌 태도 차이를 더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세분화된 표상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7개 급간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것보다는 축약된 척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떠올려보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7점으로 세분화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응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태도에 확신을 얻기 어렵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반응 편이성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조사에서는 5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ATU-K 척도의 인지 차원에서는 통일이 일으킬 결과를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세 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아홉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기대×가치)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각 결과의 ‘발생가능성(1점=매우 낮다, 2점=다소 낮다, 3점=중간, 4점=다소 높다, 5점=매우 높다.)’과 ‘바람직성(1점=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2점=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3점=보통, 4점=다소 바람직하다, 5점=매우 바람직하다.)’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발생가능성(기대)과 바람직성(가치)을 곱한 값(범위: 1점~25점)을 각 문항 점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통일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에 대한 정서를 묻는 문항은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긍정 정서 다섯 개, 부정 정서 다섯 개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은 통일을 떠올렸을 때 각 정서가 느껴지는 정도에 대해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부터 5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묻는 순서는 무선했었다.

〈표 V-1〉 ATU-K 본조사 척도 문항

인지 차원	국력 강화 (3문항)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체성 보존 (3문항)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평화 증진 (3문항)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정서 차원	긍정 정서 (5문항)	(1) 설레다.
		(2) 즐겁다.
		(3) 반갑다.
		(4) 기쁘다.
		(5) 행복하다.
	부정 정서 (5문항)	(1) 거부감이 든다.
		(2) 화가 난다.
		(3) 불안하다.
		(4) 무섭다.
		(5) 역겹다.

나. 본조사A: 수렴/변별 요인

(1)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조사도구

2019년 통일연구원의 연구에서 사용한 남북한이 단일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11개 문항을 사용했다.⁷³⁾ 이 척도는 남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데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여섯 개 문항(예: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

73)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175~176.

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과 남북한이 단일 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다섯 개 문항(예: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해당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Oblimin 사각회전 실시) 결과 기초해는 2요인(1요인 설명량 48.21%, 2요인 설명량 18.37%; 요인 순서대로 ‘단일 국가 구성 지지’와 ‘단일 국가에 대한 반대’ 차원)이 산출되었으나, 1요인 고정 시 요인 설명량이 48.21%로 충분하여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분석 시 11개 문항을 평균(단일 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역점수화하여 계산; Cronbach’s $\alpha = .82$)하여 사용하였다.

(2) 정치적 가치(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

예비조사와 동일한 척도⁷⁴⁾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치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 두 가지 가치관(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각 가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1=전혀 중요하지 않다.~5=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안전 지향’ 차원을 묻은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83$)과 ‘조화 지향’ 차원을 묻은 여섯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80$)을 사용하였다.

74) Valerie Braithwait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p. 401~414; Valerie Braithwaite, “The Value Orientations Underlying Liberalism-conservatism,” pp. 575~589.

(3) 우익권위주의

우익권위주의를 측정하는 화이트(White) 등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⁷⁵⁾ 해당 척도는 정치적 태도로서 우익권위주의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나타내는 차원으로 ‘전통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tradition)’와 ‘점진적 변화 추구(preference for gradual change)’를 전제하여 각 차원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묻는 총 열 개 문항(“과거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전략들은 대부분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다.”, “빠르거나 급진적인 변화는 비합리적이며 위험하다.”; 응답 범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매우 동의한다.)으로 구성된다. 분석에는 열 개 문항의 평균(Cronbach’s $\alpha = .75$)을 사용하였다.

(4) 사회적 지배경향성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호(Ho) 등의 척도에서 여덟 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응답 범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매우 동의한다.)하였다.⁷⁶⁾ 분석에는 여덟 개 문항의 평균(Cronbach’s $\alpha = .73$)을 사용하였다.

(5) 진보-보수 정치성향

예비조사와 동일한 네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⁷⁷⁾ 분석에는 숫자가

75) Katherine R. White et al., “The Resistance to Change-beliefs Scale: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servative Ide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6 (2020), pp. 20~35.

76) Arnold K. Ho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pp. 1003~1028.

77) Linda J. Skitka et al.,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roblems,” pp. 470~487.

클수록 보수적인 것으로 점수화(1점~7점)하여 네 개 문항을 평균(Cronbach's $\alpha = .89$)하여 사용하였다.

(6) 민족정체성

예비조사와 동일한 네 개 문항⁷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응답 범위: 1=전혀 느끼지 않는다. ~7=매우 강하게 느낀다.). 분석에는 네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7$)을 사용하였다.

(7) 남북한 공동내집단인식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 인식되는지를 묻는 세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⁹⁾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하였으며, 분석 시 세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0$)을 사용하였다.

(8) 단일 문항 통일태도

선행연구에서 통일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묻기 위해 사용했던 단일문항(“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전적으로 반대~7=전적으로 찬성)을 사용하였다.

78) Michael A. Hogg and Sarah C. Hains,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pp. 295~309.

79) John F. Dovidio,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p. 3~20.

다. 본조사B: 준거 요인

(1)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조사도구

본조사A와 동일한 11개 문항을 사용하여 물었다. 해당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Oblimin 사각회전 실시) 결과 본조사A와 동일하게 기초하는 2요인(1요인 설명량 47.24%, 2요인 설명량 17.52%; 요인 순서대로 ‘단일 국가 구성 지지’와 ‘단일 국가에 대한 반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1요인 고정 시 요인 설명량이 47.24%로 충분하여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11개 문항을 평균(단일 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역점수화하여 계산; Cronbach's $\alpha = .82$)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대북정책 지지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 영역(‘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정책’,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대북정책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세 개 정책씩 총 15개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 수준(1점=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점=매우 지지한다.)을 물었다. 각 정책은 지원, 사회/문화/경제적 교류 및 협력 증진, 군사행동 축소, 통일 담론 형성(예: “북한 내 민간인들을 위한 식량 및 식수 지원”,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 및 적대행위 중지”) 방향의 정책들로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각 다섯 개 영역에서의 응답을 평균(Cronbach's $\alpha = .93, .84, .90, .85, .95$, 순서대로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정책’, ‘통일에 대한 이해 증진’차원의 문항 간 신뢰도)하여 사용하였다.

(3)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우호적이고 구체적 수준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과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이나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예: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 무력충돌을 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에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정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점=매우 동의한다.)를 묻는 여섯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여섯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85$)을 사용하였다.

(4) 통일지향 개인행동

통일에 관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행동(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채널을 구독한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는 교육/문화행사(예: 강연, 전시, 세미나 등)에 참석한다.”)을 일곱 개 문항을 사용하여 물었다. 응답자들은 각 행동을 할 의도를 1점(전혀 없다.)부터 7점(매우 강하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일곱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6$)을 사용하였다.

(5) 통일지향 집단행동

통일지향 개인행동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위한 집단행동(“북한과의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에 참여할 의향(1점=전혀 없다.~7점=매우 강하다.)을 여섯 개 문항을 사용하여 물었다. 분석에는 여섯 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6$)을 사용하였다.

(6) 단일 문항 통일태도

본조사A와 동일한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물었다.

라. 인구통계 변수

본조사A, B 공통적으로 설문조사 마지막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변수(출신 지역, 최종학력, 직업, 종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 평균 가족 소득, 지지 정당, 북한이탈주민 접촉 여부)들을 측정하였다(개별 문항은 〈부록 4〉, 〈부록 5〉 참조).

3. 본조사A 결과($N=1,500$)

가. ATU-K 척도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ATU-K 척도 19문항(인지 9문항, 정서 10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A의 참가자들을 무선적으로 반분하여 하위 표본(각 $n=750$)에 대해 각각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조사A에서 ATU-K 문항들의 기술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2〉, 〈표 V-3〉과 같다.

〈표 V-2〉 ATU-K 척도 인지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A)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12.60	7.20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15.04	6.99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13.83	6.73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15.89	7.08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3.67	7.13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4.17	6.97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17.14	7.27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14.72	7.15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15.77	6.80

통일에 대한 평가값(기대×가치) 범위: 1~25(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평가). $N=1,500$.

〈표 V-3〉 ATU-K 척도 정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A)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설레다.	3.07	1.13
즐겁다.	2.93	1.10
반갑다.	3.27	1.13
기쁘다.	3.23	1.15
행복하다.	2.94	1.11
거부감이 든다.	2.71	1.06
화가 난다.	2.17	1.03
불안하다.	2.93	1.17
무섭다.	2.63	1.14
역겹다.	1.91	1.03

통일에 대한 정서 범위: 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5(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N=1,500$.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에는 Oblimin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9개 문항이 세 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1요인(요인 설명량 56.33%; 9개 문항 Cronbach's $\alpha = .93$,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 .84, .90, .88$, 순서

대로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 요인)은 ‘통일에 대한 평가’, 2요인(요인 설명량 10.12%, Cronbach’s $\alpha = .90$)은 ‘부정 정서’, 3요인(요인 설명량 6.88%, Cronbach’s $\alpha = .96$)은 ‘긍정 정서’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문항 간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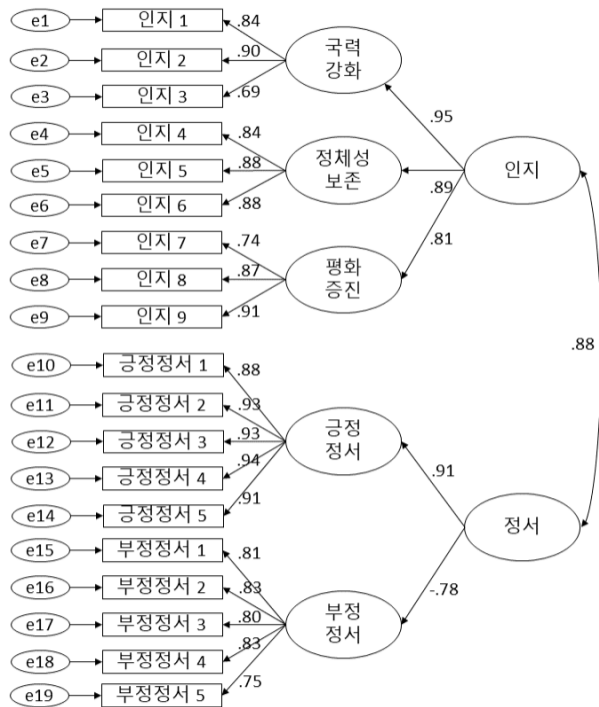
<표 V-4> ATU-K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A 하위표본, $n=750$)

문항	요인 및 요인부하량		
	평가 (인지)	부정 정서	긍정 정서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0.87	—	—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0.85	—	—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시킨다.	0.85	—	—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0.75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0.75	—	—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0.70	—	—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0.67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0.67	—	—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0.50	—	—
무섭다.	—	0.90	—
불안하다.	—	0.85	—
화가 난다.	—	0.82	—
거부감이 든다.	—	0.77	—
역겹다.	—	0.76	—
즐겁다.	—	—	0.93
설레다.	—	—	0.92
행복하다.	—	—	0.90
기쁘다.	—	—	0.84
반갑다.	—	—	0.81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3 이하인 경우는 생략(-);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연구모형을 토대로 19개 문항이 위계적 2층 요인구조(1층: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세 요인과,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두 요인, 총 다섯 개 요인; 2층: 인지와 정서의 두 개 요인)를 지니는지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2층 연구모형이 좋은 모형합치도를 보였다, $\chi^2(146)=790.21$ ($p < .001$), TLI = .942, CFI = .951, RMSEA(90% CI) = .077(.072, .082), SRMR = .038. 본조사A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ATU-K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A 하위표본, $n=750$)



요인부하량 및 요인 간 상관은 표준화된 값으로 표시.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를 통해 통일에 대한 태도를 인지(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서(긍정/부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렴/변별타당도와 준거타당도 분석 시, 19개 개별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Fisher's z-score)를 평균하여(부정 정서의 경우 역점수화하여 사용) '통일에 대한 태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나. 수렴/변별타당도 검증

본조사A에서 측정된 수렴/변별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 분석 결과는 <표 V-5>와 같다.

<표 V-5>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n=1,500$)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4**	.68**	.45**	.22**	-.05	-.35**	-.35**	.44**	.63**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1**	.25**	.10**	.04	-.21**	-.14**	.41**	.49**
3. 단일문화통일태도			—	.27**	.10**	.01	-.23**	.20**	.37**	.55**
4. 정치적가치:안전				—	.59**	.05*	-.47**	-.31**	.31**	.40**
5. 정치적가치:조화					—	.25**	-.20**	-.05	.27**	.24**
6. 우익권위주의						—	.21**	.34**	.23**	.12**
7. 사회적지배경향성							—	.32**	-.19**	-.30**
8. 진보-보수성향								—	-.05*	-.20**
9. 민족정체성									—	.57**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00 (0.75)	2.81 (0.68)	4.44 (1.66)	4.00 (0.57)	4.23 (0.63)	3.21 (0.48)	2.49 (0.53)	3.77 (1.01)	4.48 (1.26)	4.60 (1.26)

* $p < .05$, ** $p < .01$.

먼저 ATU-K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그리고 단일문항 통일태도 간 상관계수가 각각 .64, .68로 나타났다. 이는 ATU-K 척도를 통해 측정된 값이 기존 척도들로 측정된 값과 수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ATU-K 통일태도와 변별 요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개인이 지닌 정치적 가치(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 정치적 성향(사회적 지배경향성, 진보-보수 정치성향), 민족정체성, 공동내집단인식의 요인들과 ATU-K 척도 점수가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상관계수 절대값 범위 .22~.63)을 보였다. 상관의 방향성은 예비조사와 일관되게 정치적 보수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배경향성과 보수적 정치성향은 통일태도와 부적 상관을, 안전 지향과 조화 지향의 정치적 가치와 민족정체성, 공동내집단인식은 통일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조사에서 개정된 척도⁸⁰⁾를 통해 측정한 우익권위주의는 ATU-K 척도를 비롯하여 다른 척도(통일연구원 및 단일문항 척도)를 통해 측정된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익권위주의를 측정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척도⁸¹⁾를 사용했던 예비조사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익권위주의와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가 서구이론을 통해서 예측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 ATU-K 척도와 기존 척도 차이 검증

ATU-K 척도를 통해 측정된 통일태도와 유관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수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또는 단일문항 통일태도와 유관 변수들과의 상관계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공

80) Katherine R. White et al., "The Resistance to Change-beliefs Scale: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servative Ideology," pp. 20~35.

81) Ingrid Zakrisson,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p. 863~872.

통변수와 서로 다른 두 변수와의 상관관계수 차이 검증).⁸²⁾ 그 결과 ATU-K 통일태도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나 단일문항 통일태도보다 유관변수들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 <표 V-7> 참조). 이는 ATU-K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통일에 대한 태도가 유관변수를 통해 설명되거나 예측하는 변량이 큼(즉, 더욱 민감하게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V-6〉 ATU-K 통일태도,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유관변수들과의 상관값 비교

	정치적 가치: 조화	정치적 가치: 안전	우익 권위 주의	사회적 지배 경향성	진보- 보수 성향	민족 정체성	공동 내집단 인식
ATU-K	.45**	.22**	-.05	-.35**	-.35**	.44**	.63**
통일연구원통일태도	.25**	.10**	.04	-.21**	-.14**	.41**	.49**
z-score	9.80**	5.63**	-3.72**	-6.70**	-9.96**	1.64	7.73**

** $p < .01$; $N=1,500$.

〈표 V-7〉 ATU-K 통일태도, 단일 문항 통일태도와 유관변수들과의 상관값 비교

	정치적 가치: 조화	정치적 가치: 안전	우익 권위 주의	사회적 지배 경향성	진보- 보수 성향	민족 정체성	공동 내집단 인식
ATU-K	.45**	.22**	-.05	-.35**	-.35**	.44**	.63**
단일문항통일태도	.27**	.10**	.01	-.23**	.20**	.37**	.55**
z-score	9.30**	5.75**	-2.85*	-6.12**	-7.51**	4.08**	5.06**

* $p < .05$, ** $p < .01$; $N=1,500$.

82) Ihno A. Lee and Kristopher J. Preacher, "Calculation for the Test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Correlations with One Variable in Common (computer software)," September, 2013, <<http://quantpsy.org/corrttest/corrttest2.htm>> (Accessed October 1, 2020).

라. 하위 표본(성별/연령/소득수준)에서의 수렴/변별타당도 검증

ATU-K 척도의 수렴/변별타당도 분석 결과가 응답자들의 성별(남/여), 연령대(20대, 30~40대, 50~60대), 소득수준(저/중/고)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표본에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표본에 따른 수렴/변별타당도 검증 결과는 전체 응답자($N=1,500$)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표 V-8~15〉참조). 다만 전체 표본에서는 세 가지 척도(ATU-K, 통일연구원, 단일 문항)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우익권위주의 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하위표본 중 여성 응답자들과 50~69세 응답자, 고소득 응답자들에게서는 ATU-K 통일태도 또는 단일문항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19~29세 응답자들과 중간소득 응답자들에게서는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V-8〉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남성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6**	.70**	.45**	.21**	-.04	-.36**	-.41**	.53**	.66**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4**	.29**	.13**	.03	-.27**	-.20**	.48**	.53**
3. 단일문항통일태도			—	.31**	.14**	.03	-.26**	.24**	.44**	.55**
4. 정치적가치:안전				—	.51**	.05	-.46**	-.33**	.33**	.43**
5. 정치적가치:조화					—	.25**	-.16**	-.02	.25**	.27**
6. 우익권위주의						—	.19**	.34**	.18**	.13**
7. 사회적지배경향성							—	.32**	-.22**	-.35**
8. 진보-보수성향								—	-.12**	-.23**
9. 민족정체성									—	.66**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15 (0.73)	2.95 (0.71)	4.74 (1.73)	3.98 (0.56)	4.22 (0.62)	3.24 (0.48)	2.50 (0.56)	3.80 (1.06)	4.46 (1.35)	4.73 (1.33)

* $p < .05$, ** $p < .01$; $n=730$.

〈표 V-9〉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여성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58**	.63**	.47**	.25**	-.07*	-.37**	-.32**	.38**	.58**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65**	.23**	.09*	.02	-.17**	-.08**	.35**	.44**
3. 단일문항통일태도			—	.26**	.09*	-.02	-.23**	.17**	.29**	.53**
4. 정치적가치:안전				—	.65**	.06	-.21**	-.30**	.29**	.37**
5. 정치적가치:조화					—	.26**	-.47**	-.07*	.29**	.24**
6. 우익권위주의						—	.25**	.34**	.28**	.10**
7. 사회적지배경향성							—	.32**	-.14**	-.25**
8. 진보-보수성향								—	-.03	-.17**
9. 민족정체성									—	.48**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14 (0.74)	2.68 (0.61)	4.15 (1.54)	4.01 (0.57)	4.25 (0.64)	3.19 (0.49)	2.49 (0.51)	3.73 (0.95)	4.50 (1.18)	4.48 (1.18)

* $p < .05$, ** $p < .01$; $n=770$.

〈표 V-10〉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19~29세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3**	.68**	.36**	.12	.03	-.27**	-.28**	.50**	.68**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66**	.21**	.06	.13*	-.17**	-.04	.44**	.47**
3. 단일문항통일태도			—	.22**	.04	.02	-.18**	.18**	.38**	.54**
4. 정치적가치:안전				—	.56**	.08	-.42**	-.30**	.24**	.32**
5. 정치적가치:조화					—	.27**	.02	.08	.09	.16**
6. 우익권위주의						—	.31**	.34**	.23**	.07
7. 사회적지배경향성							—	.35**	-.10	-.22**
8. 진보-보수성향								—	-.08	-.17**
9. 민족정체성									—	.51**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33 (0.67)	2.57 (0.61)	3.82 (1.60)	3.84 (0.62)	4.00 (0.70)	3.10 (0.50)	2.59 (0.54)	3.77 (1.00)	3.77 (1.34)	4.04 (1.32)

* $p < .05$, ** $p < .01$; $n=260$.

〈표 V-11〉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30~49세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5**	.66**	.38**	.17**	-.05	-.36**	-.35**	.44**	.60**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3**	.18**	.04	.02	-.20**	-.14**	.42**	.51**
3. 단일문화통일태도			—	.17**	.04	.05	-.21**	.16**	.35**	.52**
4. 정치적가치:안전				—	.58**	.08	-.48**	-.33**	.26**	.33**
5. 정치적가치:조화					—	.14**	-.22**	-.13**	.13**	.13**
6. 우익권위주의						—	.21**	.30**	.18**	.13**
7. 사회적지배경향성							—	.40**	-.17**	-.29**
8. 진보-보수성향								—	-.08*	-.20**
9. 민족정체성									—	.59**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01 (0.73)	2.79 (0.67)	4.45 (1.61)	3.97 (0.55)	4.16 (0.58)	3.15 (0.45)	2.54 (0.52)	3.68 (0.94)	4.28 (1.17)	4.50 (1.22)

* $p < .05$, ** $p < .01$; $n=585$.

〈표 V-12〉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50~69세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0**	.67**	.51**	.21**	-.16**	-.35**	-.41**	.34**	.58**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69**	.28**	.08*	-.05	-.21**	-.18**	.32**	.44**
3. 단일문화통일태도			—	.34**	.11**	-.08*	-.24**	.26**	.31**	.53**
4. 정치적가치:안전				—	.58**	-.03	-.45**	-.34**	.32**	.44**
5. 정치적가치:조화					—	.25**	-.23**	-.04	.33**	.26**
6. 우익권위주의						—	.24**	.36**	.16**	.03
7. 사회적지배경향성							—	.27**	-.16**	-.29**
8. 진보-보수성향								—	-.07	-.25**
9. 민족정체성									—	.48**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14 (0.75)	2.92 (0.68)	4.67 (1.67)	4.08 (0.54)	4.39 (0.61)	3.31 (0.49)	2.41 (0.53)	3.84 (1.07)	4.95 (1.12)	4.91 (1.18)

* $p < .05$, ** $p < .01$; $n=655$.

〈표 V-13〉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저소득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8**	.73**	.48**	.28**	-.01	-.37**	-.35**	.50**	.68**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6**	.30**	.18**	.04	-.21**	-.20**	.52**	.55**
3. 단일문화통일태도			—	.36**	.16**	.04	-.23**	-.22**	.45**	.56**
4. 정치적가치:안전				—	.59**	.07	-.47**	-.28**	.38**	.43**
5. 정치적가치:조화					—	.32**	-.23**	-.04	.39**	.25**
6. 우익권위주의						—	.14**	.34**	.27**	.15**
7. 사회적지배경향성							—	.26**	-.22**	-.37**
8. 진보-보수성향								—	-.03	-.18**
9. 민족정체성									—	.63**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3 (0.79)	2.87 (0.69)	4.44 (1.73)	4.06 (0.59)	4.28 (0.62)	3.24 (0.48)	2.45 (0.53)	3.85 (0.98)	4.55 (1.34)	4.52 (1.32)

* $p < .05$, ** $p < .01$; $n=265$.

〈표 V-14〉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중간소득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2**	.64**	.42**	.19**	-.02	-.30**	-.28**	.40**	.59**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1**	.24**	.06	.10*	-.17**	-.09*	.39**	.48**
3. 단일문화통일태도			—	.22**	.06	.04	-.18**	.16**	.31**	.50**
4. 정치적가치:안전				—	.55**	.02	-.46**	-.30**	.23**	.36**
5. 정치적가치:조화					—	.23**	-.19**	.01	.24**	.23**
6. 우익권위주의						—	.20**	.37**	.32**	.18**
7. 사회적지배경향성							—	.31**	-.12**	-.25**
8. 진보-보수성향								—	.03	-.11**
9. 민족정체성									—	.54**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02 (0.74)	2.81 (0.67)	4.46 (1.62)	4.01 (0.56)	4.23 (0.61)	3.20 (0.48)	2.47 (0.53)	3.73 (1.01)	4.40 (1.23)	4.61 (1.23)

* $p < .05$, ** $p < .01$; $n=600$.

〈표 V-15〉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A, 고소득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ATU-K	—	.64**	.69**	.47**	.24**	-.09*	-.41**	-.41**	.46**	.64**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69**	.23**	.10*	-.03	-.25**	-.16**	.39**	.49**
3. 단일문화통일태도			—	.28**	.12**	-.03	-.28**	.23**	.38**	.58**
4. 정치적가치:안전				—	.62**	.07	-.46**	-.35**	.36**	.43**
5. 정치적가치:조화					—	.24**	-.20**	-.11**	.24**	.25**
6. 우익권위주의						—	.25**	.32**	.12**	.05
7. 사회적지배경향성							—	.36**	-.24**	-.33**
8. 진보-보수성향								—	-.14**	-.28**
9. 민족정체성									—	.57**
10. 공동내집단인식										—
평균 (표준편차)	0.03 (0.74)	2.78 (0.67)	4.42 (1.67)	3.96 (0.56)	4.23 (0.66)	3.22 (0.49)	2.54 (0.53)	3.77 (1.02)	4.53 (1.26)	4.63 (1.26)

* $p < .05$, ** $p < .01$; $n=635$.

4. 본조사B 결과($N=1,500$)

가. ATU-K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조사B에서 ATU-K 척도 문항들의 기술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V-16〉, 〈표 V-17〉과 같다.

〈표 V-16〉 ATU-K 척도 인지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B)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12.44	7.17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14.88	6.80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13.96	6.75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15.65	6.86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3.75	7.00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4.09	6.90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17.07	7.10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14.69	7.06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15.53	6.75

통일에 대한 평가값(기대×가치) 범위: 1~25 (숫자가 클수록 긍정적 평가). $N=1,500$.

〈표 V-17〉 ATU-K 척도 정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본조사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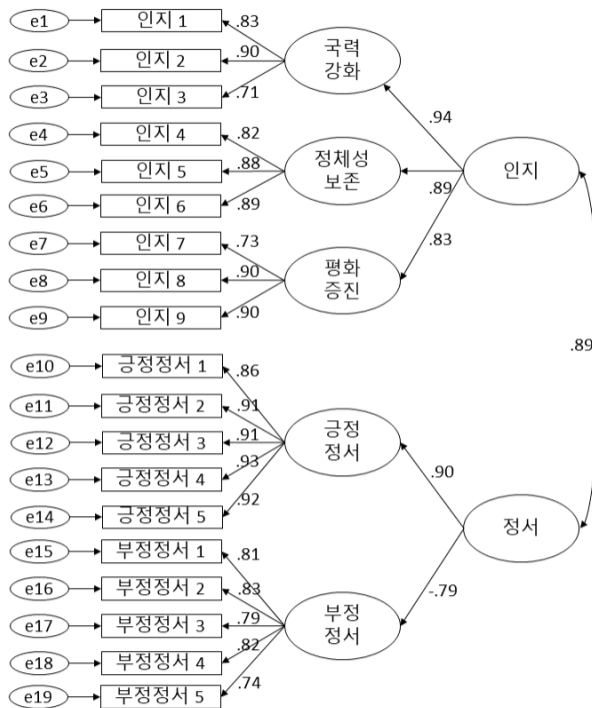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설레다.	3.04	1.14
즐겁다.	2.89	1.10
반갑다.	3.24	1.16
기쁘다.	3.21	1.18
행복하다.	2.93	1.11
거부감이 든다.	2.78	1.06
화가 난다.	2.18	1.03
불안하다.	3.01	1.18
무섭다.	2.66	1.15
역겹다.	1.93	1.05

통일에 대한 정서 범위: 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5(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N=1,500$.

본조사A의 표본에서 검증된 ATU-K 척도의 위계적 요인구조(1층: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세 요인과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두 요인, 총 다섯 개 요인; 2층: 인지와 정서의 두 개 요인)가 적합한지를 반복 검증하기 위하여 본조사B의 응답에

서 확인적 요인분석(최대우도법 사용)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조사A에서의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ATU-K 척도의 2층 모형이 좋은 모형합치도를 보였다, $\chi^2(146)=1388.51$ ($p < .001$), TLI = .943, CFI = .952, RMSEA(90% CI) = .075(.072, .079), SRMR = .033. 본조사B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ATU-K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본조사B)



요인부하량 및 요인 간 상관은 표준화된 값으로 표시, $N=1,500$.

나. 준거타당도 검증

본조사B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는 <표 V-18>과 같다.

<표 V-18>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4**	.69**	.63**	.64**	.64**	.52**	.73**	-.36**	.54**	.46**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3**	.43**	.44**	.40**	.28**	.50**	-.23**	.50**	.41**
3. 단일문화통일태도			—	.53**	.54**	.53**	.42**	.63**	-.35**	.50**	.42**
4. 정책지지:지원				—	.70**	.69**	.60**	.69**	-.43**	.49**	.45**
5. 정책지지:교류					—	.70**	.64**	.74**	-.44**	.48**	.42**
6. 정책지지:경험						—	.71**	.76**	-.51**	.47**	.42**
7. 정책지지:군사							—	.69**	-.52**	.39**	.38**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4**	.49**	.41**
9. 강경정책태도									—	-.22**	-.26**
10. 통일행동:개인										—	.78**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00 (0.75)	2.81 (0.66)	4.45 (1.71)	4.56 (1.48)	4.84 (1.35)	4.64 (1.61)	4.43 (1.53)	4.96 (1.51)	4.20 (1.23)	2.96 (1.35)	2.41 (1.35)

** $p < .01$, $N=1,500$.

(1)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

본조사B에서 측정된 준거변수들에 대한 ATU-K 척도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인구통계 변수들(성별, 연령,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ATU-K 통일태도의 다섯 개 하위 차원(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3요인,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2요인) 점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시 예측변수 간의 상관을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ed)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2단계에서 투입된 통일태도의 준거변수에

대한 예측효과의 설명량과 유의도를 해석하였으며, 탐색적으로 준거변수에 대한 각 하위 차원의 예측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해석하였다. 전체 분석결과는 <표 V-19~26>과 같다.

준거타당도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뒤에도 ATU-K 척도를 통해 측정된 통일태도가 모든 준거 요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태도의 증분설명량 범위: 19%~51%).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통일태도가 실제로 통일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및 구성원들의 행동의도를 예측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ATU-K 척도의 하위 차원(인지, 긍정/부정 정서)이 각각 준거 요인을 예측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 담론 형성(교육)의 정책 차원에서 일관되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이에 더해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정책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이, 경제협력과 통일 담론 형성 정책에서는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의 모든 인지 차원이, 군사행동 축소 정책에서는 평화 증진 차원이 유의미한 예측효과를 보였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인지 차원(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예측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정서 차원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및 집단으로서의 통일지향 행동에 대해서는 ATU-K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 차원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예측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지향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높은 긍정 정서가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태도

와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행동유도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활성화가 높은 긍정 정서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V-19〉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7	-2.75**	.05**
	연령	0.21	8.35**	
	소득수준	0.01	0.40	
2단계	성별	0.05	2.45*	.41**
	연령	0.08	3.68**	
	소득수준	0.00	-0.25	
	ATU-K: 국력강화	0.06	1.78	
	ATU-K: 정체성보존	0.08	2.42*	
	ATU-K: 평화증진	0.09	2.81**	
	ATU-K: 긍정정서	0.32	10.10**	
	ATU-K: 부정정서	-0.18	-6.5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7**				

* $p < .05$, ** $p < .01$; $N=1,500$.

〈표 V-20〉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26	.01**
	연령	0.10	4.04**	
	소득수준	-0.02	-0.76	
2단계	성별	0.09	4.42**	.43**
	연령	-0.04	-1.78	
	소득수준	-0.04	-1.88	
	ATU-K: 국력강화	0.02	0.71	
	ATU-K: 정체성보존	0.20	6.06**	
	ATU-K: 평화증진	0.08	2.59**	
	ATU-K: 긍정정서	0.35	11.18**	
	ATU-K: 부정정서	-0.13	-4.7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2**				

* $p < .05$, ** $p < .01$; $N=1,500$.

〈표 V-21〉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35	.01**
	연령	0.09	3.50**	
	소득수준	0.00	-0.04	
2단계	성별	0.09	4.40**	.42**
	연령	-0.05	-2.38*	
	소득수준	-0.02	-0.89	
	ATU-K: 국력강화	0.08	2.27*	
	ATU-K: 정체성보존	0.15	4.56**	
	ATU-K: 평화증진	0.08	2.50*	
	ATU-K: 긍정정서	0.30	9.43**	
	ATU-K: 부정정서	-0.18	-6.5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1,500$.

〈표 V-22〉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95	.03**
	연령	0.17	6.84**	
	소득수준	0.00	-0.02	
2단계	성별	0.15	6.70**	.30**
	연령	0.06	2.63**	
	소득수준	-0.01	-0.57	
	ATU-K: 국력강화	0.03	0.68	
	ATU-K: 정체성보존	0.06	1.59	
	ATU-K: 평화증진	0.14	4.11**	
	ATU-K: 긍정정서	0.22	6.32**	
	ATU-K: 부정정서	-0.20	-6.5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7**				

* $p < .05$, ** $p < .01$; $N=1,500$.

〈표 V-23〉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97*	.03**
	연령	0.17	6.62**	
	소득수준	0.00	-0.13	
2단계	성별	0.09	4.74**	.54**
	연령	0.02	0.87	
	소득수준	-0.02	-1.21	
	ATU-K: 국력강화	0.09	3.06**	
	ATU-K: 정체성보존	0.16	5.45**	
	ATU-K: 평화증진	0.10	3.60**	
	ATU-K: 긍정정서	0.31	10.74**	
	ATU-K: 부정정서	-0.21	-8.6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1**				

* $p < .05$, ** $p < .01$; $N=1,500$.

〈표 V-24〉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8	-3.16**	.01**
	연령	0.01	0.45	
	소득수준	-0.01	-0.29	
2단계	성별	-0.17	-7.10**	.20**
	연령	0.09	3.85**	
	소득수준	-0.01	-0.22	
	ATU-K: 국력강화	0.05	1.22	
	ATU-K: 정체성보존	-0.05	-1.39	
	ATU-K: 평화증진	0.00	0.10	
	ATU-K: 긍정정서	-0.15	-3.90**	
	ATU-K: 부정정서	0.34	10.6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9**				

* $p < .05$, ** $p < .01$; $N=1,500$.

〈표 V-25〉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5.22**	.06**
	연령	0.21	8.57**	
	소득수준	0.03	1.15	
2단계	성별	-0.03	-1.33	.35**
	연령	0.10	4.61**	
	소득수준	0.01	0.65	
	ATU-K: 국력강화	0.05	1.45	
	ATU-K: 정체성보존	0.15	4.27**	
	ATU-K: 평화증진	-0.06	-1.89	
	ATU-K: 긍정정서	0.44	13.01**	
	ATU-K: 부정정서	0.00	-0.1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8**				

* $p < .05$, ** $p < .01$; $N=1,500$.

〈표 V-26〉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9	-3.43**	.04**
	연령	0.18	7.24**	
	소득수준	0.04	1.48	
2단계	성별	0.00	0.11	.35**
	연령	0.08	3.42**	
	소득수준	0.03	1.12	
	ATU-K: 국력강화	0.01	0.30	
	ATU-K: 정체성보존	0.06	1.62	
	ATU-K: 평화증진	-0.01	-0.18	
	ATU-K: 긍정정서	0.41	11.31**	
	ATU-K: 부정정서	-0.02	-0.7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1**				

* $p < .05$, ** $p < .01$; $N=1,500$.

(2) 준거변수에 대한 ATU-K 척도와 기존 태도척도의 예측효과 비교

ATU-K 척도를 통해 측정된 통일태도와 기존 척도(통일연구원 척도, 단일문항 척도)들로 측정된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는 ATU-K 총점과 기존 통일연구원 척도 총점(또는 단일문항 척도 점수)을 투입하였다. ATU-K 총점과 통일연구원 통일태도(또는 단일문항 통일태도)를 회귀식에 투입할 때는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을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2단계에 투입된 척도들의 준거변수에 대한 예측효과와 유의도를 해석하고 예측효과와 크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준거변수들에 대한 ATU-K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V-27~34>와 같다. 결과를 요약하면, 정책 지지와 개인 및 집단 행동의도에서 일관되게 ATU-K 통일태도가 유의미한 예측효과를 보인 반면,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ATU-K 통일태도보다 예측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 비교 결과는 <표 V-35> 참조). 이는 ATU-K를 통해 측정된 태도가 기존 통일연구원 척도를 통해 측정된 태도보다 준거 요인들을 잘 예측함을 의미한다.

〈표 V-27〉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7	-2.75**	.05**
	연령	0.21	8.35**	
	소득수준	0.01	0.40	
2단계	성별	0.05	2.26*	.41**
	연령	0.08	3.99**	
	소득수준	-0.01	-0.26	
	ATU-K	0.59	22.73**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05	1.8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6**				

* $p < .05$, ** $p < .01$; $N=1,500$.

〈표 V-28〉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26	.01**
	연령	0.10	4.04**	
	소득수준	-0.02	-0.76	
2단계	성별	0.09	4.58**	.42**
	연령	-0.03	-1.73	
	소득수준	-0.04	-1.82	
	ATU-K	0.63	24.45**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06	2.3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1,500$.

〈표 V-29〉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35	.01**
	연령	0.09	3.50**	
	소득수준	0.00	-0.04	
2단계	성별	0.08	4.19**	.42**
	연령	-0.05	-2.26*	
	소득수준	-0.02	-0.92	
	ATU-K	0.66	25.65**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00	0.1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1,500$.

〈표 V-30〉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95	.03**
	연령	0.17	6.84**	
	소득수준	0.00	-0.02	
2단계	성별	0.14	6.31**	.30**
	연령	0.07	3.07**	
	소득수준	-0.02	-0.71	
	ATU-K	0.58	20.39**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07	-2.4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7**

* $p < .05$, ** $p < .01$; $N=1,500$.

〈표 V-31〉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97*	.03**
	연령	0.17	6.62**	
	소득수준	0.00	-0.13	
2단계	성별	0.09	4.85**	.54**
	연령	0.01	0.82	
	소득수준	-0.02	-1.20	
	ATU-K	0.70	30.12**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07	2.9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1**				

* $p < .05$, ** $p < .01$; $N=1,500$.

〈표 V-32〉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8	-3.16**	.01**
	연령	0.01	0.45	
	소득수준	-0.01	-0.29	
2단계	성별	-0.16	-6.50**	.16**
	연령	0.10	3.98**	
	소득수준	0.00	0.11	
	ATU-K	-0.39	-12.59**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03	-1.0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6**				

* $p < .05$, ** $p < .01$; $N=1,500$.

〈표 V-33〉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5.22**	.06**
	연령	0.21	8.57**	
	소득수준	0.03	1.15	
2단계	성별	-0.02	-0.84	.34**
	연령	0.10	4.55**	
	소득수준	0.02	0.93	
	ATU-K	0.36	12.97**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25	9.2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8**				

* $p < .05$, ** $p < .01$; $N=1,500$.

〈표 V-34〉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비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9	-3.43**	.04**
	연령	0.18	7.24**	
	소득수준	0.04	1.48	
2단계	성별	0.01	0.30	.24**
	연령	0.09	3.69**	
	소득수준	0.03	1.28	
	ATU-K	0.32	10.84**	
	통일태도(통일연구원)	0.19	6.3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0**				

* $p < .05$, ** $p < .01$; $N=1,500$.

〈표 V-35〉 ATU-K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예측효과 비교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β) 95% 신뢰구간						회귀계수 간 차이 검증 유의수준
	ATU-K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최솟값	점추정값	최댓값	최솟값	점추정값	최댓값	
1. 정책지지:지원	0.54	0.59	0.65	0.00	0.05	0.11	$p < .05$
2. 정책지지:교류	0.58	0.63	0.68	0.00	0.06	0.12	"
3. 정책지지:경험	0.61	0.66	0.71	-0.06	0.00	0.06	"
4. 정책지지:군사	0.52	0.58	0.64	-0.14	-0.07	0.00	"
5. 정책지지:통일교육	0.64	0.70	0.75	0.01	0.07	0.12	"
6. 강경정책태도	-0.46	-0.39	-0.32	-0.11	-0.03	0.04	"
7. 통일행동:개인	0.29	0.36	0.41	0.20	0.25	0.32	"
8. 통일행동:집단	0.27	0.32	0.38	0.12	0.19	0.25	"

표준화된 회귀계수 비교는 Cumming (2009) 방식을 따름⁸³⁾; 신뢰구간 bootstrapping 1,000회 재추출.

다음으로 준거변수들에 대한 ATU-K 통일태도와 단일문항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V-36~43〉과 같다. 분석 결과는 앞에서 ATU-K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비교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정책 지지와 개인 및 집단 행동의도에 대해 일관되게 ATU-K 통일태도가 유의미한 예측효과를 보인 반면,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된 태도의 예측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ATU-K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는 ATU-K 통일태도와 단일문항 통일태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 비교 결과는 〈표 V-44〉 참조). 이는 ATU-K 통일태도가 기존 단일문항 통일태도보다 준거 요인들을 잘 예측함을 의미한다.

83) Geoff Cumming, "Inference by Eye: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Statistics in Medicine*, vol. 28 (2009), pp. 205~220.

〈표 V-36〉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7	-2.75**	.05**
	연령	0.21	8.35**	
	소득수준	0.01	0.40	
2단계	성별	0.05	2.29*	.42**
	연령	0.08	3.93**	
	소득수준	0.00	-0.10	
	ATU-K	0.50	18.32**	
	통일태도(단일문항)	0.18	6.4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7**				

* $p < .05$, ** $p < .01$; $N=1,500$.

〈표 V-37〉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26	.01**
	연령	0.10	4.04**	
	소득수준	-0.02	-0.76	
2단계	성별	0.09	4.61**	.44**
	연령	-0.04	-1.86	
	소득수준	-0.03	-1.68	
	ATU-K	0.54	19.92**	
	통일태도(단일문항)	0.19	7.0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3**				

* $p < .05$, ** $p < .01$; $N=1,500$.

〈표 V-38〉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35	.01**
	연령	0.09	3.50**	
	소득수준	0.00	-0.04	
2단계	성별	0.09	4.45**	.43**
	연령	-0.05	-2.52*	
	소득수준	-0.01	-0.74	
	ATU-K	0.55	20.12**	
	통일태도(단일문항)	0.17	6.4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3**				

* $p < .05$, ** $p < .01$; $N=1,500$.

〈표 V-39〉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95	.03**
	연령	0.17	6.84**	
	소득수준	0.00	-0.02	
2단계	성별	0.15	6.73**	.30**
	연령	0.06	2.80**	
	소득수준	-0.01	-0.55	
	ATU-K	0.46	15.33**	
	통일태도(단일문항)	0.11	3.6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7**				

* $p < .05$, ** $p < .01$; $N=1,500$.

〈표 V-40〉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97*	.03**
	연령	0.17	6.62**	
	소득수준	0.00	-0.13	
2단계	성별	0.09	5.01**	.56**
	연령	0.01	0.67	
	소득수준	-0.02	-0.98	
	ATU-K	0.57	23.91**	
	통일태도(단일문항)	0.25	10.4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3**

* $p < .05$, ** $p < .01$; $N=1,500$.

〈표 V-41〉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8	-3.16**	.01**
	연령	0.01	0.45	
	소득수준	-0.01	-0.29	
2단계	성별	-0.16	-6.69**	.18**
	연령	0.10	4.20**	
	소득수준	0.00	-0.06	
	ATU-K	-0.27	-8.31**	
	통일태도(단일문항)	-0.20	-6.3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8**

* $p < .05$, ** $p < .01$; $N=1,500$.

〈표 V-42〉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5.22**	.06**
	연령	0.21	8.57**	
	소득수준	0.03	1.15	
2단계	성별	-0.03	-1.59	.33**
	연령	0.10	4.81**	
	소득수준	0.02	0.99	
	ATU-K	0.35	11.95**	
	통일태도(단일문항)	0.23	8.0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7**				

* $p < .05$, ** $p < .01$; $N=1,500$.

〈표 V-43〉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단일문항 통일태도와 비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9	-3.43**	.04**
	연령	0.18	7.24**	
	소득수준	0.04	1.48	
2단계	성별	0.00	-0.20	.24**
	연령	0.09	3.86**	
	소득수준	0.03	1.35	
	ATU-K	0.30	9.60**	
	통일태도(단일문항)	0.20	6.2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0**				

* $p < .05$, ** $p < .01$; $N=1,500$.

〈표 V-44〉 ATU-K 통일태도와 단일문항 통일태도 예측효과 비교

변수명	표준화 회귀계수 (β) 95% 신뢰구간						회귀계수 간 차이 검증 유의수준
	ATU-K			단일문항 통일태도			
	최솟값	점추정값	최댓값	최솟값	점추정값	최댓값	
1. 정책지지:자원	0.44	0.50	0.56	0.11	0.18	0.24	$p < .05$
2. 정책지지:교류	0.48	0.54	0.60	0.12	0.19	0.25	$p < .05$
3. 정책지지:경협	0.49	0.55	0.61	0.11	0.17	0.24	$p < .05$
4. 정책지지:군사	0.40	0.46	0.52	0.05	0.11	0.17	$p < .05$
5. 정책지지:통일교육	0.52	0.57	0.63	0.19	0.25	0.30	$p < .05$
6. 강경정책태도	-0.34	-0.27	-0.20	-0.28	-0.20	-0.14	$p > .05$
7. 통일행동:개인	0.29	0.35	0.42	0.17	0.23	0.30	$p < .05$
8. 통일행동:집단	0.24	0.30	0.36	0.13	0.20	0.26	$p < .05$

표준화된 회귀계수 비교는 Cumming (2009) 방식을 따름⁸⁴⁾; 신뢰구간 bootstrapping 1,000회 재추출.

다. 하위표본(성별/연령/소득수준)에서의 준거타당도 검증

본조사B에서 측정된 준거변수들에 대한 ATU-K 척도의 예측효과를 인구통계 변수에 따른 하위표본(성별: 남, 여; 연령: 19~29세, 30~40대, 50~60대; 소득수준: 저, 중, 고)별로 검증하였다. 각 하위표본에서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 중 두 가지)를, 2단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의 다섯 개 하위차원(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3요인,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2요인, 총 다섯 개 요인) 점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시 예측변수 간의 상관을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 값을 사용하였다.

84) Geoff Cumming, "Inference by Eye: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pp. 205~220.

(1) 남성 응답자($n=745$)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남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지지(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교육) 차원에서 일관되게 통일 태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통일태도의 평화 증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 정책과 경제협력 정책에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의, 군사 정책에는 평화 증진 차원의, 통일 교육에는 인지와 정서 모든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했으며, 통일지향 개인행동에는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 차원의, 통일지향 집단행동에서는 긍정 정서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표 V-45~53〉 참조).

〈표 V-45〉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남성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4**	.72**	.63**	.66**	.63**	.55**	.74**	-.43**	.53**	.42**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5**	.44**	.44**	.38**	.30**	.51**	-.28**	.51**	.40**
3. 단일문화통일태도			—	.56**	.56**	.55**	.46**	.67**	-.42**	.54**	.42**
4. 정책지지:지원				—	.73**	.70**	.65**	.72**	-.51**	.49**	.44**
5. 정책지지:교류					—	.80**	.67**	.75**	-.52**	.51**	.43**
6. 정책지지:경협						—	.74**	.78**	-.59**	.46**	.41**
7. 정책지지:군사							—	.70**	-.63**	.41**	.38**
8. 정책지지:통일교육								—	-.52**	.49**	.38**
9. 강경정책태도									—	-.31**	-.33**
10. 통일행동:개인										—	.77**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14 (0.76)	2.94 (0.69)	4.70 (1.76)	4.67 (1.54)	4.84 (1.42)	4.88 (1.69)	4.69 (1.70)	5.04 (1.59)	4.30 (1.36)	3.14 (1.35)	2.53 (1.40)

* $p < .05$, ** $p < .01$; $n=745$.

〈표 V-46〉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9	8.31**	.08**
	소득수준	0.01	0.21	
2단계	연령	0.10	3.39**	.42**
	소득수준	-0.01	-0.52	
	ATU-K: 국력강화	0.03	0.67	
	ATU-K: 정체성보존	0.06	1.22	
	ATU-K: 평화증진	0.09	2.17*	
	ATU-K: 긍정정서	0.35	7.76**	
	ATU-K: 부정정서	-0.18	-4.7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4**				

* $p < .05$, ** $p < .01$; $n=745$.

〈표 V-47〉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1	5.86**	.04**
	소득수준	-0.03	-0.75	
2단계	연령	0.01	0.28	.44**
	소득수준	-0.05	-1.89	
	ATU-K: 국력강화	0.01	0.32	
	ATU-K: 정체성보존	0.17	3.89**	
	ATU-K: 평화증진	0.11	2.53*	
	ATU-K: 긍정정서	0.36	8.23**	
	ATU-K: 부정정서	-0.11	-3.0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0**				

* $p < .05$, ** $p < .01$; $n=745$.

〈표 V-48〉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16	4.50**	.02**
	소득수준	-0.01	-0.32	
2단계	연령	-0.03	-1.03	.39**
	소득수준	-0.04	-1.25	
	ATU-K: 국력강화	0.05	1.03	
	ATU-K: 정체성보존	0.15	3.15**	
	ATU-K: 평화증진	0.09	2.18*	
	ATU-K: 긍정정서	0.29	6.27**	
	ATU-K: 부정정서	-0.17	-4.4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7**				

* $p < .05$, ** $p < .01$; $n=745$.

〈표 V-49〉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7	7.68**	.07**
	소득수준	0.00	-0.06	
2단계	연령	0.11	3.41**	.32**
	소득수준	-0.02	-0.65	
	ATU-K: 국력강화	-0.01	-0.10	
	ATU-K: 정체성보존	0.06	1.28	
	ATU-K: 평화증진	0.15	3.34**	
	ATU-K: 긍정정서	0.21	4.35**	
	ATU-K: 부정정서	-0.19	-4.6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5**				

* $p < .05$, ** $p < .01$; $n=745$.

〈표 V-50〉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5	7.10**	.06**
	소득수준	0.01	0.28	
2단계	연령	0.03	1.05	.56**
	소득수준	-0.02	-0.76	
	ATU-K: 국력강화	0.10	2.48*	
	ATU-K: 정체성보존	0.12	3.05**	
	ATU-K: 평화증진	0.10	2.60**	
	ATU-K: 긍정정서	0.34	8.76**	
	ATU-K: 부정정서	-0.20	-6.0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0**				

* $p < .05$, ** $p < .01$; $n=745$.

〈표 V-51〉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11	-3.13**	.01**
	소득수준	-0.02	-0.45	
2단계	연령	0.03	0.84	.23**
	소득수준	-0.01	-0.17	
	ATU-K: 국력강화	0.08	1.48	
	ATU-K: 정체성보존	-0.03	-0.56	
	ATU-K: 평화증진	-0.02	-0.48	
	ATU-K: 긍정정서	-0.17	-3.19**	
	ATU-K: 부정정서	0.39	8.8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2**				

* $p < .05$, ** $p < .01$; $n=745$.

〈표 V-52〉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4	6.65**	.06**
	소득수준	0.02	0.50	
2단계	연령	0.08	2.56*	.33**
	소득수준	0.00	-0.12	
	ATU-K: 국력강화	0.09	1.65	
	ATU-K: 정체성보존	0.17	3.38**	
	ATU-K: 평화증진	-0.07	-1.59	
	ATU-K: 긍정정서	0.39	8.00**	
	ATU-K: 부정정서	-0.01	-0.3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7**				

* $p < .05$, ** $p < .01$; $n=745$.

〈표 V-53〉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남성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2	6.14**	.05**
	소득수준	0.03	0.84	
2단계	연령	0.09	2.58*	.22**
	소득수준	0.02	0.46	
	ATU-K: 국력강화	0.02	0.27	
	ATU-K: 정체성보존	0.03	0.64	
	ATU-K: 평화증진	-0.02	-0.37	
	ATU-K: 긍정정서	0.38	7.26**	
	ATU-K: 부정정서	-0.04	-0.8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7**				

* $p < .05$, ** $p < .01$; $n=745$.

(2) 여성 응답자($n=755$)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여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정책 지지(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교육) 차원들에서 일관되게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서는 통일태도의 정체성 보존 차원의, 경제협력 정책에는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 차원의, 군사 정책에는 평화 증진 차원의, 통일 교육에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했으며, 통일지향 개인행동에는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 차원의, 통일지향 집단행동에서는 긍정 정서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표 V-54~62〉 참조).

〈표 V-54〉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여성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0**	.64**	.63**	.64**	.67**	.54**	.71**	-.33**	.53**	.48**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0**	.41**	.44**	.42**	.30**	.47**	-.22**	.47**	.40**
3. 단일문화통일태도			—	.49**	.52**	.51**	.38**	.58**	-.30**	.44**	.41**
4. 정책지지:지원				—	.66**	.69**	.55**	.65**	-.33**	.49**	.45**
5. 정책지지:교류					—	.78**	.60**	.73**	-.35**	.45**	.42**
6. 정책지지:경제협						—	.68**	.75**	-.41**	.47**	.44**
7. 정책지지:군사							—	.69**	-.36**	.38**	.39**
8. 정책지지:통일교육								—	-.36**	.48**	.43**
9. 강경정책태도									—	-.15**	-.20**
10. 통일행동:개인										—	.78**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14 (0.72)	2.68 (0.61)	4.21 (1.63)	4.46 (1.40)	4.79 (1.28)	4.58 (1.51)	4.50 (1.35)	4.89 (1.42)	4.10 (1.07)	2.78 (1.33)	2.29 (1.28)

* $p < .05$, ** $p < .01$; $n=755$.

〈표 V-55〉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12	3.37**	.02**
	소득수준	0.01	0.21	
2단계	연령	0.05	1.61	.40**
	소득수준	0.00	0.14	
	ATU-K: 국력강화	0.09	1.94	
	ATU-K: 정체성보존	0.10	2.18*	
	ATU-K: 평화증진	0.07	1.72	
	ATU-K: 긍정정서	0.29	6.44**	
	ATU-K: 부정정서	-0.17	-4.4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9**				

* $p < .05$, ** $p < .01$; $n=755$.

〈표 V-56〉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01	-0.38	.00
	소득수준	-0.02	-0.50	
2단계	연령	-0.09	-3.03**	.42**
	소득수준	-0.02	-0.81	
	ATU-K: 국력강화	0.04	0.81	
	ATU-K: 정체성보존	0.21	4.60**	
	ATU-K: 평화증진	0.04	1.02	
	ATU-K: 긍정정서	0.33	7.53**	
	ATU-K: 부정정서	-0.13	-3.5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3**				

* $p < .05$, ** $p < .01$; $n=755$.

〈표 V-57〉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01	0.25	.00
	소득수준	0.01	0.17	
2단계	연령	-0.07	-2.49*	.45**
	소득수준	0.00	0.07	
	ATU-K: 국력강화	0.11	2.38*	
	ATU-K: 정체성보존	0.15	3.23**	
	ATU-K: 평화증진	0.05	1.22	
	ATU-K: 긍정정서	0.31	7.15**	
	ATU-K: 부정정서	-0.18	-4.7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5**				

* $p < .05$, ** $p < .01$; $n=755$.

〈표 V-58〉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05	1.46	.00
	소득수준	-0.01	-0.18	
2단계	연령	-0.01	-0.43	.28**
	소득수준	-0.01	-0.29	
	ATU-K: 국력강화	0.07	1.36	
	ATU-K: 정체성보존	0.04	0.72	
	ATU-K: 평화증진	0.11	2.35*	
	ATU-K: 긍정정서	0.23	4.74**	
	ATU-K: 부정정서	-0.19	-4.4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9**				

* $p < .05$, ** $p < .01$; $n=755$.

〈표 V-59〉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07	2.05*	.01
	소득수준	-0.02	-0.65	
2단계	연령	0.00	-0.05	.51**
	소득수준	-0.03	-1.05	
	ATU-K: 국력강화	0.07	1.63	
	ATU-K: 정체성보존	0.20	4.74**	
	ATU-K: 평화증진	0.10	2.49*	
	ATU-K: 긍정정서	0.26	6.34**	
	ATU-K: 부정정서	-0.21	-6.1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0**				

* $p < .05$, ** $p < .01$; $n=755$.

〈표 V-60〉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17	4.81**	.03**
	소득수준	0.01	0.35	
2단계	연령	0.20	5.85**	.17**
	소득수준	0.01	0.17	
	ATU-K: 국력강화	0.01	0.16	
	ATU-K: 정체성보존	-0.08	-1.43	
	ATU-K: 평화증진	0.05	0.89	
	ATU-K: 긍정정서	-0.13	-2.47*	
	ATU-K: 부정정서	0.26	5.8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5**				

* $p < .05$, ** $p < .01$; $n=755$.

〈표 V-61〉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20	5.46**	.04**
	소득수준	0.04	1.09	
2단계	연령	0.12	4.05**	.35**
	소득수준	0.03	1.09	
	ATU-K: 국력강화	0.02	0.36	
	ATU-K: 정체성보존	0.13	2.69**	
	ATU-K: 평화증진	-0.05	-1.06	
	ATU-K: 긍정정서	0.49	10.41**	
	ATU-K: 부정정서	0.01	0.1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1**				

* $p < .05$, ** $p < .01$; $n=755$.

〈표 V-62〉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여성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연령	0.15	4.02**	.02**
	소득수준	0.04	1.19	
2단계	연령	0.08	2.36*	.28**
	소득수준	0.04	1.16	
	ATU-K: 국력강화	0.01	0.23	
	ATU-K: 정체성보존	0.09	1.75	
	ATU-K: 평화증진	0.00	0.09	
	ATU-K: 긍정정서	0.43	8.77**	
	ATU-K: 부정정서	0.00	-0.1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6**				

* $p < .05$, ** $p < .01$; $n=755$.

(3) 19~29세 응답자($n=264$)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19~29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관련 정책들 중 대북지원 정책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고,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군사행동 축소 정책에서는 평화 증진과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정책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긍정 및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도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통일지향 개인행동은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 차원이, 통일지향 집단행동은 긍정 정서 차원이 단독으로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표 V-63~71> 참조).

<표 V-63>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19~29세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57**	.67**	.54**	.60**	.52**	.43**	.65**	-.28**	.49**	.43**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67**	.32**	.23**	.21**	.15**	.36**	-.16**	.46**	.40**
3. 단일문화통일태도			—	.47**	.47**	.45**	.34**	.56**	-.31**	.47**	.44**
4. 정책지지:지원				—	.65**	.62**	.49**	.61**	-.38**	.43**	.43**
5. 정책지지:교류					—	.75**	.59**	.70**	-.44**	.41**	.36**
6. 정책지지:경험						—	.64**	.75**	-.48**	.35**	.33**
7. 정책지지:군사							—	.62**	-.50**	.32**	.37**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9**	.40**	.47**
9. 강경정책태도									—	-.12	-.25**
10. 통일행동:개인										—	.77**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30 (0.68)	2.59 (0.66)	3.88 (1.62)	3.93 (1.55)	4.58 (1.36)	4.23 (1.60)	3.74 (1.54)	4.36 (1.63)	4.40 (1.20)	2.57 (1.28)	2.07 (1.30)

** $p < .01$; $n=264$.

〈표 V-64〉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9	3.11**	.03**
	소득수준	-0.03	-0.48	
2단계	성별	0.13	2.54*	.30**
	소득수준	0.02	0.31	
	ATU-K: 국력강화	0.02	0.28	
	ATU-K: 정체성보존	0.05	0.71	
	ATU-K: 평화증진	0.10	1.50	
	ATU-K: 긍정정서	0.29	3.97**	
	ATU-K: 부정정서	-0.18	-2.7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8**				

* $p < .05$, ** $p < .01$, $n=264$.

〈표 V-65〉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30	5.13**	.09**
	소득수준	-0.11	-1.83	
2단계	성별	0.22	4.73**	.44**
	소득수준	-0.06	-1.32	
	ATU-K: 국력강화	-0.02	-0.21	
	ATU-K: 정체성보존	0.32	4.78**	
	ATU-K: 평화증진	0.01	0.16	
	ATU-K: 긍정정서	0.28	4.27**	
	ATU-K: 부정정서	-0.11	-1.8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6**				

* $p < .05$, ** $p < .01$, $n=264$.

〈표 V-66〉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23	3.77**	.05**
	소득수준	-0.08	-1.33	
2단계	성별	0.16	3.00**	.29**
	소득수준	-0.06	-1.10	
	ATU-K: 국력강화	0.07	0.83	
	ATU-K: 정체성보존	0.22	2.95**	
	ATU-K: 평화증진	0.06	0.86	
	ATU-K: 긍정정서	0.15	1.99*	
	ATU-K: 부정정서	-0.12	-1.8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5**				

* $p < .05$, ** $p < .01$, $n=264$.

〈표 V-67〉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36	6.31**	.13**
	소득수준	-0.02	-0.29	
2단계	성별	0.32	5.99**	.28**
	소득수준	0.00	0.04	
	ATU-K: 국력강화	0.03	0.36	
	ATU-K: 정체성보존	0.01	0.14	
	ATU-K: 평화증진	0.15	2.11*	
	ATU-K: 긍정정서	0.08	1.11	
	ATU-K: 부정정서	-0.23	-3.3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7**				

* $p < .05$, ** $p < .01$, $n=264$.

〈표 V-68〉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26	4.30**	.07**
	소득수준	-0.06	-0.97	
2단계	성별	0.18	3.79**	.46**
	소득수준	-0.03	-0.55	
	ATU-K: 국력강화	0.09	1.23	
	ATU-K: 정체성보존	0.22	3.23**	
	ATU-K: 평화증진	0.08	1.31	
	ATU-K: 긍정정서	0.22	3.32**	
	ATU-K: 부정정서	-0.17	-2.8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9**				

* $p < .05$, ** $p < .01$, $n=264$.

〈표 V-69〉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37	-6.37**	.13**
	소득수준	-0.04	-0.68	
2단계	성별	-0.34	-6.15**	.22**
	소득수준	-0.08	-1.48	
	ATU-K: 국력강화	0.03	0.35	
	ATU-K: 정체성보존	-0.01	-0.14	
	ATU-K: 평화증진	0.12	1.61	
	ATU-K: 긍정정서	-0.11	-1.36	
	ATU-K: 부정정서	0.32	4.4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1**				

* $p < .05$, ** $p < .01$, $n=264$.

〈표 V-70〉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0.76	.00
	소득수준	-0.10	-1.58	
2단계	성별	-0.11	-2.04*	.32**
	소득수준	-0.03	-0.50	
	ATU-K: 국력강화	-0.07	-0.82	
	ATU-K: 정체성보존	0.23	3.08**	
	ATU-K: 평화증진	-0.07	-1.00	
	ATU-K: 긍정정서	0.47	6.43**	
	ATU-K: 부정정서	-0.05	-0.7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2**				

* $p < .05$, ** $p < .01$, $n=264$.

〈표 V-71〉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19~29세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1	-0.13	.00**
	소득수준	-0.08	-1.35	
2단계	성별	-0.06	-1.00	.20**
	소득수준	-0.03	-0.46	
	ATU-K: 국력강화	-0.07	-0.85	
	ATU-K: 정체성보존	0.11	1.42	
	ATU-K: 평화증진	0.03	0.47	
	ATU-K: 긍정정서	0.35	4.47**	
	ATU-K: 부정정서	-0.11	-1.5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2**				

* $p < .05$, ** $p < .01$, $n=264$.

(4) 30~49세 응답자($n=583$)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30~49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지지(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교육) 차원들에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더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의 예측효과가, 사회/문화교류에서는 정체성 보존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군사 정책에는 평화 증진 차원이, 통일 교육에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와 인지에서 국력강화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통일지향 개인 및 집단행동에서는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단독으로 유의하였다(〈표 V-72~80〉 참조).

〈표 V-72〉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30~49세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6**	.71**	.65**	.67**	.68**	.50**	.78**	-.33**	.51**	.45**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5**	.48**	.52**	.47**	.30**	.56**	-.23**	.52**	.42**
3. 단일문화통일태도			—	.55**	.56**	.56**	.39**	.66**	-.32**	.49**	.40**
4. 정책지지:지원				—	.68**	.67**	.59**	.73**	-.40**	.49**	.44**
5. 정책지지:교류					—	.78**	.61**	.76**	-.39**	.47**	.41**
6. 정책지지:경협						—	.68**	.78**	-.41**	.47**	.41**
7. 정책지지:군사							—	.68**	-.41**	.37**	.34**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1**	.51**	.44**
9. 강경정책태도									—	-.17**	-.21**
10. 통일행동:개인										—	.76**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04 (0.73)	2.77 (0.65)	4.40 (1.70)	4.53 (1.48)	4.76 (1.34)	4.67 (1.53)	4.48 (1.40)	4.96 (1.47)	4.07 (1.13)	2.79 (1.30)	2.28 (1.27)

** $p < .01$; $n=583$.

〈표 V-73〉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4	-3.37**	.02**
	소득수준	-0.01	-0.17	
2단계	성별	0.03	0.88	.43**
	소득수준	0.00	-0.08	
	ATU-K: 국력강화	-0.01	-0.17	
	ATU-K: 정체성보존	0.11	2.17*	
	ATU-K: 평화증진	0.11	2.33*	
	ATU-K: 긍정정서	0.35	6.74**	
	ATU-K: 부정정서	-0.22	-5.1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2**				

* $p < .05$, ** $p < .01$, $n=583$.

〈표 V-74〉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0	-2.36*	.01*
	소득수준	-0.04	-0.86	
2단계	성별	0.08	2.39*	.45**
	소득수준	-0.04	-1.18	
	ATU-K: 국력강화	0.05	1.01	
	ATU-K: 정체성보존	0.14	2.72**	
	ATU-K: 평화증진	0.09	1.90	
	ATU-K: 긍정정서	0.38	7.60**	
	ATU-K: 부정정서	-0.15	-3.4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5**				

* $p < .05$, ** $p < .01$, $n=583$.

〈표 V-75〉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9	-2.19*	.01**
	소득수준	0.02	0.39	
2단계	성별	0.09	2.81**	.48**
	소득수준	0.02	0.58	
	ATU-K: 국력강화	0.04	0.73	
	ATU-K: 정체성보존	0.11	2.26*	
	ATU-K: 평화증진	0.10	2.26*	
	ATU-K: 긍정정서	0.39	7.87**	
	ATU-K: 부정정서	-0.18	-4.4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7**				

* $p < .05$, ** $p < .01$, $n=583$.

〈표 V-76〉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1	0.22	.00
	소득수준	-0.02	-0.53	
2단계	성별	0.14	3.70**	.28**
	소득수준	-0.02	-0.53	
	ATU-K: 국력강화	-0.04	-0.74	
	ATU-K: 정체성보존	0.09	1.54	
	ATU-K: 평화증진	0.15	2.91**	
	ATU-K: 긍정정서	0.30	5.23**	
	ATU-K: 부정정서	-0.13	-2.6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8**				

* $p < .05$, ** $p < .01$, $n=583$.

〈표 V-77〉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4	-3.47**	.02**
	소득수준	-0.01	-0.34	
2단계	성별	0.06	2.16*	.61**
	소득수준	-0.01	-0.42	
	ATU-K: 국력강화	0.07	1.60	
	ATU-K: 정체성보존	0.20	4.68**	
	ATU-K: 평화증진	0.09	2.28*	
	ATU-K: 긍정정서	0.36	8.55**	
	ATU-K: 부정정서	-0.21	-5.9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9**				

* $p < .05$, ** $p < .01$, $n=583$.

〈표 V-78〉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2	-2.90**	.01*
	소득수준	0.01	0.19	
2단계	성별	-0.22	-5.65**	.19**
	소득수준	0.00	0.00	
	ATU-K: 국력강화	0.14	2.31*	
	ATU-K: 정체성보존	-0.10	-1.60	
	ATU-K: 평화증진	0.01	0.20	
	ATU-K: 긍정정서	-0.20	-3.24**	
	ATU-K: 부정정서	0.32	6.1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9**				

* $p < .05$, ** $p < .01$, $n=583$.

〈표 V-79〉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7	-4.09**	.03**
	소득수준	0.01	0.23	
2단계	성별	-0.03	-0.77	.30**
	소득수준	-0.01	-0.18	
	ATU-K: 국력강화	0.09	1.52	
	ATU-K: 정체성보존	0.06	1.11	
	ATU-K: 평화증진	-0.04	-0.81	
	ATU-K: 긍정정서	0.48	8.40**	
	ATU-K: 부정정서	0.02	0.39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8**				

* $p < .05$, ** $p < .01$, $n=583$.

〈표 V-80〉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30~49세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0	-2.51*	.01*
	소득수준	0.04	1.04	
2단계	성별	0.02	0.61	.24**
	소득수준	0.03	0.78	
	ATU-K: 국력강화	0.07	1.11	
	ATU-K: 정체성보존	-0.02	-0.41	
	ATU-K: 평화증진	0.01	0.25	
	ATU-K: 긍정정서	0.49	8.22**	
	ATU-K: 부정정서	0.03	0.6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4**				

* $p < .05$, ** $p < .01$, $n=583$.

(5) 50~69세 응답자($n=653$)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50~69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지지(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교육) 차원들에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더하여 대북지원에서는 국력 강화 차원이, 경제협력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이, 사회/문화교류에서는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통일 교육에는 국력 강화와 평화 증진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통일지향 개인행동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통일지향 집단행동에서는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단독으로 유의하였다(〈표 V-81~89〉 참조).

〈표 V-81〉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50~69세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1**	.65**	.61**	.63**	.64**	.53**	.69**	-.42**	.54**	.43**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2**	.38**	.42**	.40**	.27**	.46**	-.27**	.47**	.36**
3. 단일문화통일태도			—	.49**	.52**	.51**	.42**	.60**	-.39**	.48**	.39**
4. 정책지지:지원				—	.73**	.74**	.62**	.66**	-.48**	.48**	.43**
5. 정책지지:교류					—	.82**	.68**	.74**	-.50**	.49**	.43**
6. 정책지지:경협						—	.75**	.75**	-.58**	.49**	.44**
7. 정책지지:군사							—	.71**	-.61**	.38**	.37**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6**	.47**	.46**
9. 강경정책태도									—	-.31**	-.31**
10. 통일행동:개인										—	.77**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16 (0.75)	2.92 (0.66)	4.74 (1.71)	4.86 (1.35)	5.01 (1.34)	4.77 (1.65)	4.66 (1.57)	5.21 (1.43)	4.23 (1.31)	3.26 (1.37)	2.66 (1.38)

** $p < .01$; $n=653$.

〈표 V-82〉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3.42**	.02**
	소득수준	0.03	0.68	
2단계	성별	0.02	0.64	.37**
	소득수준	-0.02	-0.53	
	ATU-K: 국력강화	0.14	2.45*	
	ATU-K: 정체성보존	0.05	0.92	
	ATU-K: 평화증진	0.06	1.11	
	ATU-K: 긍정정서	0.33	6.57**	
	ATU-K: 부정정서	-0.13	-3.0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6**				

* $p < .05$, ** $p < .01$, $n=653$.

〈표 V-83〉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1	-2.85**	.01*
	소득수준	0.02	0.46	
2단계	성별	0.04	1.28	.40**
	소득수준	-0.03	-0.88	
	ATU-K: 국력강화	0.03	0.47	
	ATU-K: 정체성보존	0.17	3.09**	
	ATU-K: 평화증진	0.11	2.30*	
	ATU-K: 긍정정서	0.33	6.62**	
	ATU-K: 부정정서	-0.11	-2.5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9**				

* $p < .05$, ** $p < .01$, $n=653$.

〈표 V-84〉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9	-2.42*	.01
	소득수준	0.01	0.15	
2단계	성별	0.07	2.22*	.42**
	소득수준	-0.04	-1.27	
	ATU-K: 국력강화	0.11	2.02*	
	ATU-K: 정체성보존	0.15	2.75**	
	ATU-K: 평화증진	0.05	0.95	
	ATU-K: 긍정정서	0.27	5.58**	
	ATU-K: 부정정서	-0.20	-4.6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653$.

〈표 V-85〉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20	.00
	소득수준	0.00	0.05	
2단계	성별	0.09	2.72**	.29**
	소득수준	-0.04	-1.08	
	ATU-K: 국력강화	0.04	0.67	
	ATU-K: 정체성보존	0.07	1.16	
	ATU-K: 평화증진	0.09	1.72	
	ATU-K: 긍정정서	0.23	4.29**	
	ATU-K: 부정정서	-0.22	-4.7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9**				

* $p < .05$, ** $p < .01$, $n=653$.

〈표 V-86〉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1	-2.94**	.01*
	소득수준	0.02	0.42	
2단계	성별	0.06	1.97*	.48**
	소득수준	-0.03	-1.14	
	ATU-K: 국력강화	0.11	2.01*	
	ATU-K: 정체성보존	0.10	1.93	
	ATU-K: 평화증진	0.12	2.62**	
	ATU-K: 긍정정서	0.29	6.28**	
	ATU-K: 부정정서	-0.22	-5.3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7**				

* $p < .05$, ** $p < .01$, $n=653$.

〈표 V-87〉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39	.00
	소득수준	0.01	0.20	
2단계	성별	-0.07	-1.96	.21**
	소득수준	0.04	1.00	
	ATU-K: 국력강화	0.02	0.34	
	ATU-K: 정체성보존	-0.05	-0.77	
	ATU-K: 평화증진	-0.03	-0.45	
	ATU-K: 긍정정서	-0.11	-2.02*	
	ATU-K: 부정정서	0.36	7.3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1**				

* $p < .05$, ** $p < .01$, $n=653$.

〈표 V-88〉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4	-3.59**	.03**
	소득수준	0.08	2.12*	
2단계	성별	0.00	-0.08	.32**
	소득수준	0.05	1.42	
	ATU-K: 국력강화	0.09	1.44	
	ATU-K: 정체성보존	0.18	3.07**	
	ATU-K: 평화증진	-0.07	-1.37	
	ATU-K: 긍정정서	0.40	7.74**	
	ATU-K: 부정정서	-0.01	-0.2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0**				

* $p < .05$, ** $p < .01$, $n=653$.

〈표 V-89〉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50~69세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1	-2.79**	.02**
	소득수준	0.07	1.77	
2단계	성별	0.01	0.17	.21**
	소득수준	0.04	1.12	
	ATU-K: 국력강화	0.01	0.18	
	ATU-K: 정체성보존	0.11	1.74	
	ATU-K: 평화증진	-0.05	-0.79	
	ATU-K: 긍정정서	0.38	6.65**	
	ATU-K: 부정정서	-0.04	-0.7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0**				

* $p < .05$, ** $p < .01$, $n=653$.

(6) 저소득(월 250만 원 미만) 응답자($n=268$)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저소득(월 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지지(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 교육) 차원들에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더하여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서 정체성 보존 차원이, 군사행동 축소에서는 평화 증진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통일 교육에는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추가로 유의했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 유의하였다. 통일지향 개인 및 집단행동에서는 국력 강화와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표 V-90~98〉 참조).

〈표 V-90〉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저소득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5**	.68**	.65**	.65**	.67**	.57**	.72**	-.39**	.55**	.49**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1**	.46**	.42**	.44**	.36**	.53**	-.32**	.49**	.42**
3. 단일문화통일태도			—	.51**	.51**	.53**	.42**	.66**	-.34**	.48**	.43**
4. 정책지지:지원				—	.68**	.72**	.61**	.68**	-.42**	.49**	.45**
5. 정책지지:교류					—	.81**	.70**	.75**	-.47**	.42**	.41**
6. 정책지지:경협						—	.73**	.76**	-.49**	.44**	.43**
7. 정책지지:군사							—	.69**	-.53**	.36**	.35**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7**	.43**	.38**
9. 강경정책태도									—	-.22**	-.22**
10. 통일행동:개인										—	.77**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03 (0.77)	2.83 (0.66)	4.52 (1.67)	4.61 (1.54)	4.87 (1.38)	4.67 (1.66)	4.45 (1.62)	4.98 (1.55)	4.24 (1.24)	2.94 (1.39)	2.38 (1.43)

** $p < .01$; $n=268$.

〈표 V-91〉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0	-1.65	.02*
	연령	0.14	2.27*	
2단계	성별	0.01	0.18	.43**
	연령	0.07	1.60	
	ATU-K: 국력강화	0.07	0.78	
	ATU-K: 정체성보존	0.15	1.89	
	ATU-K: 평화증진	0.13	1.91	
	ATU-K: 긍정정서	0.33	4.67**	
	ATU-K: 부정정서	-0.09	-1.3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268$.

〈표 V-92〉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2	-0.40	.00
	연령	0.03	0.47	
2단계	성별	0.09	1.98*	.44**
	연령	-0.03	-0.60	
	ATU-K: 국력강화	0.05	0.65	
	ATU-K: 정체성보존	0.22	2.81**	
	ATU-K: 평화증진	0.03	0.47	
	ATU-K: 긍정정서	0.39	5.54**	
	ATU-K: 부정정서	-0.09	-1.4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6**				

* $p < .05$, ** $p < .01$, $n=268$.

〈표 V-93〉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2	-0.34	.00
	연령	0.07	1.13	
2단계	성별	0.09	1.94	.46**
	연령	0.01	0.26	
	ATU-K: 국력강화	0.13	1.56	
	ATU-K: 정체성보존	0.27	3.56**	
	ATU-K: 평화증진	0.03	0.49	
	ATU-K: 긍정정서	0.29	4.21**	
	ATU-K: 부정정서	-0.07	-1.1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7**				

* $p < .05$, ** $p < .01$, $n=268$.

〈표 V-94〉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4	0.73	.03**
	연령	0.20	3.29**	
2단계	성별	0.14	2.71**	.35**
	연령	0.14	2.74**	
	ATU-K: 국력강화	0.12	1.34	
	ATU-K: 정체성보존	0.06	0.74	
	ATU-K: 평화증진	0.16	2.18*	
	ATU-K: 긍정정서	0.20	2.68**	
	ATU-K: 부정정서	-0.14	-2.0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2**				

* $p < .05$, ** $p < .01$, $n=268$.

〈표 V-95〉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0.57	.01
	연령	0.11	1.83	
2단계	성별	0.09	2.00*	.53**
	연령	0.04	0.88	
	ATU-K: 국력강화	0.15	1.88	
	ATU-K: 정체성보존	0.13	1.75	
	ATU-K: 평화증진	0.16	2.50	
	ATU-K: 긍정정서	0.32	4.87**	
	ATU-K: 부정정서	-0.12	-2.1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2**				

* $p < .05$, ** $p < .01$, $n=268$.

〈표 V-96〉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0	-1.64	.00
	연령	0.01	0.15	
2단계	성별	-0.19	-3.33**	.19**
	연령	0.05	0.82	
	ATU-K: 국력강화	0.05	0.51	
	ATU-K: 정체성보존	0.01	0.13	
	ATU-K: 평화증진	-0.04	-0.52	
	ATU-K: 긍정정서	-0.26	-3.12**	
	ATU-K: 부정정서	0.27	3.5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0**				

* $p < .05$, ** $p < .01$, $n=268$.

〈표 V-97〉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3	-2.06*	.01
	연령	0.07	1.13	
2단계	성별	-0.01	-0.22	.35**
	연령	0.01	0.26	
	ATU-K: 국력강화	0.31	3.37**	
	ATU-K: 정체성보존	-0.04	-0.48	
	ATU-K: 평화증진	-0.13	-1.73	
	ATU-K: 긍정정서	0.44	5.84**	
	ATU-K: 부정정서	-0.03	-0.49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5**				

* $p < .05$, ** $p < .01$, $n=268$.

〈표 V-98〉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저소득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0.84	.00
	연령	0.08	1.26	
2단계	성별	0.05	0.89	.26**
	연령	0.02	0.44	
	ATU-K: 국력강화	0.22	2.30*	
	ATU-K: 정체성보존	-0.04	-0.48	
	ATU-K: 평화증진	-0.03	-0.41	
	ATU-K: 긍정정서	0.38	4.71**	
	ATU-K: 부정정서	-0.03	-0.4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7**				

* $p < .05$, ** $p < .01$, $n=268$.

(7) 중간소득(월 250만 원~499만 원) 응답자($n=582$)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중간소득(월 평균 소득 250만 원~499만 원)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북지원을 제외한 정책 지지(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교육) 차원들에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그리고 인지 차원에서 정체성 유지의 예측효과가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대북지원 정책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정체성 보존과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 유의하였다. 통일지향 개인 및 집단행동에서도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표 V-99~107〉 참조).

〈표 V-99〉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중간소득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0**	.66**	.63**	.63**	.64**	.49**	.71**	-.35**	.56**	.47**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4**	.39**	.43**	.37**	.28**	.47**	-.20**	.53**	.45**
3. 단일문화통일태도			—	.53**	.55**	.53**	.42**	.60**	-.36**	.52**	.45**
4. 정책지지:지원				—	.69**	.66**	.60**	.69**	-.43**	.51**	.46**
5. 정책지지:교류					—	.80**	.62**	.73**	-.45**	.51**	.44**
6. 정책지지:경협						—	.70**	.76**	-.50**	.48**	.42**
7. 정책지지:군사							—	.70**	-.53**	.39**	.37**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4**	.51**	.42**
9. 강경정책태도									—	-.18**	-.21**
10. 통일행동:개인										—	.77**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01 (0.72)	2.80 (0.65)	4.44 (1.72)	4.53 (1.44)	4.87 (1.32)	4.63 (1.57)	4.45 (1.50)	4.99 (1.45)	4.17 (1.22)	2.94 (1.32)	2.38 (1.30)

** $p < .01$; $n=582$.

〈표 V-100〉 정책 지지: 대북지원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대북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23	.06**
	연령	0.24	5.84**	
2단계	성별	0.07	2.14*	.42**
	연령	0.11	3.49**	
	ATU-K: 국력강화	0.02	0.38	
	ATU-K: 정체성보존	0.07	1.38	
	ATU-K: 평화증진	0.06	1.30	
	ATU-K: 긍정정서	0.35	7.25**	
	ATU-K: 부정정서	-0.23	-5.45**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8**				

* $p < .05$, ** $p < .01$, $n=582$.

〈표 V-101〉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7	-1.61	.01*
	연령	0.10	2.54*	
2단계	성별	0.05	1.44	.41**
	연령	-0.02	-0.55	
	ATU-K: 국력강화	0.00	-0.03	
	ATU-K: 정체성보존	0.22	4.34**	
	ATU-K: 평화증진	0.02	0.45	
	ATU-K: 긍정정서	0.38	7.81**	
	ATU-K: 부정정서	-0.13	-3.0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582$.

〈표 V-102〉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8	-1.85	.01*
	연령	0.07	1.64	
2단계	성별	0.05	1.45	.42**
	연령	-0.06	-1.73	
	ATU-K: 국력강화	0.10	1.77	
	ATU-K: 정체성보존	0.15	2.95**	
	ATU-K: 평화증진	0.01	0.26	
	ATU-K: 긍정정서	0.31	6.39**	
	ATU-K: 부정정서	-0.20	-4.8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582$.

〈표 V-103〉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4	0.95	.01**
	연령	0.13	3.09**	
2단계	성별	0.13	3.62**	.26**
	연령	0.04	0.99	
	ATU-K: 국력강화	-0.02	-0.32	
	ATU-K: 정체성보존	0.12	2.03*	
	ATU-K: 평화증진	0.06	1.04	
	ATU-K: 긍정정서	0.22	4.01**	
	ATU-K: 부정정서	-0.23	-4.8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5**				

* $p < .05$, ** $p < .01$, $n=582$.

〈표 V-104〉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5	-1.13	.02**
	연령	0.15	3.68**	
2단계	성별	0.08	2.80**	.51**
	연령	0.02	0.58	
	ATU-K: 국력강화	0.08	1.51	
	ATU-K: 정체성보존	0.20	4.20**	
	ATU-K: 평화증진	0.05	1.08	
	ATU-K: 긍정정서	0.32	6.99**	
	ATU-K: 부정정서	-0.21	-5.5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9**				

* $p < .05$, ** $p < .01$, $n=582$.

〈표 V-105〉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7	-1.72	.00
	연령	-0.02	-0.48	
2단계	성별	-0.15	-3.77**	.17**
	연령	0.03	0.78	
	ATU-K: 국력강화	0.06	0.93	
	ATU-K: 정체성보존	-0.16	-2.68**	
	ATU-K: 평화증진	0.06	1.04	
	ATU-K: 긍정정서	-0.10	-1.73	
	ATU-K: 부정정서	0.32	6.3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8**				

* $p < .05$, ** $p < .01$, $n=582$.

〈표 V-106〉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6	-3.91**	.07**
	연령	0.22	5.53**	
2단계	성별	-0.06	-1.86	.40**
	연령	0.11	3.26**	
	ATU-K: 국력강화	-0.05	-0.82	
	ATU-K: 정체성보존	0.20	3.91**	
	ATU-K: 평화증진	-0.06	-1.14	
	ATU-K: 긍정정서	0.52	10.36**	
	ATU-K: 부정정서	0.01	0.26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3**				

* $p < .05$, ** $p < .01$, $n=582$.

〈표 V-107〉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중간소득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4	-3.35**	.05**
	연령	0.20	4.88**	
2단계	성별	-0.05	-1.46	.29**
	연령	0.10	2.81**	
	ATU-K: 국력강화	-0.11	-1.82	
	ATU-K: 정체성보존	0.12	2.08*	
	ATU-K: 평화증진	-0.01	-0.24	
	ATU-K: 긍정정서	0.47	8.58**	
	ATU-K: 부정정서	-0.05	-1.18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4**				

* $p < .05$, ** $p < .01$, $n=582$.

(8) 고소득(월 500만 원 이상) 응답자($n=650$) 대상 준거타당도 검증

고소득(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지지(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 교육) 차원들에서 통일태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그리고 인지 차원에서 평화 증진의 예측효과가 일관되게 유의하였다. 더하여 사회/문화교류에서는 정체성 보존 차원이, 통일교육에서는 국력강화와 정체성보존 차원의 예측효과가 유의하였다.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예측효과 유의하였다. 통일지향 개인행동에서는 정체성 보존과 긍정 정서가, 통일지향 집단행동에서는 긍정 정서의 예측효과가 단독으로 유의하였다(<표 V-108~116> 참조).

<표 V-108> 측정변수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본조사B, 고소득 응답자)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ATU-K	—	.66**	.71**	.63**	.65**	.63**	.53**	.74**	-.36**	.52**	.43**
2. 통일연구원통일태도		—	.73**	.45**	.45**	.41**	.26**	.50**	-.23**	.48**	.37**
3. 단일문화통일태도			—	.53**	.54**	.53**	.41**	.64**	-.35**	.49**	.39**
4. 정책지지:지원				—	.71**	.71**	.59**	.70**	-.43**	.48**	.44**
5. 정책지지:교류					—	.78**	.62**	.75**	-.43**	.48**	.41**
6. 정책지지:경협						—	.72**	.77**	-.52**	.46**	.42**
7. 정책지지:군사							—	.70**	-.52**	.40**	.40**
8. 정책지지:통일교육								—	-.43**	.50**	.41**
9. 강경정책태도									—	-.26**	-.33**
10. 통일행동:개인										—	.78**
11. 통일행동:집단											—
평균 (표준편차)	0.00 (0.77)	2.80 (0.68)	4.44 (1.72)	4.57 (1.48)	4.79 (1.37)	4.63 (1.62)	4.40 (1.52)	4.93 (1.54)	4.20 (1.24)	2.98 (1.37)	2.45 (1.36)

** $p < .01$; $n=650$.

〈표 V-109〉 정책 지지: 대복지원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대복지원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7	-1.87	.05**
	연령	0.22	5.85**	
2단계	성별	0.05	1.56	.39**
	연령	0.05	1.49	
	ATU-K: 국력강화	0.10	1.90	
	ATU-K: 정체성보존	0.05	0.97	
	ATU-K: 평화증진	0.10	2.03*	
	ATU-K: 긍정정서	0.28	5.23**	
	ATU-K: 부정정서	-0.19	-4.24**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34**				

* $p < .05$, ** $p < .01$, $n=650$.

〈표 V-110〉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0	-0.10	.02**
	연령	0.14	3.61**	
2단계	성별	0.12	3.91**	.44**
	연령	-0.05	-1.58	
	ATU-K: 국력강화	0.05	0.95	
	ATU-K: 정체성보존	0.16	3.25**	
	ATU-K: 평화증진	0.15	3.21**	
	ATU-K: 긍정정서	0.30	5.76**	
	ATU-K: 부정정서	-0.15	-3.3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2**				

* $p < .05$, ** $p < .01$, $n=650$.

〈표 V-111〉 정책 지지: 경제협력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경제협력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0	-0.05	.01**
	연령	0.12	3.09**	
2단계	성별	0.12	3.99**	.41**
	연령	-0.07	-2.18*	
	ATU-K: 국력강화	0.05	1.04	
	ATU-K: 정체성보존	0.09	1.73	
	ATU-K: 평화증진	0.14	3.12**	
	ATU-K: 긍정정서	0.29	5.53**	
	ATU-K: 부정정서	-0.20	-4.62**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41**				

* $p < .05$, ** $p < .01$, $n=650$.

〈표 V-112〉 정책 지지: 군사정책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군사정책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6	1.64	.04**
	연령	0.20	5.30**	
2단계	성별	0.16	4.88**	.32**
	연령	0.04	1.25	
	ATU-K: 국력강화	0.04	0.62	
	ATU-K: 정체성보존	-0.01	-0.13	
	ATU-K: 평화증진	0.20	4.01**	
	ATU-K: 긍정정서	0.24	4.11**	
	ATU-K: 부정정서	-0.18	-3.81**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8**				

* $p < .05$, ** $p < .01$, $n=650$.

〈표 V-113〉 정책 지지: 통일교육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정책 지지: 통일교육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6	-1.49	.05**
	연령	0.21	5.46**	
2단계	성별	0.09	3.20**	.56**
	연령	0.00	0.06	
	ATU-K: 국력강화	0.10	2.14*	
	ATU-K: 정체성보존	0.14	3.10**	
	ATU-K: 평화증진	0.11	2.72**	
	ATU-K: 긍정정서	0.30	6.40**	
	ATU-K: 부정정서	-0.24	-6.33**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51**				

* $p < .05$, ** $p < .01$, $n=650$.

〈표 V-114〉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8	-2.05*	.01
	연령	0.04	1.00	
2단계	성별	-0.18	-5.02**	.22**
	연령	0.17	4.59**	
	ATU-K: 국력강화	0.04	0.60	
	ATU-K: 정체성보존	0.02	0.33	
	ATU-K: 평화증진	-0.02	-0.40	
	ATU-K: 긍정정서	-0.14	-2.30*	
	ATU-K: 부정정서	0.41	8.00**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2**				

* $p < .05$, ** $p < .01$, $n=650$.

〈표 V-115〉 통일지향 행동: 개인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개인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1	-2.82**	.09**
	연령	0.28	7.42**	
2단계	성별	-0.01	-0.38	.31**
	연령	0.14	4.15**	
	ATU-K: 국력강화	0.06	1.06	
	ATU-K: 정체성보존	0.17	3.07**	
	ATU-K: 평화증진	-0.03	-0.62	
	ATU-K: 긍정정서	0.35	6.08**	
	ATU-K: 부정정서	0.00	0.0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23**				

* $p < .05$, ** $p < .01$, $n=650$.

〈표 V-116〉 통일지향 행동: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고소득 응답자)

		통일지향 행동: 집단		
		β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6	-1.50	.05**
	연령	0.22	5.87**	
2단계	성별	0.02	0.65	.21**
	연령	0.10	2.69**	
	ATU-K: 국력강화	0.04	0.64	
	ATU-K: 정체성보존	0.04	0.76	
	ATU-K: 평화증진	0.02	0.45	
	ATU-K: 긍정정서	0.36	5.92**	
	ATU-K: 부정정서	0.01	0.27	
2단계 증분설명량(ΔR^2) = .16**				

* $p < .05$, ** $p < .01$, $n=650$.

5. 결과 요약 및 논의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ATU-K 척도를 구성하는 예비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태도의 인지 차원에서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세 가지 단면을, 정서 차원에서는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단면을 포함하여 총 19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 포함한 변별 요인들을 본조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ATU-K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 기존 측정 방식과의 효과성 비교를 위해 본조사에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단일 문항과 2019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사용한 11개 문항을 포함했다.⁸⁵⁾ 추가적으로, 예비조사에서 측정한 준거 요인(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통일지향 행동의도)을 확장하기 위해 본조사에서는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와 대북제재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고,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가. ATU-K 척도의 구성타당도

본조사에서는 설문지의 응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피로 효과를 줄이기 위해 ATU-K의 수렴/변별타당도를 점검하는 조사와 준거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했다. 연구 결과, 본조사A와 본조사B 모두에서 ATU-K 척도의 위계적 요인구조(1층: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 세 요인과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정서 두 요인, 총 다섯 개 요인; 2층: 인지와 정서의 두 개 요인)가 확인되었다. 즉, 태도의 구

85)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pp. 175~176.

조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예측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태도는 인지와 정서의 하위차원들로 구성되며, 인지 차원은 통일과 연합된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증진에 대한 신념들로 구분되고, 정서 차원은 통일을 떠올렸을 때 경험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되었다.

나. ATU-K 척도의 수렴/변별타당도

ATU-K 척도가 국내에서 행해진 기존 조사들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도구들과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단일문화 통일태도와의 상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간 수준 이상의 상관(상관계수 각 .64, .68)이 나타나, ATU-K 척도가 기존 척도들과 개념적으로 수렴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척도는 아님을 확인하였다(상관계수가 .80 이상의 강한 상관일 때는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⁸⁶⁾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와 변별 요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지닌 정치적 가치(안전 지향, 조화 지향), 민족 정체성, 공동체집단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태도도 긍정적이었고, 사회적 지배경향성과 보수적 정치성향이 높을 때는 통일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이때 상관의 크기는 .22에서 .63으로, 통일태도와 이 변수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ATU-K 통일태도와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단일 문화 통일태도와 변별 요인들과의 상관값을 비교한 결과, 우익권위주의를 제외한 모든 변별 요인들과 통일태도 간의 상관이 ATU-K 척도를 사용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86) Jacob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1988), pp. 75~107.

우익권위주의의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시 세 가지 척도(ATU-K, 통일연구원 척도, 단일 문항)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위 표본에서 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통일태도와 상관관계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였다. 먼저 여성 응답자들과 50~69세 응답자, 고소득 응답자들에게서는 ATU-K 통일태도 또는 단일문항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19~29세 응답자들과 중간소득 응답자들에게서는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성 또는 50~69세, 또는 고소득 응답자들에게서 ATU-K 통일태도 및 단일문항 통일태도와 우익권위주의가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우익권위주의가 보수적 정치성향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에서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나, 저연령(19~29세)이거나 중간소득 응답자들에게서 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우익권위주의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선행연구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전체 표본에서 우익권위주의가 통일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은 예비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그러나 본조사에서 하위 표본에 따라 우익권위주의와 통일태도 간 상관을 검증한 결과 특정 표본(여성, 저연령, 소득수준 별)에서 특정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우익권위주의가 차별적 상관을 보인 것을 통해, 우익권위주의와 통일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차 또는 상황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즉 특정 인구통계 특성을 지닌 하위표본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통일태도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다른 인구통계 특성을 지닌 하위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서도 상관관계가 약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통일 관련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방법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

본조사B에서는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태도가 통일 관련 행동(의도) 변수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점검했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ATU-K 통일태도가 준거변수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행동 축소, 통일교육 정책을 더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통일지향 행동을 실행할 의도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통일에 대한 태도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전반적인 통일태도가 준거변수들을 예측하는지에 더해 통일태도의 하위차원들과 준거변수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을 구성하는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 차원과 정서 차원을 구성하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각각이 다양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와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했다.

분석 결과, 통일의 결과로 예상되는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 정서 수준이 높고 부정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대북지원 정책과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정책을 지지하였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통일 담론 형성(통일교육) 정책은 통일의 결과(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정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더 지지하였다.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통일과 연합된 평화 증진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 정서 수준이 높고 부정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더 지지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해 긍정 정서를 덜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대북 강경정책을 더 지지하였다. 통일지향 개인행동의도는 통일의 결과로 정체성 보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통일지향 집단행동의도는 통일에 대해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높았다.

대북·통일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실행에 요구되는 비용과 그 결과 얻게 될 이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협력 및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기대되는 이득과 더불어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모두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수반할 수 있다. 이때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정책 관련 이득과 비용이 연합된 결과의 양상 역시 다르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 따라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 중에서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차원이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태도 중 평화 증진 차원은 통일 정책의 다섯 가지 차원 모두에서 지지 반응을 예측하였고, 정체성 보존 차원은 군사정책 차원을 제외한 네 가지 정책 차원에서의 지지 반응을 예측했다. 반면 국력 강화 차원은 경제협력 정책 차원과 통일교육 정책 차원에 대해서만 정책 지지 반응을 예측했다.

한편 대북 강경정책의 경우 남북 간 무력 충돌 및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가정하는 다소 위험부담이 큰 정책으로, 정책의 실행으로 기대되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전쟁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 등의 정서 상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반응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통일에 대한 부정 정서가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지지 반응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였고,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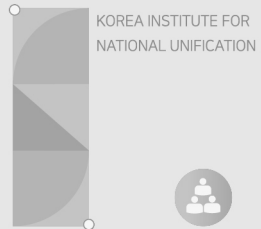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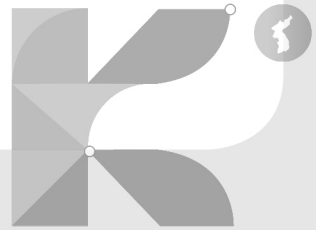
통일지향 행동의도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모두에서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이나 부정 정서 차원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통일에 대한 긍정 정서에 의해 강하게 예측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태도의 두 가지 차원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의 서로 구분되는 특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다. 예를 들어,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사전 지식 및 신념들의 총화로서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반면 정서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정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는 인지 기반 태도에 비해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표현된다.⁸⁷⁾ 특히 정서 경험 중에서도 활성화 수준이 높은 정서는 정서를 유발한 대상에 대한 접근(긍정 정서의 경우) 또는 회피(부정 정서의 경우) 행동지향성을 높인다. 따라서 통일지향 행동의 경우 강한 활성화 정서 경험에 의해, 특히 접근 행동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강한 긍정적 정서 경험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ATU-K 통일태도가 기존 척도로 측정된 태도(통일연구원 통일태도와 단일문화 통일태도)보다 모든 준거변수들에 대하여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 즉, ATU-K 척도가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87) Kari Edwards,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pp. 202~216; Alice H. Eagly and Shelly Chaiken, "The Advantages of an Inclusive Definition of Attitude," pp. 582~602.

가설적 구성개념의 하위차원들을 신뢰롭게 측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통일인식조사에서 사용하던 측정 도구들에 비해 통일 관련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종합논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학술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 일부 공공기관과 언론사, 연구소에서 매년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통일 관련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기 보다는 조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태도를 측정하거나 통일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간편 문항들을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기존 조사들에서 사용한 통일태도 측정 도구 및 방식은 분명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 또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를 단일 문항으로 묻는 경우, 남북한 통일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으나 통일태도라는 추상적 구성개념의 복잡한 구조 및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이 값들을 취합하여 통일태도의 지표로 삼은 조사들의 경우, 각 문항들이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인지적 신념과 감정, 행동 경향성 등 다양한 단면들을 측정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단면들을 모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 통일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할 때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구성개념을 명확하게 개념화하지 않고, 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이론-기반 태도척도를 구성하여 이를 타당화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 ATU-K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태도 이론들과 집단 간 화해의 심리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ATU-K 척도를 개발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인지와 정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지는 통일과 연합된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에 대한 신념들로 구분되고, 정서는 통일을 떠올릴 때 경험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태도가 다성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성개념이며, ATU-K 척도를 사용하여 통일태도의 구체적인 속성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는 기존 통일연구원 조사도구와 개념적으로 수렴되는 한편, 북한 및 통일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다룬 유관변수들(예: 정치적 가치, 사회적 지배경향성, 보수적 정치성향, 민족정체성, 공동내집단인식)과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개념적으로 변별되었다. 동시에 ATU-K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관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2. ATU-K 척도의 예측력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통일에 대한 다차원의 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에 더해, 통일 관련 주요 준거변수들에 대한 예측력도 높았다. 기존 통일 관련 조사도구들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오류 중 하나는 통일에 관한 태도와 이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의 구체성 수준이 부합하지 않는 문항들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도는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라는 추상적/전반적 수준에서 측정하고, 조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은 통일에 관한 정보습득 의도, 교육/계몽 프로그램 참여의도, 통일경비 부담의도, 통일 관련 정책 지지 등과 같은 구체적 수준의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태도-행동 측정의 구체성 수준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추상적/전반적 태도를 통해 통일과 관련된 국민들의 구체적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TU-K 척도는 통일의 표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도와 행동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존 도구들에 비해 개념적, 방법론적으로 발전된 도구이다.

또한 ATU-K 척도는 기존 조사도구들에 비해서 예측력이 높았다. 그리고 ATU-K 척도 총점을 이용한 분석에 더해서 통일태도의 세 가지 인지 차원과 두 가지 정서 차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ATU-K 척도의 하위차원들은 통일 관련 정책지지와 행동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U-K 척도를 통일 관련 정책 입안 및 실행, 교육 장면에 활용함에 있어서 통일태도의 특정 하위 차원의 개념적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초점화된 전략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ATU-K 척도의 실용적·학술적 함의

ATU-K 척도가 다른 통일태도 측정도구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강점은 이론-기반으로 개발된 표준화된 척도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한 태도라는 가설적 구성개념의 핵심 요인을 주요 태도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한 후 각각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에 따라 장치 ATU-K 척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양화시켜 비교하거나, 시간의 경과 또는 외부 상황요인의 영향에 따라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태도 변화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다. ATU-K 척도를 활용한 개인 간, 개인 내 통일태도 비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통일에 대한 표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타당화된 ATU-K 척도를 각종 조사와 연구에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통일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응답자 집단을 구분한 것처럼, 다양한 하위 집단들로부터 취합한 통일태도를 비교하여 통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집단별 통일 관련 규범 및 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치 국내에서 ATU-K 척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이나 남북 관련 정세변화, 외부 상황적 요인 등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다.

둘째, ATU-K 척도는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일태도의 준거변수들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통일태도 형성 과정이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 분단과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일이라는 대상은 보다 정서적인 반응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을 수 있다. 분단은 민족의 ‘아픔’이고 ‘슬픔’이며, 통일은 민족의 ‘희망’이자 ‘소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일과 연합된 이득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일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통일이 가져올 개인적, 사회적 이득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통일태도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이나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도록 호소하는 것보다, 통일로 인한 이점들을 들어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감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와 인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과도 일관된다. 예를 들어 정서-기반 태도의 경우 인지적인 방식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이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⁸⁸⁾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도는 정서 차원에 의해서 예측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통일 관련 행동을 실행할 의도를 형성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동기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통일의 이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보다는 통일에 관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ATU-K 척도는 통일태도의 두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통일 관련 담론을

88) Kari Edwards,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pp. 202~216.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관련 공공정책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ATU-K 척도는 통일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결과들을 다양한 단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단순히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저에 있는 구체적인 신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통일에 관해 유사한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 간에도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한국의 국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통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는 것일 수 있다. 어떤 신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더 효과적인 설득 및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북 지원/협력 정책의 여러 단면들과 이에 상반되는 적대적 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통일 관련 신념의 하위차원들에 따라 정책 지지 정도를 예측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일태도의 신념 중 국력 강화 차원은 통일 정책 중에서도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통일 정책 지지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통일교육에 관한 정책만 지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적대적 정책에 대한 태도는 부정 정서에 의해 강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대적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설득하기보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통일 정책 입안이나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유

한 통일 관련 신념의 다양한 단면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나 통일지향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끝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유관변수들을 북한과 통일태도의 선행요인(예: 정치적 성향, 민족정체성 등)과 결과요인(예: 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 통일지향 행동)으로 구분하고, 통일태도와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통일태도의 형성 및 결과를 설명하는 통합적 이론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장래 과제

가. 자기보고식 방법론의 한계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개인의 태도를 직접 물어서 측정하는 자기보고식(self-report) 질문지법은 측정 절차가 효율적이고 결과 해석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태도를 다루는 학술연구뿐 아니라 대단위 여론 조사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방법론을 활용할 때에는 이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별히 민감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경우 응답자들이 본인의 태도를 스스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정확한 태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기존의 일반적인 태도 척도는 긍정-부정 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응답자로 하여금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유하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그로부터 태도를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의 태도가 아닌, 외부 환경적 영향이나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⁸⁹⁾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통일태도를 측정하는 것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 우려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암묵적 측정 기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태도의 암묵적 측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해 응답자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 때 응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반응을 해석하거나 의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할 만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더 솔직하고 정확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⁹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에 더해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 강도(strength)를 함께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태도 강도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와 그 대상에 대한 태도의 ‘강도’는 독립적인 개념이다. 즉,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응답자가 통일에 대해 ‘강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강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태도에 대한 확신성이 높을수록, 그 태도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수록, 그 태도를 쉽게 마음에 떠올릴 수 있을수록, 태도 대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 정보를 지니고 있을수록, 그리

89) Allen Louis Edwards, *Techniques of Attitude Scale Constru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7), pp. 1~18.

90) Gerd Bohner and Nina Dickel,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2 (2011), pp. 391~417.

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양가적 감정을 덜 느낄수록 강하다. 그리고 강한 태도는 약한 태도에 비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설득시도에 저항하며, 행동을 잘 예측하고,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⁹¹⁾

나. ATU-K 척도 준거타당도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중에서도 예측변수와 준거변수를 동시에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공준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책지지와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가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와 통일지향 행동에 관여할 의도를 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통일 관련 행동을 실행하는지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ATU-K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조사 이후에 실제로 통일 관련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 통일에 대한 표상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관해 응답자들이 구성하는 인지적 표상에서의 변산으로 인한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통일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절차는 가설적 구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연구 결과의 신

91) Jon A. Krosnick and Richard E. Petty, "Attitude Strength: An Overview," in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eds. Richard E. Petty and Jon A. Krosnick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4), pp. 1~24.

되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규정한 형태의 통일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행해진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을 단일한 국가의 수립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국내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에 통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상과 신념의 구조가 부침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관련 표상의 역동성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추가 연구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지범 외.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_____.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박주화·이민규·조원빈.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이종승. 『표준화 심리검사』.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탁진국.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 Cohen, Jacob.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1988.
-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The Psychology of Attitudes*. San Diego, California: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93.
- Edwards, Allen L.. *Techniques of Attitude Scale Constru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7.
- Fishbein, Martin and Icek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1975.

Tropp, Linda R.,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 논문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박인조·민경환.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1호, 2005.

윤광일.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제62권 4호, 2019.

은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전란영·김희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3호, 2019.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5집 2호, 2013.

황세영·강정석·강혜자.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1권 3호, 2017.

Ajzen, Icek.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In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edited by Anthony R. Pratkanis, Steven J. Breckler, and Anthony G. Greenwald. London: Psychology Press, 1989.

_____.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edited by Julius Kuhl and

- J. Beckmann. New York: Springer, 1985.
- _____.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1991.
- _____.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2001.
- Ajzen, Icek and Martin Fishbein.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84, 1977.
- _____. "Attitudes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asoned and Automatic Process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1, 2000.
- _____. "Scaling and Testing Multiplicative Combinations in the Expectancy-value Model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8, 2008.
- Altemeyer, Bob.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 Alwin, Duane F. and Jon A. Krosnick. "The Reliability of Survey Attitude Measurement: The Influence of Question and Respondent Attribut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 20, 1991.
- Bar-Tal, Danie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Bohner, Gerd and Nina Dickel.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2, 2011.
- Braithwaite, Valerie. "Harmony and Security Value Orientations in Political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1997.
- _____. "The Value Orientations Underlying Liberalism-conservat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5, 1998.
- Cohrs, J. Christopher et al.. "The Motivational Base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elations to Values and Attitudes i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2001,"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vol. 31, 2005.
- Cumming, Geoff. "Inference by Eye: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Statistics in Medicine*, vol. 28, 2009.
- Dovidio, John F.,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2009.
- Duckitt, John and Chris G. Sibley. "Personality, Ideological Attitudes, and Group Identity as Predictors of Political Behavior in Majority and Minority Ethnic Groups," *Political Psychology*, vol. 37, issue 1, 2016.
-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The Advantages of an Inclusive Definition of Attitude," *Social Cognition*, vol. 25, 2007.
- Edwards, Kari.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1990.
- Fabrigar, Leandre R., Tara K. MacDonald, and Duane T. Wegener. “The Structure of Attitudes.” In *The Handbook of Attitudes*, edited by Dolores Albarracin, Blair T. Johnson, and Mark P. Zanna.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5.
- Gardner, Paul L.. “The Dimensionality of Attitude Scales: A Widely Misunderstood Idea.”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 18, 1996.
- Ho, Arnold K.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2015.
- Hogg, Michael A. and Sarah C. Hains.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1996.
- Krosnick, Jon A. and Richard E. Petty. “Attitude Strength: An Overview.” In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edited by Richard E. Petty and Jon A. Krosnick.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4.
- Krosnick, Jon A., Charles M. Judd, and Bernd Wittenbrink.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In *Handbook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edited by Dolores Albarracin, Blair T. Johnson, and Mark P. Zanna. Mahwah, NJ: Erlbaum, 2005.

- Lee, Woo Young and Ha Yeon Lee.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istorical Social Research*. vol. 44, 2019.
- Likert, Rensis.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vol. 22, no. 140, 1932.
- McGuire, William J..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6, 1985.
- Noor, Masi, Rupert James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 Pratto, Felicia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1994.
- Rosenberg, Milton J., and C. I. Hovland.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edited by C. I. Hovland and Milton J. Rosenber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 Russell, James A.. "Emotion, Core Affect, and Psychological Construction." *Cognition and Emotion*. vol. 23, 2009.
- Russell, James A. and Geraldine Pratt. "A Description of the Affective Quality Attributed to Environ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1980.
- Schwarz, Norbert. "Attitude Construction: Evaluation in Context." *Social Cognition*. vol. 25, 2007.
- Schwarz, Norbert and Daphna Oyserman. "Asking Questions

- about Behavior: Cognition, Communication and Questionnaire Construction.”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vol. 22, 2001.
- Shnabel, Nurit et al.,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2009.
- Skitka, Linda J. et al.,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2002.
- Stammel, Nadine et al., “The Readiness to Reconcile Inventory: Assessing Attitudes toward Reconciliation in Victims of War an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33, 2017.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 Worchel,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79.
- Van der Pligt, Joop and Nanne K. de Vries, “Belief Importance in Expectancy-value Models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8, 1998.
- Wenzel, Michael, Amélie Mummendey, and Sven Waldzus,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2008.
- White, Katherine R. et al., “The Resistance to Change-beliefs

Scale: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servative Ide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6,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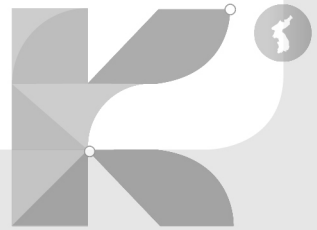
Zajonc, Robert B..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vol. 35, 1980.

Zakrisson, Ingrid.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9, 2005.

3. 기타 자료

Lee, Ihno A. and Kristopher J. Preacher. Calculation for the Test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Dependent Correlations with One Variable in Common(computer software) <<http://quantpsy.org/>>.

부록



1. 예비조사 전체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 조사에서 묻는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응답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모든 문항에 귀하의 의견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인구통계 자료는 참가자 전체에 대한 기술적 통계(예: 평균 나이, 성별 구성)를 파악할 목적으로만 수집합니다.

이 조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될 수 있고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전문잡지 등 학술정보로 출판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이며, 귀하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도중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연구담당자인 성균관대학교 이하연 연구원(010-3430-3746)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연구참가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02-2023-8056)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내문을 읽고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학술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출생연도는 무엇입니까? ()년

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남북한 통일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

A1. 아래에는 남북한 통일에 관한 다양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설명문을 읽고, (1) 해당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2) 해당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해주시시오.
[보기 문항별 1개씩 선택]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4)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5)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6) 남북한 통일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야기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7) 남북한 통일은 사회문제(예: 이념 갈등, 가치관 혼란, 양극화 등)를 증가시킨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크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A2. 귀하가 남북한 통일을 떠올렸을 때 아래 제시되는 각 정서가 얼마나 느껴지는지 응답해주시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보통	다소 느껴진다	상당히 느껴진다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1) 거부감이 든다	1	2	3	4	5	6	7
(2) 화가 난다	1	2	3	4	5	6	7
(3) 불안하다	1	2	3	4	5	6	7
(4) 무섭다	1	2	3	4	5	6	7
(5) 역겹다	1	2	3	4	5	6	7
(6) 설레다	1	2	3	4	5	6	7
(7) 즐겁다	1	2	3	4	5	6	7
(8) 반갑다	1	2	3	4	5	6	7
(9) 기쁘다	1	2	3	4	5	6	7
(10) 행복하다	1	2	3	4	5	6	7

다음에는 귀하의 평소 신념과 태도를 묻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물음을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1. 아래 각 설명문이 귀하의 평소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답해주시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한다	상당히 일치한다	완전히 일치한다
(1) 주변이 안전하여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2)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3) 전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4) 주위 사람들의 안부를 신경 쓰고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5)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6)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7)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8)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고, 스스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9)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10) 부와 명성을 얻고, 재산과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6

B2. 정부는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합니다.

정부의 국내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등 귀하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아래 각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다소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타인의 행복한 삶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1	2	3	4	5	6	7
(2) 국제적 협력 (모든 관련 국가가 상호 이해를 위해 협력하는 것)	1	2	3	4	5	6	7
(3) 사회적 진보와 개혁 (삶의 방식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1	2	3	4	5	6	7
(4)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1	2	3	4	5	6	7
(5) 경제적 평등의 향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줄이는 것)	1	2	3	4	5	6	7
(6) 자연 환경의 보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	1	2	3	4	5	6	7
(7) 국가의 위대함 (강하고, 단결된, 독립적인 강력한 국가)	1	2	3	4	5	6	7
(8) 국가의 경제적 발전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	1	2	3	4	5	6	7
(9) 법치 (범죄자를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보호하는 것)	1	2	3	4	5	6	7
(10) 국가 안보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	1	2	3	4	5	6	7

B3-1. 아래 설명문들을 읽고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많은 선동가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자들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	1	2	3	4	5	6	7
(2)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1	2	3	4	5	6	7
(3)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1	2	3	4	5	6	7
(4)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1	2	3	4	5	6	7
(5)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1	2	3	4	5	6	7
(6)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1	2	3	4	5	6	7
(7)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1	2	3	4	5	6	7
(8)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	1	2	3	4	5	6	7

B3-2. (계속) 아래 설명문들을 읽고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 해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이상적인 사회란 여러 집단 간에 상대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사회이다.	1	2	3	4	5	6	7
(2)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열등할 수 밖에 없다.	1	2	3	4	5	6	7
(3) 모든 집단 간에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	3	4	5	6	7
(4) '집단 간 평등'이 우리 사회의 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5) 하위층 집단도 상위층 집단만큼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6	7
(6) 어떤 특정 집단도 한 사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7)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1	2	3	4	5	6	7
(8)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도 평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6	7

B4. 한국인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민족 정체성)과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들을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십시오.

	전혀 느끼지 않는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다소 느끼지 않는다	보통	다소 느낀다	상당히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1) 당신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낍니까?	1	2	3	4	5	6	7	8	9
(2) 당신은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낍니까?	1	2	3	4	5	6	7	8	9
(3) 당신은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1	2	3	4	5	6	7	8	9
(4) 당신은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낍니까?	1	2	3	4	5	6	7	8	9

C1. 아래에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주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설명문을 읽고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1	2	3	4	5	6	7
한국 정부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UN에 요청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UN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UN대북제재 위반이다.	1	2	3	4	5	6	7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1	2	3	4	5	6	7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D1. 아래에는 남북한 통일에 관하여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각 행동을 할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해주시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많다	상당히 많다	매우 많다
(1) 통일관련 시민단체나 NGO에게 정기적 기부를 한다.	1	2	3	4	5	6	7
(2)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어 본다.	1	2	3	4	5	6	7
(3)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4) 통일을 위해서 소소한 경제적 부담(예: 세금 인상 등)을 진다	1	2	3	4	5	6	7
(5)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6) 북한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글을 나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	1	2	3	4	5	6	7
(7)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일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다.	1	2	3	4	5	6	7
(8)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통일 지지 모임을 갖는다.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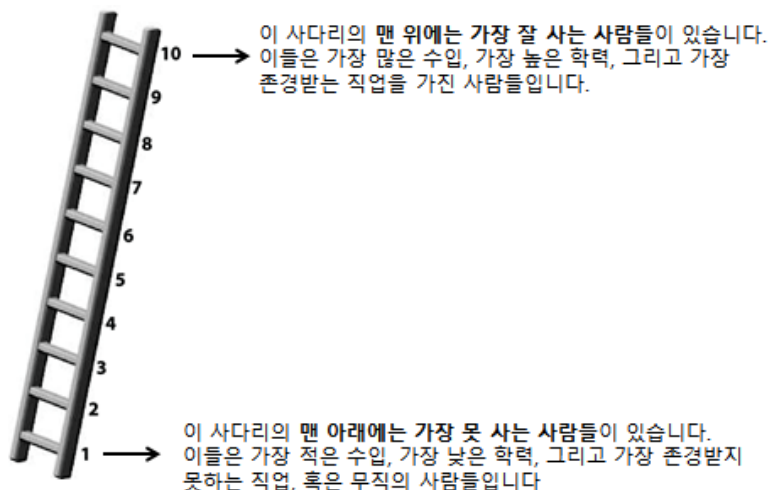
다음에는 인구통계정보(예: 학력, 직업 등)를 비롯한 귀하의 개인적 특징에 관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설명들에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E1. 아래 제시되는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느낌,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오.

귀하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예: 낙태법 폐지, (1) 차별금지법 등)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귀하는 자신이 경제적 이슈(예: 세금법, 복지 (2) 제도 등)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3)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4) 귀하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E2. 아래 제시된 사다리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다리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높은 층의 사람들과 가깝습니다. 이 사다리의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아래층의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보기) 맨 아래(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맨 위(10층)



응답자 특성

**DQ1.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적으로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찬성	전적으로 찬성
1	2	3	4	5	6	7

DQ2. 귀하의 출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6) 기타()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농업/수산업/축산업
 (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자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기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8) 전업주부
 (9)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0) 군인/경찰
 (11) 무직, 정년, 휴직
 (12) 기타()

DQ5. 귀하의 종교나 신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종교없음 (5) 기타()

DQ6. 귀하의 월 평균 가족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250만 원 미만 (2) 250만 원~499만 원 (3) 500만 원~749만 원
(4) 750만 원~999만 원 (5) 1,000만 원 이상

DQ7. 귀하가 현재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개 선택]

(1) 더불어민주당 (2) 미래통합당 (3) 민생당 (4) 정의당
(5) 우리공화당 (6) 국민의당 (7) 기타 ()

DQ8.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1개 선택]

(1)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2) 만난 경험이 있음 (3) 매월 만나고 있음
(4) 매주 만나고 있음 (5) 매일 만나고 있음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예비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성별	빈도	비율 (%)
남성	511	51.1
여성	489	48.9
전체	1000	100.0

연령대	빈도	비율 (%)
만 19~29세	183	18.3
만 30~39세	188	18.8
만 40~49세	222	22.2
만 50~59세	235	23.5
만 60~69세	172	17.2
전체	1000	100.0

학력	빈도	비율 (%)
중학교 졸업 이하	4	0.4
고등학교 졸업	229	22.9
전문대 졸업	142	14.2
대학교 졸업	514	51.4
대학원 졸업 이상	111	11.1
전체	1000	100.0

거주지역	빈도	비율 (%)
서울	218	21.8
부산	85	8.5
대구	63	6.3
인천	48	4.8
광주	30	3.0
대전	34	3.4
울산	23	2.3

거주지역	빈도	비율 (%)
세종	1	0.1
경기	156	15.6
강원	35	3.5
충북	34	3.4
충남	46	4.6
전북	44	4.4
전남	43	4.3
경북	59	5.9
경남	68	6.8
제주	13	1.3
전체	1000	100.0

출신지역	빈도	비율 (%)
서울	194	19.4
부산	68	6.8
대구	47	4.7
인천	59	5.9
광주	28	2.8
대전	28	2.8
울산	23	2.3
세종	6	0.6
경기	258	25.8
강원	29	2.9
충북	30	3.0
충남	40	4.0
전북	34	3.4
전남	33	3.3
경북	47	4.7
경남	64	6.4
제주	12	1.2
전체	1000	100.0

직업	빈도	비율 (%)
농업/수산업/축산업	7	0.7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사 등)	73	7.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54	5.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30	3.0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421	42.1
경영/관리직(6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51	5.1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77	7.7
전업주부	125	12.5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73	7.3
군인/경찰	5	0.5
무직, 정년, 휴직	75	7.5
파트타임어	1	0.1
계약직	3	0.3
단순노무직	5	0.5
전체	1000	100.0

월 평균 가족 소득	빈도	비율 (%)
250만 원 미만	182	18.2
250만 원 ~ 499만 원	412	41.2
500만 원 ~ 749만 원	238	23.8
750만 원 ~ 999만 원	112	11.2
1,000만 원 이상	56	5.6
전체	1000	100.0

종교	빈도	비율 (%)
기독교	200	20.0
불교	148	14.8
천주교	107	10.7
종교없음	539	53.9
기타	6	0.6
전체	1000	100.0

지지 정당	빈도	비율 (%)
더불어민주당	526	52.6
미래통합당	140	14.0
민생당	3	0.3
정의당	56	5.6
우리공화당	3	0.3
국민의당	79	7.9
기타	13	1.3
없음	171	17.1
모름	9	0.9
전체	1000	100.0

북한이탈주민 접촉 여부	빈도	비율 (%)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713	71.3
만난 경험이 있음	275	27.5
매월 만나고 있음	7	0.7
매주 만나고 있음	2	0.2
매일 만나고 있음	3	0.3
전체	1000	100.0

3. 예비조사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표 1-1〉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0.00	0.87

〈표 1-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남성 (n=511)	0.11	0.92
	여성 (n=489)	-0.11	0.80

〈표 1-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19~29세 (n=183)	-0.25	0.81
	30~49세 (n=410)	-0.04	0.89
	50~69세 (n=407)	0.15	0.84

〈표 1-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250만 원 미만 (n=182)	-0.08	0.88
	250~499만 원 (n=412)	0.01	0.89
	500만 원 이상 (n=406)	0.03	0.84

〈표 2-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28.54	11.00

〈표 2-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남성 (n=511)	29.39	11.57
	여성 (n=489)	27.65	10.30

〈표 2-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19~29세 (n=183)	25.35	10.02
	30~49세 (n=410)	28.50	11.14
	50~69세 (n=407)	30.00	10.99

〈표 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250만 원 미만 (n=182)	27.24	11.43
	250~499만 원 (n=412)	28.87	10.97
	500만 원 이상 (n=406)	28.78	10.81

〈표 3-1〉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4.26	1.45

〈표 3-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남성 (n=511)	4.41	1.49
	여성 (n=489)	4.11	1.39

〈표 3-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19~29세 (n=183)	3.72	1.46
	30~49세 (n=410)	4.20	1.44
	50~69세 (n=407)	4.58	1.37

〈표 3-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250만 원 미만 (n=182)	4.07	1.45
	250~499만 원 (n=412)	4.30	1.48
	500만 원 이상 (n=406)	4.31	1.42

〈표 4-1〉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3.31	1.27

〈표 4-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남성 (n=511)	3.14	1.31
	여성 (n=489)	3.49	1.20

〈표 4-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19~29세 (n=183)	3.41	1.26
	30~49세 (n=410)	3.41	1.30
	50~69세 (n=407)	3.17	1.24

〈표 4-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250만 원 미만 (n=182)	3.32	1.24
	250~499만 원 (n=412)	3.34	1.30
	500만 원 이상 (n=406)	3.29	1.25

〈표 5-1〉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5.36	0.81

〈표 5-2〉 성별에 따른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남성 (n=511)	5.28	0.85
	여성 (n=489)	5.45	0.76

〈표 5-3〉 연령대에 따른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19~29세 (n=183)	5.23	0.80
	30~49세 (n=410)	5.26	0.86
	50~69세 (n=407)	5.53	0.74

〈표 5-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250만 원 미만 (n=182)	5.44	0.83
	250~499만 원 (n=412)	5.35	0.82
	500만 원 이상 (n=406)	5.34	0.79

〈표 6-1〉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5.88	0.91

〈표 6-2〉 성별에 따른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남성 (n=511)	5.79	0.95
	여성 (n=489)	5.97	0.85

〈표 6-3〉 연령대에 따른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19~29세 (n=183)	5.62	0.91
	30~49세 (n=410)	5.72	0.96
	50~69세 (n=407)	6.16	0.78

〈표 6-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250만 원 미만 (n=182)	5.86	0.97
	250~499만 원 (n=412)	5.87	0.94
	500만 원 이상 (n=406)	5.89	0.85

〈표 7-1〉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4.73	0.98

〈표 7-2〉 성별에 따른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남성 (n=511)	4.70	0.97
	여성 (n=489)	4.76	0.98

〈표 7-3〉 연령대에 따른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19~29세 (n=183)	4.33	0.98
	30~49세 (n=410)	4.52	0.93
	50~69세 (n=407)	5.11	0.88

〈표 7-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250만 원 미만 (n=182)	4.82	1.05
	250~499만 원 (n=412)	4.72	0.94
	500만 원 이상 (n=406)	4.69	0.98

〈표 8-1〉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3.27	0.74

〈표 8-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남성 (n=511)	3.33	0.78
	여성 (n=489)	3.20	0.70

〈표 8-3〉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19~29세 (n=183)	3.32	0.86
	30~49세 (n=410)	3.36	0.72
	50~69세 (n=407)	3.15	0.69

〈표 8-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250만 원 미만 (n=182)	3.19	0.79
	250~499만 원 (n=412)	3.26	0.74
	500만 원 이상 (n=406)	3.31	0.72

〈표 9-1〉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6.05	1.56

〈표 9-2〉 성별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남성 (n=511)	6.07	1.70
	여성 (n=489)	6.01	1.41

〈표 9-3〉 연령대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19~29세 (n=183)	5.23	1.67
	30~49세 (n=410)	5.86	1.45
	50~69세 (n=407)	6.60	1.41

〈표 9-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250만 원 미만 (n=182)	5.96	1.55
	250~499만 원 (n=412)	5.99	1.60
	500만 원 이상 (n=406)	6.14	1.52

〈표 10-1〉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4.00	1.12

〈표 10-2〉 성별에 따른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남성 (n=511)	3.92	1.28
	여성 (n=489)	4.09	0.92

〈표 10-3〉 연령대에 따른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19~29세 (n=183)	4.42	1.06
	30~49세 (n=410)	3.92	1.02
	50~69세 (n=407)	3.90	1.19

〈표 10-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대북지원/협력에 대한 태도	250만 원 미만 (n=182)	4.12	1.16
	250~499만 원 (n=412)	3.97	1.08
	500만 원 이상 (n=406)	3.99	1.14

〈표 11-1〉 통일지향 행동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0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2.51	1.25

〈표 11-2〉 성별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남성 (n=511)	2.66	1.27
	여성 (n=489)	2.36	1.21

〈표 11-3〉 연령대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19~29세 (n=183)	2.39	1.34
	30~49세 (n=410)	2.38	1.26
	50~69세 (n=407)	2.69	1.18

〈표 11-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250만 원 미만 (n=182)	2.49	1.27
	250~499만 원 (n=412)	2.49	1.22
	500만 원 이상 (n=406)	2.54	1.28

4. 본조사A 전체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 조사에서 묻는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응답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모든 문항에 귀하의 의견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인구통계 자료는 참가자 전체에 대한 기술적 통계(예: 평균 나이, 성별 구성)를 파악할 목적으로만 수집합니다.

이 조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될 수 있고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전문잡지 등 학술정보로 출판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연구담당자인 성균관대학교 이하연 연구원(010-3430-3746)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연구참가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02-2023-8056)”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도중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내문을 읽고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학술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출생연도는 무엇입니까? ()년

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남북한 통일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

다음에는 **남북한 통일(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 행동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항들에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1. 아래에는 남북한 통일에 관한 다양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설명문을 읽고, (1) 해당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2) 해당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해주시요.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상당히 크다	매우 크다
	1	2	3	4	5	6	7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7

A2. 귀하가 남북한 통일을 떠올렸을 때 아래 제시되는 각 정서가 얼마나 느껴지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보통	다소 강하게 느껴진다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1) 거부감이 든다	1	2	3	4	5
(2) 화가 난다	1	2	3	4	5
(3) 불안하다	1	2	3	4	5
(4) 무섭다	1	2	3	4	5
(5) 역겹다	1	2	3	4	5
(6) 설레다	1	2	3	4	5
(7) 즐겁다	1	2	3	4	5
(8) 반갑다	1	2	3	4	5
(9) 기쁘다	1	2	3	4	5
(10) 행복하다	1	2	3	4	5

A3. 아래 제시되는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2)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유럽계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3)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1	2	3	4	5
(4)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1	2	3	4	5
(5)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5
(6)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1	2	3	4	5
(7)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1	2	3	4	5
(8)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1	2	3	4	5
(9)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1	2	3	4	5
(10)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1	2	3	4	5
(11)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1	2	3	4	5

다음에는 귀하의 평소 신념과 태도를 묻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물음을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1. 정부는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합니다. 정부의 국내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등 귀하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아래 각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보통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타인의 행복한 삶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	1	2	3	4	5
(2) 국제적 협력 (모든 관련 국가가 상호 이해를 위해 협력하는 것)	1	2	3	4	5
(3) 사회적 진보와 개혁 (삶의 방식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1	2	3	4	5
(4)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1	2	3	4	5
(5) 경제적 평등의 향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줄이는 것)	1	2	3	4	5
(6) 자연 환경의 보존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원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	1	2	3	4	5
(7) 국가의 위대함 (강하고, 단결된, 독립적인 강력한 국가)	1	2	3	4	5
(8) 국가의 경제적 발전 (국가적 경제적 발전과 번영)	1	2	3	4	5
(9) 법치 (범죄자를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보호하는 것)	1	2	3	4	5
(10) 국가 안보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	1	2	3	4	5

B2-1. 아래 설명문들을 읽고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과거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전락들은 대부분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다.	1	2	3	4	5
(2) 사회 변화는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1	2	3	4	5
(3) 기존에 수립된 규칙들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1	2	3	4	5
(4) 빠르거나 급진적인 변화는 비합리적이며 위험하다.	1	2	3	4	5
(5) 사회의 전통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	2	3	4	5
(6) 갑작스러운 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다.	1	2	3	4	5
(7)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	2	3	4	5
(8)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급격한 변화도 용인할 수 있다.	1	2	3	4	5
(9) 전통을 고수하면 폐쇄적인 사회가 된다.	1	2	3	4	5
(10) 사회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1	2	3	4	5

B2-2. (계속) 아래 설명문들을 읽고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이상적인 사회란 여러 집단 간에 상대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사회이다.	1	2	3	4	5
(2)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열등할 수 밖에 없다.	1	2	3	4	5
(3) 모든 집단 간에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	3	4	5
(4) '집단 간 평등'이 우리 사회의 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2	3	4	5
(5) 하위층 집단도 상위층 집단만큼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6) 어떤 특정 집단도 한 사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7)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1	2	3	4	5
(8)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도 평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B3. 아래 제시되는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느낌,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매우 진보적	상당히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적	상당히 보수적	매우 보수적
(1) 귀하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예: 낙태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자신이 경제적 이슈(예: 세금법, 복지제도 등)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4-1. 한국인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민족 정체성)과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들을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느끼지 않는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	다소 강하게 느낀다	상당히 강하게 느낀다	매우 강하게 느낀다
(1) 당신은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1	2	3	4	5	6	7
(2) 당신은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1	2	3	4	5	6	7
(3) 당신은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1	2	3	4	5	6	7
(4) 당신은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1	2	3	4	5	6	7

B4-2. 아래 설명문들을 읽고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	1	2	3	4	5	6	7
(2)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	2	3	4	5	6	7
(3)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2	3	4	5	6	7

응답자 특성

**DQ1.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적으로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찬성	전적으로 찬성
1	2	3	4	5	6	7

DQ2. 귀하의 출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6) 기타()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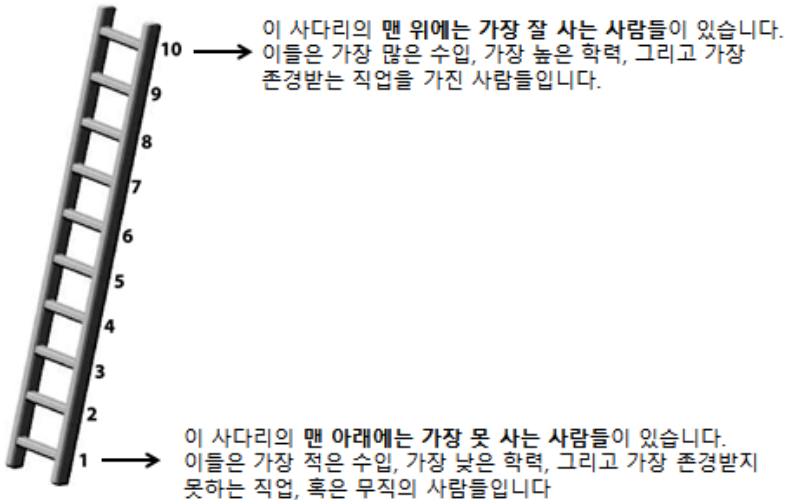
- (1) 농업/수산업/축산업
 (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자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기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8) 전업주부
 (9)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0) 군인/경찰
 (11) 무직, 정년, 휴직
 (12) 기타()

DQ5. 귀하의 종교나 신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종교없음 (5) 기타()

DQ6. 아래 제시된 사다리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다리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높은 층의 사람들과 가깝습니다. 이 사다리의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아래층의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보기) 맨 아래(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맨 위(10층)



DQ7. 귀하의 월 평균 가족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250만 원 미만 (2) 250만 원 ~499만 원 (3) 500만 원~749만 원
(4) 750만 원~999만 원 (5) 1,000만 원 이상

DQ8. 귀하가 현재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더불어민주당 (2) 미래통합당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6) 기타 ()

DQ9.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1)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2) 만난 경험이 있음 (3) 매월 만나고 있음
(4) 매주 만나고 있음 (5) 매일 만나고 있음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 본조사B 전체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본 조사에서 묻는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또한 응답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모든 문항에 귀하의 의견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인구통계 자료는 참가자 전체에 대한 기술적 통계(예: 평균 나이, 성별 구성)를 파악할 목적으로만 수집합니다.

이 조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통일연구원 박주화 부연구위원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될 수 있고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전문잡지 등 학술정보로 출판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연구담당자인 성균관대학교 이하연 연구원(010-3430-3746)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연구참가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02-2023-8056)”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도중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내문을 읽고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통일연구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학술정보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출생연도는 무엇입니까? ()년

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A. 남북한 통일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

다음에는 **남북한 통일(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 행동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항들에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1. 아래에는 남북한 통일에 관한 다양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설명문을 읽고, (1) 해당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2) 해당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해주시요.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해당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매우 낮다	다소 낮다	중간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해당 결과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1	2	3	4	5

A2. 귀하가 남북한 통일을 떠올렸을 때 아래 제시되는 각 정서가 얼마나 느껴지는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보통	다소 강하게 느껴진다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1) 거부감이 든다	1	2	3	4	5
(2) 화가 난다	1	2	3	4	5
(3) 불안하다	1	2	3	4	5
(4) 무섭다	1	2	3	4	5
(5) 역겹다	1	2	3	4	5
(6) 설레다	1	2	3	4	5
(7) 즐겁다	1	2	3	4	5
(8) 반갑다	1	2	3	4	5
(9) 기쁘다	1	2	3	4	5
(10) 행복하다	1	2	3	4	5

A3. 아래 제시되는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2)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3)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1	2	3	4	5
(4)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1	2	3	4	5
(5)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5
(6)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1	2	3	4	5
(7)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 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1	2	3	4	5
(8)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1	2	3	4	5
(9)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1	2	3	4	5
(10)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1	2	3	4	5
(11)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1	2	3	4	5

B. 한반도 상황에 관한 생각과 느낌

다음에는 **한반도 상황에 관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묻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물음을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1. 아래에는 대북·통일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정책에 대하여 귀하가 지지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지지한다	상당히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1) 북한 내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1	2	3	4	5	6	7
(2) 남북간 코로나19 방역 협력	1	2	3	4	5	6	7
(3) 북한 내 민간인들을 위한 식량 및 식수 지원	1	2	3	4	5	6	7
(4) 이산가족 상봉 추진	1	2	3	4	5	6	7
(5) 남북 공연예술단의 공동 및 교류 공연	1	2	3	4	5	6	7
(6)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1	2	3	4	5	6	7
(7)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1	2	3	4	5	6	7
(8) 개성공단 사업 재개	1	2	3	4	5	6	7
(9)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한 시장 개방	1	2	3	4	5	6	7
(10)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1	2	3	4	5	6	7
(11) 한미군사훈련 축소	1	2	3	4	5	6	7
(12)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 및 적대행위 중지	1	2	3	4	5	6	7
(13) 남북한 화해와 사회통합에 관한 공감대 확산	1	2	3	4	5	6	7
(14) 남북한 상호 이해 증진에 관한 공감대 확산	1	2	3	4	5	6	7
(15)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1	2	3	4	5	6	7

B2. 아래에는 대북·통일 정책에 관한 설명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설명문에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다소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북한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1	2	3	4	5	6	7
(2)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 무력충돌을 해야 한다.	1	2	3	4	5	6	7
(3)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1	2	3	4	5	6	7
(4)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1	2	3	4	5	6	7
(5) 자주국방과 평화협상이 충돌한다면 자주국방을 선택해야 한다.	1	2	3	4	5	6	7
(6) 한미실무위원회를 통해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1	2	3	4	5	6	7

B3-1. 아래에는 남북한 통일에 관하여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각 행동을 할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	매우 강하다
(1)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찾아본다.	1	2	3	4	5	6	7
(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는 매체(예: 책, 영상물 등)를 찾아본다.	1	2	3	4	5	6	7
(3) 남북한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에 관한 자료나 주장을 찾아본다.	1	2	3	4	5	6	7
(4)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채널을 구독한다.	1	2	3	4	5	6	7
(5)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다루는 교육/문화행사(예: 강연, 전시, 세미나 등)에 참석한다.	1	2	3	4	5	6	7
(6)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단체의 소식을 받아본다.	1	2	3	4	5	6	7
(7)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토론을 시청한다.	1	2	3	4	5	6	7

B3-2. (계속) 아래에는 남북한 통일에 관하여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각 행동을 할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	매우 강하다
(1) 통일관련 시민단체나 NGO(비정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한다.	1	2	3	4	5	6	7
(2) 북한과의 교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3)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4) 북한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글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한다.	1	2	3	4	5	6	7
(5) 통일을 지지하는 온라인 게시글(댓글, SNS 등)을 작성한다.	1	2	3	4	5	6	7
(6)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1	2	3	4	5	6	7

응답자 특성

**DQ1.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적으로 반대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찬성	전적으로 찬성
1	2	3	4	5	6	7

DQ2. 귀하의 출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 졸업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6) 기타()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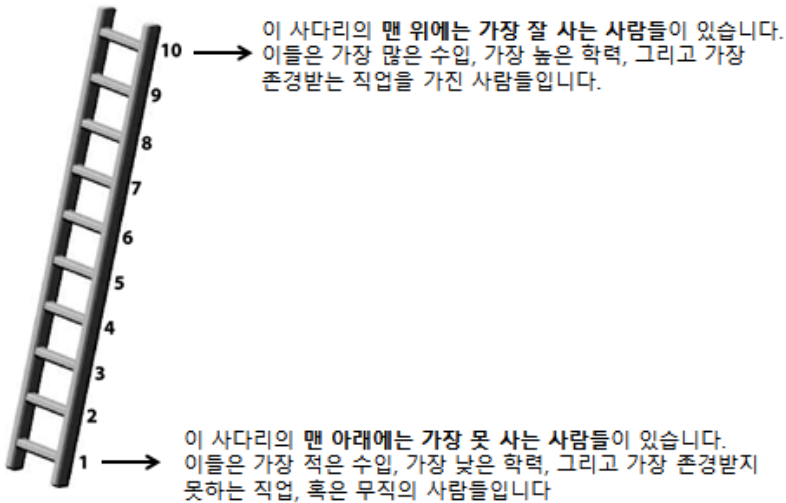
- (1) 농업/수산업/축산업
(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자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기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8) 전업주부
(9)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0) 군인/경찰
(11) 무직, 정년, 휴직
(12) 기타()

DQ5. 귀하의 종교나 신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개 선택]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종교없음 (5) 기타()

DQ6. 아래 제시된 사다리는 한국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다리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높은 층의 사람들과 가깝습니다. 이 사다리의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가장 아래층의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보기) 맨 아래(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맨 위(10층)



DQ7. 귀하의 월 평균 가족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1) 250만 원 미만 (2) 250만 원 ~499만 원 (3) 500만 원~749만 원
(4) 750만 원~999만 원 (5) 1,000만 원 이상

DQ8. 귀하가 현재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더불어민주당 (2) 미래통합당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6) 기타 ()

DQ9. 귀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1개 선택]

- (1)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2) 만난 경험이 있음 (3) 매월 만나고 있음
(4) 매주 만나고 있음 (5) 매일 만나고 있음

-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6. 본조사A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

성별	빈도	비율 (%)
남성	730	48.7
여성	770	51.3
전체	1500	100.0

연령대	빈도	비율 (%)
만 19~29세	260	17.3
만 30~39세	254	16.9
만 40~49세	331	22.1
만 50~59세	368	24.5
만 60~69세	287	19.1
전체	1500	100.0

학력	빈도	비율 (%)
중학교 졸업 이하	12	0.8
고등학교 졸업	304	20.3
전문대 졸업	203	13.5
대학교 졸업	822	54.8
대학원 졸업 이상	159	10.6
전체	1500	100.0

거주지역	빈도	비율 (%)
서울	280	18.7
부산	92	6.1
대구	73	4.9
인천	75	5.0
광주	48	3.2
대전	43	2.9
울산	42	2.8

거주지역	빈도	비율 (%)
세종	17	1.1
경기	388	25.9
강원	46	3.1
충북	52	3.5
충남	59	3.9
전북	49	3.3
전남	51	3.4
경북	67	4.5
경남	93	6.2
제주	25	1.7
전체	1500	100.0

출신지역	빈도	비율 (%)
서울	338	22.5
부산	102	6.8
대구	83	5.5
인천	54	3.6
광주	48	3.2
대전	40	2.7
울산	43	2.9
세종	8	0.5
경기	265	17.7
강원	50	3.3
충북	61	4.1
충남	65	4.3
전북	69	4.6
전남	68	4.5
경북	83	5.5
경남	100	6.7
제주	23	1.5
전체	1500	100.0

직업	빈도	비율 (%)
농업/수산업/축산업	13	0.9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사 등)	115	7.7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60	4.0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64	4.3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573	38.2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80	5.3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122	8.1
전업주부	232	15.5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88	5.9
군인/경찰	8	0.5
무직, 정년, 휴직	140	9.3
파트타임어	4	0.3
아파트 관리직	1	0.1
전체	1500	100.0

월 평균 가족 소득	빈도	비율 (%)
250만 원 미만	265	17.7
250만 원 ~ 499만 원	600	40.0
500만 원 ~ 749만 원	409	27.3
750만 원 ~ 999만 원	156	10.4
1,000만 원 이상	70	4.7
전체	1500	100.0

종교	빈도	비율 (%)
기독교	358	23.9
불교	182	12.1
천주교	136	9.1
종교없음	821	54.7
원불교	1	0.1
유교	2	0.1
전체	1500	100.0

7. 본조사B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

성별	빈도	비율 (%)
남성	745	49.7
여성	755	50.3
전체	1500	100.0

연령대	빈도	비율 (%)
만 19~29세	264	17.6
만 30~39세	256	17.1
만 40~49세	327	21.8
만 50~59세	360	24.0
만 60~69세	293	19.5
전체	1500	100.0

학력	빈도	비율 (%)
중학교 졸업 이하	12	0.8
고등학교 졸업	353	23.5
전문대 졸업	204	13.6
대학교 졸업	780	52.0
대학원 졸업 이상	151	10.1
전체	1500	100.0

거주지역	빈도	비율 (%)
서울	286	19.1
부산	100	6.7
대구	77	5.1
인천	81	5.4
광주	44	2.9
대전	50	3.3
울산	39	2.6

거주지역	빈도	비율 (%)
세종	19	1.3
경기	368	24.5
강원	44	2.9
충북	49	3.3
충남	58	3.9
전북	51	3.4
전남	50	3.3
경북	68	4.5
경남	93	6.2
제주	23	1.5
전체	1500	100.0

출신지역	빈도	비율 (%)
서울	327	21.8
부산	119	7.9
대구	95	6.3
인천	72	4.8
광주	47	3.1
대전	41	2.7
울산	37	2.5
세종	12	0.8
경기	228	15.2
강원	47	3.1
충북	53	3.5
충남	63	4.2
전북	77	5.1
전남	74	4.9
경북	79	5.3
경남	101	6.7
제주	28	1.9
전체	1500	100.0

직업	빈도	비율 (%)
농업/수산업/축산업	12	0.8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사 등)	117	7.8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75	5.0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58	3.9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596	39.7
경영/관리직(6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64	4.3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112	7.5
전업주부	218	14.5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03	6.9
군인/경찰	6	0.4
무직, 정년, 휴직	130	8.7
파트타임어	5	0.3
단순노무직	4	0.3
전체	1500	100.0

월 평균 가족 소득	빈도	비율 (%)
250만 원 미만	268	17.9
250만 원 ~ 499만 원	582	38.8
500만 원 ~ 749만 원	382	25.5
750만 원 ~ 999만 원	200	13.3
1,000만 원 이상	68	4.5
전체	1500	100.0

종교	빈도	비율 (%)
기독교	331	22.1
불교	213	14.2
천주교	142	9.5
종교없음	812	54.1
천제단성회	1	0.1
통일교	1	0.1
전체	1500	100.0

8. 본조사A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표 1-1〉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0.00	0.88

〈표 1-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남성 ($n=730$)	0.18	0.85
	여성 ($n=770$)	-0.18	0.86

〈표 1-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19~29세 ($n=260$)	-0.38	0.80
	30~49세 ($n=585$)	-0.02	0.85
	50~69세 ($n=655$)	0.17	0.87

〈표 1-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250만 원 미만 ($n=265$)	-0.04	0.93
	250~499만 원 ($n=600$)	-0.02	0.86
	500만 원 이상 ($n=635$)	0.03	0.87

〈표 2-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13.83	6.06

〈표 2-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남성 (n=730)	14.85	6.02
	여성 (n=770)	12.85	5.95

〈표 2-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19~29세 (n=260)	11.72	5.18
	30~49세 (n=585)	13.95	6.03
	50~69세 (n=655)	14.55	6.23

〈표 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250만 원 미만 (n=265)	13.77	6.24
	250~499만 원 (n=600)	13.71	6.06
	500만 원 이상 (n=635)	13.96	6.00

〈표 3-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15.32	6.63

〈표 3-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남성 (n=730)	16.01	6.63
	여성 (n=770)	14.66	6.56

〈표 3-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19~29세 (n=260)	13.67	6.48
	30~49세 (n=585)	15.30	6.61
	50~69세 (n=655)	15.99	6.60

〈표 3-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250만 원 미만 (n=265)	14.89	6.52
	250~499만 원 (n=600)	15.23	6.63
	500만 원 이상 (n=635)	15.58	6.67

〈표 4-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16.69	6.58

〈표 4-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남성 (n=730)	17.44	6.37
	여성 (n=770)	15.97	6.69

〈표 4-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19~29세 (n=260)	14.37	6.34
	30~49세 (n=585)	16.76	6.49
	50~69세 (n=655)	17.53	6.54

〈표 4-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250만 원 미만 (n=265)	15.98	6.69
	250~499만 원 (n=600)	16.43	6.66
	500만 원 이상 (n=635)	17.22	6.42

〈표 5-1〉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3.09	1.05

〈표 5-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남성 (n=730)	3.28	1.04
	여성 (n=770)	2.90	1.02

〈표 5-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19~29세 (n=260)	2.60	1.00
	30~49세 (n=585)	3.04	1.00
	50~69세 (n=655)	3.32	1.03

〈표 5-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250만 원 미만 (n=265)	3.04	1.07
	250~499만 원 (n=600)	3.06	1.04
	500만 원 이상 (n=635)	3.13	1.04

〈표 6-1〉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2.47	0.92

〈표 6-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남성 (n=730)	2.26	0.88
	여성 (n=770)	2.67	0.92

〈표 6-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19~29세 (n=260)	2.73	0.93
	30~49세 (n=585)	2.49	0.91
	50~69세 (n=655)	2.35	0.91

〈표 6-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250만 원 미만 (n=265)	2.48	1.03
	250~499만 원 (n=600)	2.48	0.91
	500만 원 이상 (n=635)	2.46	0.89

〈표 7-1〉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2.81	0.68

〈표 7-2〉 성별에 따른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남성 (n=730)	2.95	0.71
	여성 (n=770)	2.68	0.61

〈표 7-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19~29세 (n=260)	2.57	0.61
	30~49세 (n=585)	2.79	0.67
	50~69세 (n=655)	2.92	0.68

〈표 7-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250만 원 미만 (n=265)	2.87	0.69
	250~499만 원 (n=600)	2.81	0.67
	500만 원 이상 (n=635)	2.78	0.67

〈표 8-1〉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4.00	0.57

〈표 8-2〉 성별에 따른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남성 (n=730)	3.98	0.56
	여성 (n=770)	4.01	0.57

〈표 8-3〉 연령대에 따른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19~29세 (n=260)	3.84	0.62
	30~49세 (n=585)	3.97	0.55
	50~69세 (n=655)	4.08	0.54

〈표 8-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치적 가치: 조화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조화	250만 원 미만 (n=265)	4.06	0.59
	250~499만 원 (n=600)	4.01	0.56
	500만 원 이상 (n=635)	3.96	0.56

〈표 9-1〉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4.23	0.63

〈표 9-2〉 성별에 따른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남성 (n=730)	4.22	0.62
	여성 (n=770)	4.25	0.64

〈표 9-3〉 연령대에 따른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19~29세 (n=260)	4.00	0.70
	30~49세 (n=585)	4.16	0.58
	50~69세 (n=655)	4.39	0.61

〈표 9-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치적 가치: 안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치적 가치: 안전	250만 원 미만 (n=265)	4.28	0.62
	250~499만 원 (n=600)	4.23	0.61
	500만 원 이상 (n=635)	4.23	0.66

〈표 10-1〉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3.21	0.48

〈표 10-2〉 성별에 따른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남성 (n=730)	3.24	0.48
	여성 (n=770)	3.19	0.49

〈표 10-3〉 연령대에 따른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19~29세 (n=260)	3.10	0.50
	30~49세 (n=585)	3.15	0.45
	50~69세 (n=655)	3.31	0.49

〈표 10-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우익권위주의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우익권위주의	250만 원 미만 (n=265)	3.24	0.48
	250~499만 원 (n=600)	3.20	0.48
	500만 원 이상 (n=635)	3.22	0.49

〈표 11-1〉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2.49	0.53

〈표 11-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남성 (n=730)	2.50	0.56
	여성 (n=770)	2.49	0.51

〈표 11-3〉 연령대에 따른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19~29세 (n=260)	2.59	0.54
	30~49세 (n=585)	2.54	0.52
	50~69세 (n=655)	2.41	0.53

〈표 11-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적 지배경향성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배경향성	250만 원 미만 (n=265)	2.45	0.53
	250~499만 원 (n=600)	2.47	0.53
	500만 원 이상 (n=635)	2.54	0.53

〈표 12-1〉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4.48	1.26

〈표 12-2〉 성별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남성 (n=730)	4.46	1.35
	여성 (n=770)	4.50	1.18

〈표 12-3〉 연령대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19~29세 (n=260)	3.77	1.34
	30~49세 (n=585)	4.28	1.17
	50~69세 (n=655)	4.95	1.12

〈표 1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민족정체성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민족정체성	250만 원 미만 (n=265)	4.55	1.34
	250~499만 원 (n=600)	4.40	1.23
	500만 원 이상 (n=635)	4.53	1.26

〈표 13-1〉 공동내집단인식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공동내집단인식	4.60	1.26

〈표 13-2〉 성별에 따른 공동내집단인식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공동내집단인식	남성 (n=730)	4.73	1.33
	여성 (n=770)	4.48	1.18

〈표 13-3〉 연령대에 따른 공동내집단인식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공동내집단인식	19~29세 (n=260)	4.04	1.32
	30~49세 (n=585)	4.50	1.22
	50~69세 (n=655)	4.91	1.18

〈표 13-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공동내집단인식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공동내집단인식	250만 원 미만 (n=265)	4.52	1.32
	250~499만 원 (n=600)	4.61	1.23
	500만 원 이상 (n=635)	4.63	1.26

9. 본조사B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표 1-1〉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0.00	0.88

〈표 1-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남성 (n=745)	0.17	0.89
	여성 (n=755)	-0.17	0.85

〈표 1-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19~29세 (n=264)	-0.35	0.80
	30~49세 (n=583)	-0.05	0.86
	50~69세 (n=653)	0.19	0.88

〈표 1-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250만 원 미만 (n=268)	-0.03	0.90
	250~499만 원 (n=582)	0.01	0.84
	500만 원 이상 (n=650)	0.00	0.91

〈표 2-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13.76	6.05

〈표 2-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남성 (n=745)	14.75	6.24
	여성 (n=755)	12.78	5.69

〈표 2-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19~29세 (n=264)	11.28	5.39
	30~49세 (n=583)	13.88	6.05
	50~69세 (n=653)	14.65	6.03

〈표 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국력 강화	250만 원 미만 (n=268)	13.28	6.20
	250~499만 원 (n=582)	13.86	5.84
	500만 원 이상 (n=650)	13.86	6.17

〈표 3-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14.49	6.29

〈표 3-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남성 (n=745)	15.17	6.46
	여성 (n=755)	13.83	6.05

〈표 3-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19~29세 (n=264)	13.11	5.89
	30~49세 (n=583)	14.17	6.23
	50~69세 (n=653)	15.34	6.39

〈표 3-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정체성 보존	250만 원 미만 (n=268)	14.32	6.63
	250~499만 원 (n=582)	14.44	6.13
	500만 원 이상 (n=650)	14.61	6.30

〈표 4-1〉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15.76	6.24

〈표 4-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남성 (n=745)	16.30	6.39
	여성 (n=755)	15.23	6.03

〈표 4-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19~29세 (n=264)	13.29	6.11
	30~49세 (n=583)	15.73	6.02
	50~69세 (n=653)	16.79	6.20

〈표 4-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인지 - 평화 증진	250만 원 미만 (n=268)	15.49	6.17
	250~499만 원 (n=582)	15.80	6.19
	500만 원 이상 (n=650)	15.85	6.31

〈표 5-1〉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3.06	1.05

〈표 5-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남성 (n=745)	3.26	1.05
	여성 (n=755)	2.86	1.02

〈표 5-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19~29세 (n=264)	2.65	0.96
	30~49세 (n=583)	2.97	1.04
	50~69세 (n=653)	3.31	1.04

〈표 5-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긍정 정서	250만 원 미만 (n=268)	3.05	1.08
	250~499만 원 (n=582)	3.05	1.03
	500만 원 이상 (n=650)	3.07	1.07

〈표 6-1〉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2.51	0.92

〈표 6-2〉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남성 (n=745)	2.34	0.92
	여성 (n=755)	2.68	0.90

〈표 6-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19~29세 (n=264)	2.76	0.92
	30~49세 (n=583)	2.57	0.90
	50~69세 (n=653)	2.36	0.92

〈표 6-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태도: 부정 정서	250만 원 미만 (n=268)	2.52	0.96
	250~499만 원 (n=582)	2.48	0.88
	500만 원 이상 (n=650)	2.53	0.95

〈표 7-1〉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2.81	0.66

〈표 7-2〉 성별에 따른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남성 (n=745)	2.94	0.69
	여성 (n=755)	2.68	0.61

〈표 7-3〉 연령대에 따른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19~29세 (n=264)	2.59	0.66
	30~49세 (n=583)	2.77	0.65
	50~69세 (n=653)	2.92	0.66

〈표 7-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연구원 통일태도	250만 원 미만 (n=268)	2.83	0.66
	250~499만 원 (n=582)	2.80	0.65
	500만 원 이상 (n=650)	2.80	0.68

〈표 8-1〉 단일문항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단일문항 통일태도	4.45	1.71

〈표 8-2〉 성별에 따른 단일문항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단일문항 통일태도	남성 (n=745)	4.70	1.76
	여성 (n=755)	4.21	1.63

〈표 8-3〉 연령대에 따른 단일문항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단일문항 통일태도	19~29세 (n=264)	3.88	1.62
	30~49세 (n=583)	4.40	1.70
	50~69세 (n=653)	4.74	1.71

〈표 8-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단일문항 통일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단일문항 통일태도	250만 원 미만 (n=268)	4.52	1.68
	250~499만 원 (n=582)	4.44	1.72
	500만 원 이상 (n=650)	4.44	1.72

〈표 8-1〉 정책 지지: 대북지원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대북지원	4.56	1.48

〈표 8-2〉 성별에 따른 정책 지지: 대북지원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대북지원	남성 (n=745)	4.67	1.54
	여성 (n=755)	4.46	1.40

〈표 8-3〉 연령대에 따른 정책 지지: 대북지원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대북지원	19~29세 (n=264)	3.93	1.55
	30~49세 (n=583)	4.53	1.48
	50~69세 (n=653)	4.86	1.35

〈표 8-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책 지지: 대북지원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대북지원	250만 원 미만 (n=268)	4.61	1.54
	250~499만 원 (n=582)	4.53	1.44
	500만 원 이상 (n=650)	4.57	1.48

〈표 9-1〉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4.84	1.35

〈표 9-2〉 성별에 따른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남성 (n=745)	4.88	1.42
	여성 (n=755)	4.79	1.28

〈표 9-3〉 연령대에 따른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19~29세 (n=264)	4.58	1.36
	30~49세 (n=583)	4.76	1.34
	50~69세 (n=653)	5.01	1.34

〈표 9-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사회/문화교류	250만 원 미만 (n=268)	4.87	1.38
	250~499만 원 (n=582)	4.87	1.32
	500만 원 이상 (n=650)	4.79	1.37

〈표 10-1〉 정책 지지: 경제협력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경제협력	4.64	1.61

〈표 10-2〉 성별에 따른 정책 지지: 경제협력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경제협력	남성 (n=745)	4.69	1.69
	여성 (n=755)	4.58	1.51

〈표 10-3〉 연령대에 따른 정책 지지: 경제협력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경제협력	19~29세 (n=264)	4.23	1.60
	30~49세 (n=583)	4.67	1.53
	50~69세 (n=653)	4.77	1.65

〈표 10-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책 지지: 경제협력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경제협력	250만 원 미만 (n=268)	4.67	1.66
	250~499만 원 (n=582)	4.63	1.57
	500만 원 이상 (n=650)	4.63	1.62

〈표 11-1〉 정책 지지: 군사정책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군사정책	4.43	1.53

〈표 11-2〉 성별에 따른 정책 지지: 군사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군사정책	남성 (n=745)	4.36	1.70
	여성 (n=755)	4.50	1.35

〈표 11-3〉 연령대에 따른 정책 지지: 군사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군사정책	19~29세 (n=264)	3.74	1.54
	30~49세 (n=583)	4.48	1.40
	50~69세 (n=653)	4.66	1.57

〈표 11-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책 지지: 군사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군사정책	250만 원 미만 (n=268)	4.45	1.62
	250~499만 원 (n=582)	4.45	1.50
	500만 원 이상 (n=650)	4.40	1.52

〈표 12-1〉 정책 지지: 통일교육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통일교육	4.96	1.51

〈표 12-2〉 성별에 따른 정책 지지: 교육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통일교육	남성 (n=745)	5.04	1.59
	여성 (n=755)	4.89	1.42

〈표 12-3〉 연령대에 따른 정책 지지: 통일교육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통일교육	19~29세 (n=264)	4.36	1.63
	30~49세 (n=583)	4.96	1.47
	50~69세 (n=653)	5.21	1.43

〈표 12-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정책 지지: 통일교육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정책 지지: 통일교육	250만 원 미만 (n=268)	4.98	1.55
	250~499만 원 (n=582)	4.99	1.45
	500만 원 이상 (n=650)	4.93	1.54

〈표 13-1〉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4.20	1.23

〈표 13-2〉 성별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남성 (n=745)	4.30	1.36
	여성 (n=755)	4.10	1.07

〈표 13-3〉 연령대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19~29세 (n=264)	4.40	1.20
	30~49세 (n=583)	4.07	1.13
	50~69세 (n=653)	4.23	1.31

〈표 13-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	250만 원 미만 (n=268)	4.24	1.24
	250~499만 원 (n=582)	4.17	1.22
	500만 원 이상 (n=650)	4.20	1.24

〈표 14-1〉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2.96	1.35

〈표 14-2〉 성별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남성 (n=745)	3.14	1.35
	여성 (n=755)	2.78	1.33

〈표 14-3〉 연령대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19~29세 (n=264)	2.57	1.28
	30~49세 (n=583)	2.79	1.30
	50~69세 (n=653)	3.26	1.37

〈표 14-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개인	250만 원 미만 (n=268)	2.94	1.39
	250~499만 원 (n=582)	2.94	1.32
	500만 원 이상 (n=650)	2.98	1.37

〈표 15-1〉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평균 및 표준편차 (N=1,500)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2.41	1.35

〈표 15-2〉 성별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남성 (n=745)	2.53	1.40
	여성 (n=755)	2.29	1.28

〈표 15-3〉 연령대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대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19~29세 (n=264)	2.07	1.30
	30~49세 (n=583)	2.28	1.27
	50~69세 (n=653)	2.66	1.38

〈표 15-4〉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평균 및 표준편차

	월 평균 소득	평균	표준편차
통일지향 행동의도: 집단	250만 원 미만 (n=268)	2.38	1.43
	250~499만 원 (n=582)	2.38	1.30
	500만 원 이상 (n=650)	2.45	1.36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7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	----------------------	-------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해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을 결정요인 분석	정은아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헌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리아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2020-2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2	홍 민 외	13,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KINU Insight

-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가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INU 통일연구원

값 12,500원

94340



9 791165 890353
ISBN 979-11-6589-035-3
ISBN 979-11-6589-031-5(세트)